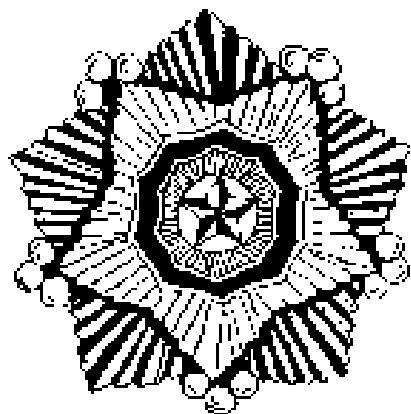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10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10호

(루계 제624호)

차례

풍상의 메아리	4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5
내 조국땅우에 끝없이 뻗어간 사랑의 길	6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7
고고성	8
나는 먼길가는 법을 배웠다.....	17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18
봄하늘이야기	18
내 마음의 호수.....	19
어머니에 대한 찬가	20
우리 큰집 트랙(외3편).....	22
출근길	22
퇴근길	23
당중앙지붕의 붉은기	23
동지	24
평양하늘.....	31
받아주세요.....	31

장군님 결승선에서 맞아주셨네	32
장하다 민족의 딸아	33
심장의 세기에 대하여	33
이 나라 너성의 이름으로	34
결승선	35
창작실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나가겠습니다	36
더 높은 사상적각오와 강한 정신력으로	36
이들처럼 땅을 사랑하라	37
백학이 날아드네	39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언어형상	40
어머니 생각(외1편)	43
발가승이시절	43
비오는 거리에서(외2편)	44
귀맛	44
해놓은 일을 보면	44
백두길을 걸으며(외2편)	44
밀영풍경	45
눈보라에 대한 송가	45
영원한 복무	46
바다와 청춘	56
돌아올 권리	57
자유분방한 립제	61
네가 좋더라, 바다여(외1편)	62
초침소리	62
나의 가정이야기	63
아우게아왕의 외양간	74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예술적특성에 대하여	75
평화의 상징 비둘기	79
의학상징의 유래	80

풍상의 메아리

김명익

멀리, 해저무는 길을
가실 때 들리시고
달이 지는 먼먼길
갔다오실 때도 들리시고

오늘도 불이 밝아 금수산의 집무실
그이는 정겨이 들어서시는데
수령님은 멀리 출장을 가셨을가
가시면 가신다고 하시더니

흘러 몇해런가 예전 그대로인
세계를 움직이던 집무실
집무탁도 쓸어보며 금고로 가시여
감회로이 열쇠도 넣어보신다

절컹!-
금고가 열리누나
아, 풍상질은
세월의 문이 열리는가

여실 때마다 전우와 더불어 남기신
해방년의 옛 사진 한장
줄기줄기에 빛발쳐오는
못잊을 동지애의 력사이런듯

피어리어 첩첩한 그 자취우에
금빛 사회주의궁궐을 세워주시고
무궁한 해를 주신
그 성업, 천추에 유산으로 남겨주셨거늘

그러나 남긴것이 없구나!
평생토록 락은 인민에게 베푸시며
하늘가에 인민금자탑도 쌓았으련만
자신을 위해선 행여 은조박 하나도...

지전 오십전을 품고 압록을 넘으신 길
만주설원에 이십원을 간직하고
항일전을 하신 우리 수령님을
이 나라 사람들 모르지 않는다만

오, 모르지 않는다만, 다 말해 무엇하리

그 이십원조차 어떻게 쓰신 그이이신데
손 한번 대보지 않은 향산의 장중보옥들
그렇듯 다 물려주신 그이이신데

더 말해 무엇하리 한 산촌농가를 찾아
수령님 그달 생활비 다 쥐여주시며
평양에 가져오신 여섯마리 메세들이
오늘도 인민의 마음가에 훨훨 날고있는데

슬하에 거느린 자손들이 많아서이라
한당대 주시기만 하신 그이, 그이이시련만
인민은 그저 마음밖에 드린것이 없거나
없더라, 하나도 받으신것은...

수령님은 정녕 그러하셨던가
후세앞에 그 대가를 받으시자고
이 강토우에 지팽이를 깊어가시며
생애의 마지막길을 가시었더나

아,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면
80여생을 살아오시지도 않았으리
천만백성이 아니었다면 그 생을 넘어
오래오래 사실수도 있었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앞을 가리워
장군님은 금고를 닫으시는데
절컹!-
풍상의 세월이 메아리치는듯...

없구나! 가는 세월 오는 세월에
한장의 사진뿐이런가... 빈 금고
오, 80여풍상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총가산이여!

...

오늘도 불이 밝아 금수산의 집무실
그이는 정겨이 들어서시는데
수령님은 멀리 출장을 가셨을가
가시면 가신다고 하시더니...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는 첫 말이 어머니다. 어머니란 말처럼 친근하고 자애로우며 사랑스러운 말은 없다. 한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로록 사심없이 뜨거우며 한계가 없이 자애롭기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모두는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당일군들로 하여금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주어 그들모두를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워나가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 사랑, 그 손길아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는것이 아닌가!

기억도 새로운 주체58(1969)년 7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고 물으시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여러가지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였으나 한마디로 명백히 짚어 대답할수 없었던 일군들은 잠시 망설이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일군의 품성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기며 참으로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었다.

《어머니는 앓는 아이가 쓴 약을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고 하여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며 아무리 열려도 먹지 않으려고 할때에는 억지로라도 먹이고야 맙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육체적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끝내 약을 먹이고야마는것처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끝까지 교양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따듯이 보살펴주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교양하는가 안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속깊이 새기며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실로 컸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당일군의 본분과 당사업의 리치에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졌다.

통속적으로 구수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서 일군들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지닐때만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교양개조하여 참된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을 친어머니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펴주고 손잡아 이끌어 그 어떤 곤난도 시련도 뚫고나가는 혁명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것이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끝이 없듯이 어머니당의 사랑은 실로 한계가 없다. 진정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한점의 티라도 질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불타는 충성을 가다듬고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구보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내 조국땅우에 끝없이 뻗어간 사랑의 길

이 땅우에 어느덧 찾아온 단풍계절.

내 나라,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비졌는가 맑은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산과 들 그 어디를 보나 한껏 곱게 물든 단풍잎새들이 미풍에 설레이며 제모습을 자랑한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취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잠시 차를 멈추었다.

옷자락을 날리며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에 물결치며 설레이는 깃누런 벼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해 봄내 여름내 흘린 구슬땀이 알찬 열매로 무르익었는가, 구수한 낱알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

볼수록 가슴흐뭇한 장관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에 둘러싸인 포전머리의 표식비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포전》

표식비의 붉은 글발이 뜨겁게 안겨온다.

경쾌하던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숭엄한 감정으로 바뀐다.

이 나라의 평범한 포전길에 어려있는 사랑어린 로고의 자욱.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랑을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걷고걸으신 그 길,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사랑의 그 길이 눈앞에 밝혀온다.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비내리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가림없이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

두메의 산간벽촌 땀기밭으로부터 벌방의 논두렁길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사랑의 자욱.

농촌에 나와 길을 가리겠는가고 하시며 진창에 빠진 승용차도 손수 미시며 우리 수령님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

때로는 포전머리에서 구운 풋강냉이 몇이삭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시며 농사를 잘 지어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 방도를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정녕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나라의 대지우에 끝없이 찍어가신 자욱자욱마다에 어려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자욱이 어리어있는 이

길에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어제는 강원땅에 토지정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여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올망졸망한 땀기밭들과 다락논들을 없애버리고 무연한 벌을 펼쳐주시고 오늘은 우리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모든 일을 기계로 흥겹게 하도록 해주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지난 5월말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성능과 형태가 각이한 여러가지 트랙토르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기 위해 어느 한 농장벌을 찾으시었다.

때는 해 뜨기전 이른새벽.

이슬뼉인 논두렁길을 밟으시며 트랙토르들의 논씨레질작업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자꾸만 저려드는 심중을 누를수 없었다.

몇시간전이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트랙토르들이 물논씨레질을 하는것을 볼수 있게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길로 농장벌에 나가실 준비를 갖추시었다.

일군들은 다망하신 사업으로 전날밤도 꼬박 지새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고 오후에 나가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인데 순간도 지체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봅시다.》라고 하시며 첫새벽에 논벌로 나오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력수와 형태가 각이한 트랙토르들이 차례로 씨레질을 하게 하시고 가동속도와 회전반경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발동소리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찰하시며 성능과 구조작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사위는 환히 밝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너무 지체시켰다는 죄책감으로 하여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초조한 빛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농민들이 대를 두고 쓸 트랙토르를 생산하는 문제인데 여러모로 신중히 따져보고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매 트랙토르들의 작업상태를 다시금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며 우단점들을 파악하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농민들에게 저 트랙토르들을 다 보여주었는가, 농민들

이 어느것을 좋아하던가고 물으시면서 농사일을 제일 잘 아는것도 농민이고 기계를 다룰 사람도 농민들이기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자리에 참가한 트랙토르공장의 기술일군도 농업성의 지도일군들도 심한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농기계를 설계하고 생산해왔지만 그 기계를 쓸 당사자인 농민의 심정에서 생각하고 애써오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는 트랙토르 한대, 농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로새기며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하고 투철한 인민적관점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생각해보면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생활력을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은 얼마이고 바치신 로고는 또 그 얼마이던가.

강원땅에 가시여서는 마음껏 기계로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 농민들의 세기적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진눈까비 내리는 토지정리장의 진창길을 걸으시며 포전규모를 정해주시고 자강땅에 가시여서는 등짐과 손달구지로 거름을 날라서라도 알곡생산을 늘일 강심을 품고 일손을 다그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를 보내주실 결심을 굳히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

시다.

오늘은 또 이렇게 눈덮인 새벽길을 걸으시여 몸소 포전에서 트랙토르의 작업모습까지 보아주시며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는 사회주의 우리 농촌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리며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는 준엄한 시기에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였던 공산주의리상촌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농촌의 새벽길.

참으로 그 길은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실천, 위대한 전환으로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찬란한 번영의 새날을 불러오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어나가시는 새 력사의 새벽길, 강성대국건설의 새벽길이다.

금나락 설레는 농장벌을 지나 굽이굽이 뻗어간 길을 생각깊이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나날이 더욱더 풍요해지고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번영할 래일의 모습이 안겨왔다.

아버지수령님 열어주시었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사랑의 길이 있어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그 이름 떨칠 내 나라,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고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뎌바 마피코

김정일동지는

동방에 솟아오른 밝은 태양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그이는 영원히 빛을 뿌리는

진보적인류의 태양

그이는 **김일성**주의의 체현자

그이께선 압박받는 세계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나니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그이의 사상은 **김일성**주의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탁월한 명도자로 높이 우러르네

주체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전진하시기를 축원하네

우리는 소리높이 부르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그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구현자

(필자는 짐바브웨종합대학 박사임)

고고성

김성관

1

밤이 들면서부터 비는 한층 세차졌다. 지척을 분간할수 없게 담벽처럼 막아서는 비였다. 승용차의 밝은 전조등불빛마저 그 폭우의 담벽을 뚫지 못해 몇걸음앞에서만 허둥거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는 차안에 조용히 앉으신채 그악스러운 비소리를 듣고계시였다. 100년래의 큰비가 예견된다는 기상수문연구소의 통보를 받으신것이였다.

앞좌석에서는 리인철장령이 어깨가 짝 벌어진 옷몸을 세우고 긴장하게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그는 다년간 정군님을 몸가까이 모셔오면서 군사문제를 보좌해드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며칠간에 걸친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오늘날 해도놈들은 우리측 군사분계선접경에 수천발의 총포탄을 미친듯이 퍼부어댔다. 그이께서는 그 악랄한 도발이 장마철에 접어들어 더욱 집요해지고있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점을 중시하고계시였다. 허나 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것은 아니였다. 몇해째나 계속되여오는 자연재해, 또다시 우려되는 큰물...

갈길은 아직 멀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물려드는 피로를 어쩔길이 없어 좌석등받이에 지그시 몸을 기대시였다. 온몸이 노곤해지시였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마음을 다잡으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결하신후 한해가 지나가도록 언제한번 마음편히 쉬여본적 없는 그이이시였다. 최대의 정신적긴장과 강철같은 의지로 온갖 피로를 눌러오시며 원썩들의 입력과 도전에 맞서 민족의 존엄과 장래를 꺾이지 지켜오신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도 쌓이고쌓인 그 육체적피로만은 어쩔길이 없으신것이였다.

《장군! 힘을 내요!..》

그이께서는 문득 꿈결에서처럼 어렴풋한 목소리를 들으시였다. 어디선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그러면서도 우주에 비껴가는 하늘의 울림과도 같은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음성에 반기시며 눈을 뜨시였다. 전화기를 통해서나마 들으시고 되면 금시에 온갖 피로가 씻은듯이 가시여지고 온몸에 새벽대기와도 같은 청신한 활력이 부여되어 한손으로 지구라도 흔들어놓으실것 같은 억센 힘과 배짱이 솟구쳐오르게 하던 그 목소리였다. 수령님과 영결하신후에는 금수산기념궁전

을 찾으실때마다 늘 마음속에 느끼며 힘을 얻곤 하던 그 음성이였다. 허나 방금전에 그 음성을 들으며 받아안으신것은 그런 힘만이 아니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굶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에 밤을 이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수령님께서 오늘날도 비바람 사나운 밤길을 함께 헤치시며 고무를 주신다고 생각하니 힘을 얻기에 앞서 가슴이 저려오시였다.

승용차는 갑자기 속력을 죽이더니 소리없이 멎어섰다. 그이께서는 약간 옷몸을 솟구치며 리인철장령에게 물으시였다.

《무슨 일이 생겼소?》

《선두차가 멎었습니다.》

리인철은 대답을 드리기 바쁘게 차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비뿌리는 어둠속으로 사라지더니 그는 인차 돌아왔다.

《장군님! 무더기비에 개울물이 불어나 도로가 막혔습니다. 우회로를 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큰물에 대한 불안은 그이의 의식속에서 즉시 눈앞의 현실로 전환되였다. 벌써부터 무더기비의 피해가 들이닥치기 시작한것이였다.

《두시간을 애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물으시였다.

《그보다 더 빠른 우회로는 없겠소?》

리인철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있기는 했지만 몹시 험했던것이다. 장군님의 시간은 순간순간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의 연속,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적인 수호의 연속이였다. 하기에 그자신도 그이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자고 마음써오지만 만사가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지금의 경우가 그랬다. 시간을 아껴드리자고 장군님을 그런 험로에 모실수야 없지 않는가.

《있기는 하지만 곤란합니다.》

《리유는?》

《군용지도에나 표기되어있는 낡은 도로이므로 저로서도 파악이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더 생각할것도 없이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면 길도 눈에 익힐겸 그 길로 갑시다. 좋은 길로만 찾아다닌다면야 그게 무슨 현지시찰이겠소.》

차는 방향을 바꾸어 우회로에 접어들었다. 달구지가 지나다닌듯싶은 울퉁불퉁한 좁은 길이었다. 비물에 패인 자리가 언뜻언뜻 드러나고 차가 마구 들추어댈 때마다 리인철은 속이 한줄만해지곤했다. 그는 그것이 달리는 차안에서나마 그이

게서 좀 쉬실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기에 그 불만이 커질수록 그는 황포한 자연앞에 너무도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하며 긴장하게 앞을 살피었다.

비는 한결 뜸해졌다. 바람도 잦아들었다.

전조등불빛에 웬 아이들의 모습이 언뜻 드러났다. 비옷을 입고 손에 보자기를 들었다. 손을 잡고 길섶으로 비켜서더니 다가오는 차를 뚱히 마주보고있었다.

날도 어두웠는데 이 무인지경에 웬 아이들일까. 혹시 길을 잃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자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었다. 차가 애들 가까이에 멎어서자 그이께서는 리인철이 미처 어쩔사이도 없이 차문을 열어젖히시고 애들을 부르시었다.

《애들아!》

애들은 어정쩡하여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으나 어둡기때문에 그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나?》

처녀애가 차바퀴 다가서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밥가지고 갑니다.》

애들은 이고장 목장마을에 사는 오누이인데 처녀애는 열한살, 총각녀석은 일곱살이었다. 우통통하게 생긴 총각과는 달리 처녀애는 여간 령리하지 않았다. 목장에 있다면서 아버지 밥가지고 다른데로 간다는것이 제 생각에도 별나게 여겨졌던지 길 오른쪽 시꺼먼 산골짜기를 가리키며 얼른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 목장 작업반장인데 저기 금골 폭포근처에 가서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오, 그랬었구나. 너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이께서 치하해주시자 사내애는 함뿍 웃음을 담고 신이 나서 자랑을 했다.

《이제 머지 않아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목장 사료분쇄기도 돌리고 집집마다 전기온돌까지 놓는다고 해요.》

《전기밥가마도 건대요.》

앞에서 듣고만 있던 총각녀석도 끼여들었다.

《거참 대단한걸.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밥을 가져다 드리군하니 단단히 한몫 하고있는 셈이로구나. 그럼 어떤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지 구경 좀 해볼까? 그래도 되겠냐? 애야.》

어디에 가시는 인민들의 식생활부터 알아보시는 그이이시였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오늘 더욱 그러하시였다.

처녀애는 머뭇거리다가 그이께 밥보자기를 드러냈다. 그이께서는 보자기를 받아 옆에 놓고 천천히 풀어헤치시었다. 남비뚜껑마저 열어젖히시

니 밝은 전지불에 통강냉이, 당콩, 감자 그리고 무슨 가루인가를 섞어서 만든 범벅이 드러났다. 제법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너희들도 이런 범벅을 먹고 떠났냐?》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투를 벌릴 아버지의 밥이 범벅일진데 묻지 않고서도 짐작하실수 있었지만 그이께서는 왜서인지 애들의 대답을 들어보고싶으시였다.

《네.》

처녀애는 제격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총각녀석이 못마땅하게 제 누나를 힐끔 돌아다보며 툭 내쏘았다.

《형, 누난 대포쟁이!》

총각녀석의 쫘한 모양이 자못 우스웠지만 그이께서는 일부터 엄한 티를 내시였다.

《허 어른들앞에서 대포를 놓아서는 안되지. 네가 한번 사내답게 바른대로 말해봐라. 무엇을 먹었지?》

《죽먹었습니다.》

《무슨 죽말이나?》

《강낭죽.》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셨지만 정작 어린애한테서까지 죽먹었다는 말을 들으시니 그이께서는 가슴이 메이는듯하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였다. 아무리 나라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것을 못주신것 같고 그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못다하신것 같으시여서였다.

촉기빠른 처녀애는 차에 타신분들이 보통간부들이 아닌것 같은데 어린 동생이 철없이 아무 소리나 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모양 그것을 정정하듯 다소 주눅이 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는 오늘저녁에도 청얼대는 동생에게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이제 우리도 머지 않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잘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도 어른스러운 말이었다. 그 때문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리어 가슴저미는듯한 아픔을 더 느끼시였다. 맛있는것을 골라가며 먹고 어찌면 한창 밥투정마저 해야 할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 오누이만이 아닌 온 나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이제 당장이라도 세상에 부럼없이 먹이고 입히고 좋은것이라 좋은것은 다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였으나 아직은 어쩔수가 없으시였다. 그래서 더욱 괴로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인철장령에게 도종식사로 가지고 다니는 쥬기밥과 건과자를 꺼내라고 하시여 애들의 그 밥보자기에 넣어주시였다.

《지금은 너희들에게 줄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너희 할머니가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도 이제 머지 않아 잘살게 된단다. 지금 너희 아버지

가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있는것도 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잘해야 한단다. 알겠나?》

《네.》

애들은 목소리를 합쳐 힘차게 대답했다.

2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흔들리는 좌석에 몸을 맡기신채 오래동안 말없이 앉아계시었다. 오누이를 만났던 그 가슴아픈은 점차 그이의 사색속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시었다.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수령님께서도 자주 인민복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가는곳마다에서 열렬하게 뜨겁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진정을 담아 친혈육, 한식술처럼 대해주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었다.

어둠이 비낀 차창에 남자처럼 얼굴이 등실하게 생긴 한 늙은이의 환히 웃는 모습이 불쑥 환등에서처럼 비졌다. 얼마전 현지시찰의 길에 잠깐 들렀던 압록강하구의 두루미섬에 사는 옥성녀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당년 78살의 옥성녀할머니, 그가 하는 집터자랑은 그이의 기억속에 인상깊게 남아있었다.

옥성녀로 말하면 두루미섬에 태를 품은 토배기로서 여섯살적 홍수에 랑부모를 다 잃고 기박녀로 불리우며 아이보개로, 부엌데기로 종살이를 해온 녀성이였다. 한마을에서 머슴을 사는 떠꺼머리총각과 눈이 맞았으나 가정을 이룰수가 없었다. 가정은 커녕 종으로 매인 몸들이라 보고싶어도 마음놓고 만날수조차 없었다. 해방이 되어 제 땅을 분여받은 다음에야 그 발머리에 똑막을 짓고 살림을 펴게 되었다. 첫날밤 부부는 서로 엇비슷한 꿈을 꾸었다. 푸르청청한 하늘나라 어디에선가 목깃이 울긋불긋한 봉황새 한마리가 섬상공으로 훨훨 날아와 칠색무지개빛의 현란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빙빙 돌더니 신혼부부의 보잘것 없는 똑막으로 날아들었다. 어째서 봉황새가 번듯한 기와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초라한 똑막으로 찾아들었다단말인가. 신기하다기보다 너무나 조화스러움에 놀란 부부는 거의 동시에 꿈을 깨치고말았다. 좋은 꿈을 깨친 아쉬움과 자기들의 앞날에 그 어떤 행운이 찾아들것 같은 막연한 기쁨에 휩싸인채 그들은 날이 밝을때까지 더는 잠들지 못했다. 아니나다를가 얼마후부터 안해의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다음해 정월대보름날에 장독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복이 줄을 놓았는지 제 땅에서 지은 농사에 해마다 대풍이 들어 첫해에는 둥글황소를 사맷고 다음해에는 똑막을 털고

그 집터에 기와집 세칸을 번듯하게 세웠는데 그때부터 복은 줄을 서서 트락이 좁다하게 들이닥쳤다. 남편은 리인민위원장으로, 안해는 군대의 원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원쑤놈들의 폭격으로 두번이나 집이 불타버렸지만 그 집터에 두번 다 그놈들 보란듯이 새집을 일떠세웠다. 복받은 집터가 되어 그런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사는 모든 식솔들이 무병장수하였고 뭐든지 마음먹은대로 일이 척척 잘되어나갔다.

옥성녀의 아들도 그 집에서 첫 아들을 보았다. 지금은 한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일하고있지만 그는 세상만복을 다 견어안은듯싶은 그 집을 뜨기가 아쉬워 지금껏 말손자를 데리고 그 집에서 살고있는데 머지 않아 그 손자며느리가 첫 해산을 하게 된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옥성녀의 그 남성다운 걸걸한 목소리가 아직 귀전에 선하시였다.

《글쎄 장군님! 그애를 평양산원에 데려다가 해산시키겠다구 우리 며느리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문야 신선나라같은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난 안보냈지요. 왜 그런가면 여기 복받은 내집 아래목에서 증손이의 태줄두 끊어주구싶은걸요. 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요. 하지만 이 눈에 흠이 들어간대두 우리같은 천대꾸레기한테까지 좋은 집터를 마련해주신 수령님 은덕만은 잊지 못하겠어요.》

그이께서는 집터이야기에서 그 어떤 미신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달리는 될수 없는 생활의 진실과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래일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되시였고 그래서 더욱 늙은이에게 애정이 가시였고 두루미섬이라는 조국의 한 기슭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으신것이였다.

질량보존의 법칙이라는 물리학적인지에서 고찰할 때 한흙의 미시가루는 인체내에 흡수되어 고작 수십카로리라는 열량밖에 발산하지 못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그 한흙의 미시가루는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전률케한 무적의 힘으로 전화되었었다. 그힘의 원천은 전적으로 한흙의 미시가루에 깃든 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였다. 결국 수령님께서서는 그 위대한 인간사랑으로 20성상의 간고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것이였다.

하기에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의 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을 주시며 병사들을 찾아,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이였다. 그만큼 그이의 마음속에는 그 인민이라는 위대한 실체가 언제나 한가득 자리잡고있는것이였다. 지금 그 위대한 실체가 특히 식량사정으로 시련을 겪고있는것이였다.

우선 최선을 다해 자연피해를 미리막고 올해의

풍년환경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불쑥 이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오르자 그이께서는 리인철에게 물으시었다.

《우리가 지난봄에 들렀던 왓새벌이 생각나오?》

왓새벌은 서해안 곡창지대의 하나일뿐만아니라 서부내륙의 관문이라고도 볼수 있는 지점으로서 만약 그곳이 열린다면 나라의 허리를 잘리우게 될수도 있는 전략적요충지이기도 했다.

《장군님! 생각납니다. 만약 놈들이 그 지대를 노리고 무모하게 군사작전을 벌린다면 그 어떤 무력을 들이민대도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 순식간에 소멸되고말것입니다.》

그는 평소의 확신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허나 그이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었다. 혹시 장군님께서 비소리와 발동소리때문에 잘 듣지 못하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는 다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었다.

《그 일대의 방어대는 철벽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있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금 그이의 물으심에 빗나간 대답을 드리고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때문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 왓새벌말이요. 수로확장공사를 언제쯤 했던지 모르겠소?》

리인철은 한층 더 난처해졌다.

《예?》

그것을 알수도 없었거니와 군사작전상 그것이 문제점으로 될수는 없었기때문이였다. 그이의 물으심이 군사박의 문제라는것이 명백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나에서 둘이나 셋 지어 열이상을 포착하시고 바로잡아나 가시는 그이이시기에 미처 그 뜻을 따르지 못해 가끔 궁지에 빠져들곤했지만 지금은 죄책감마저 느꼈다. 정세로 보아 어느때보다 책임적으로 장군님을 보좌해드려야 할 지금이 아닌가.

날이 썰무렵에야 승용차행렬은 고층살림집의 불빛이 원경에 비친 수도의 교외에 이르렀다. 비는 멎었으나 비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하늘을 짙막은 구름층우에 더 많은 비구름을 실어다가 자꾸 쌓아놓으려는듯 끈적스러운 동풍이 와수수 가로수를 흔들며 지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길옆에 내려서시여 수도의 밤 거리를 바라보고계시었다. 새벽빛이라 하기에 너무도 미미한 그 미명이 어슴푸레 비친 거리의 모습은 시커먼 산그림자처럼 우중충했다.

창문마다 하나둘 불빛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온 거리가 그대로 불야성이 되었다. 수도의 거리는 려명을 앞당겨 새날을 맞이하고있는것이였다. 이제 사람들은 활기에 넘쳐 출근길에 오를것이며 웃고 떠들며 하루일을 시작할것이다.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곳이기에 무심히 대할수 없는 수도의 새벽거리였다.

어제밤에만 해도 참으로도 헤아릴수 없는 가슴아픔을 당하시였지만 그대신 어린 오누이와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와 초소마다에서 만났던 병사들의 림름한 모습에서 그리고 두루미섬 옥성녀 할머니에 대한 추억에서 부닥친 난관이 아무리 크다해도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강인성을 다시한번 보게 되시었고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대도 우리 인민은 끄떡없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시었다. 그만큼 힘을 얻기도 하시었다. 하루빨리 《고난의 행군》을 결속짓고 그들모두에게 웃음도 주고 노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세상의 좋은것은 다 주어야겠기에 현지시찰의 길을 멈출수 없으시었고 고요한 수도의 새벽거리에 선뜻 들어서게 되지 않으시었다.

또다시 된비가 쏟아지려는지 우박같은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장군님! 비가 쏟아지기전에 어서 시내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리인철이 조용히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주위에 둘러선 장령들과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하긴 동무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비가 어디 그러라고 하오? 아무래도 그 왓새벌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요. 기본수로도 그렇구 잠관이랑 백년래의 큰비를 감당할만하게 되었던지 기억되지 않는단 말이요. 비물을 미처 뿔아내지 못하면 큰비에 그 벌이 통채로 녹아날수 있소. 피곤하더라도 우리 이길로 제격 나가보고 대책을 세웁시다.》

리인철은 왓새벌을 두고 물으시던 그이의 깊은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죄스러움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어쩔수가 없었다.

이윽고 승용차행렬은 평양을 다시 벗어나 왓새벌을 향해 달리였다.

3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계시었다. 농업일군협의회가 끝나기 바쁘게 이곳에 오신것이였다.

그이의 최전연초소들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은 뒤 분계선상의 정세는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적들은 군사분계선전역에 걸쳐 제1선 공격서렬에 수많은 현대적인 기동타격수단들과 최신 무기로 장비된 보병사단들을 은밀히 증강배비하고 대기시켜놓았다.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룡군공격서렬에 수륙량용장갑차를 다량 전개시켜놓았던 것이였다.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작전일

군의 보고를 신중히 들으시고 나서 물으시었다.

《그러니까 놈들이 이번 우기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수 있다는것이겠소?》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는 큰키를 꼴꼴이 세우며 정중히 대답하고 나서 놈들의 기도에 대응한 작전적방안을 설명했다.

그 작전적방안의 긴박성을 론증하듯 한 군사정치일군이 오늘 서방의 보도계가 약속이나 한듯이 달려보낸 그들 나름의 권위 있다는 정치가의 글을 그에게 말씀드리었다.

《그 사람은 올해야말로 지구상에서 랑극대결구조가 허물어진후 그처럼 서방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의 끌치거리로 되어온 조선의 사회주의마저 종말을 고할 마지막해로 될것이라 했습니다.》

《가만!》

그이께서는 한손을 약간 드시며 그의 말을 중단시키시었다. 책상위의 신호종을 누르자 몸매가 툼툼한 연락관관이 들어서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당중앙위원회 박명수부부장이 도착하거든 즉시 들여보내시오.》

《알았습니다.》

그는 힘있는 대답과 함께 절도있게 돌아서자 들어올 때처럼 문밖으로 제껴 나갔다.

《계속하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제 서방이 자기의 강력한 대포와 경제봉쇄로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한다면 이번 큰물기에 어차피 조선사회주의도 끝나게 될것이라고 화약냄새까지 풍긴것입니다.》

그이께서는 태연히 팔걸이를 하시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온화하시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로구만.》

그이께서는 방안 랑쪽 의자에 자리잡고앉은 장령들을 여유있게 둘러보시었다.

《별로 신경쓸것이 없을것 같소. 다른 사람이 어제 한 소리를 그저 순서바꿈을 해놓았을뿐인데 거기서 뭘 얻어들을게 있겠소.》

흥분했던 방안의 분위기는 순간에 폭 같아앉았다. 그이께서는 그 정치일군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그렇다고 영 흥미가 없는것은 아니요. 필자를 기억해두었소? 하긴 서방이란 랑탈과 지배의식으로 꼭 찬곳이니 누구든 같겠지만 기억해두어서 나쁠진 없을거요. 어차피 장마는 끝나게 될테니까 그때가서 그가 또 뭐라고 써내겠는지 그게 바로 흥미있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입가에 랑소를 머금으신채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창밖에서는 그 서방정치가의 론거를 반증하듯 대줄기같은 비가 짹짹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조선은 지금 세계의 초점에 놓여있다. 서방은

압살의 초점에, 진보적인류는 동정과 우려의 초점에 놓고 주시하고있다. 어째서 서방은 그렇게도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가? 어째서 조선이라는 한 자주독립국가가 질식되어 쓰러지기를 그리도 바라고있단 말인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대양 건너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위구라도 느끼고있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입을 꼭 다무신채 머리를 흔드시었다. 그렇지 않다는것은 그들자신도 잘 알고있다. 하다면 그들이 조선에서 진정으로 겁내는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원자탄도 깰수 없는 필승불패의 일심단결, 그 일심단결의 원동력이고 근처에 굶이쳐 흐르는 위대한 인간사랑인것이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엮혀진 사회, 이 당, 이 사회에 굶이쳐흐르는 사랑의 흐름을 거세해버리려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라는 광활한 대지에 흘러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수천년 흘러온 인류력사를 진정한 인간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오는 더 많은 외국벗들의 모습에서도 그이께서는 그 인간사랑의 욕구가 거세찬 시대적흐름으로 된 현세기를 절감하고계시었다. 미구하여 그 사람은 거대한 힘이 되어 지구상에서 압제자들을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었다.

인류는 이제 머지 않아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곡절많은 20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압제자들은 위대한 인간사랑이 거세된 세기, 압제의 사슬로 지구를 칭칭 동여맨, 그래서 저들의 압제가 그대로 력사가 되고 저들의 《안전》나 《고요》가 담보되는 그런 21세기를 바라고있다. 바로 그때문에 조선을 현세기에 기어이 압살해버리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이께서는 온몸에 힘을 주시며 두주먹을 꼭 부르짖시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이다. 력사는 압제자들이 원하는대로 흐르지 않을것이다.

비는 한층 기승스럽게 쏟아져내린다. 그이께서는 창유리로 줄기지어 흘러내리는 비물을 내다보시며 두루미섬을 생각하시었다. 그 섬일대가 제일 마음에 걸리시었다. 웬간한 홍수에도 옥성녀와 같은 수많은 기박녀가 생겼다는 그런 고장이 아닌가.

이때 몸집이 들쭉해보이는 한 일군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압록강하구지대에 파견되었던 박영수부부장이었다. 그는 사업노트를 펴들고 그곳형편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었다.

《특히 어제 하루사이에 강상류지대에 많은 비가 내렸기때문에 두루미섬을 포함한 몇개의 섬이 위험을 받고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 보아 나흘후에는 모든 섬들이 침수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끝내 그곳에 문제가 생겼구만. 현대 이것보오. 이제라도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면 침수

가 앞당겨질게 아니겠소?)

《그래서 2천명의 청년들로 구조대를 못하고 급히 섬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고있습니다.》

《섬주민이 만여명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1대 5라는 소린데...》

《장군님! 물살이 하도 사납다보니 큰배들이 많아 구조대를 더 늘일수 있겠는데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다른곳의 배들을 불러올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음...》

한쪽에서는 침략의 검은 마수가 손을 뻗치고 다른쪽에서는 횡포한 자연이 만여명의 생명을 위협하고있었다.

두루미섬... 생각깊은 고장이었다. 굴지의 건설장이나 대야금기지에서와 같은 벽찬 숨결은 느끼지 못하시였으나 그대신 한척의 아담한 유람선에 오르신 때처럼 후두운 정서를 가슴가득 받아안으시였던 조국의 한 기슭이였고 이 땅 어디에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삶이 꽃피나던 보금자리였다. 정갈한 교사에서 울려나오던 광랑한 글소리, 집집의 헛대에서 알을 낳은 어미닭의 꼬꼬덕소리, 한뼘으로 작황이 좋던 남새포전들... 그 모든것이 유정하게만 느껴지시던 오붓한 마을이였다.

집터자랑에 시간가는줄 모르던 옥성녀할머니의 절절한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첫 해산을 앞두었다던 그의 손자며느리 생각도 나시였다. 그 복판은 집에서 증손이의 태줄마저 끊어주고싶어 평양산원도 마다했다고 했는데 큰물때문에 그 소원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시였다.

두루미섬에서 이제 다시는 그전 세월의 옥성녀할머니와 같은 기막내가 생겨서는 안될것이였다. 자연의 횡포가 제아무리 사납다해도 단 한명의 기막녀도 생겨서는 안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으시고나서 박력있는 걸음걸이로 자리에 돌아오시였다. 표정이 자못 엄숙하시였다.

《적들의 무분별한 움직임에 대처하여 전선력량을 보강하자는 동무들의 의견에 나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안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장령들은 몸자세를 바로하며 긴장하게 전투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리인철은 누구보다도 정신력을 집중하고있었다. 모든 명령을 기억해두어야 했던것이 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하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장령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시에 고개를 들고 그이를 바라보았다. 리인철은 제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방안의 분위기에서 잘못든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한층 긴장해졌다. 이번에도 장군님의 의도에 접근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던것이다!

《륙해공군의 강력한 력량을 수해지역으로 긴급 출동시켜야겠습니다.》

장령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리인철은 그만 부동의 자세가 되어 장군님께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묻는듯한 시선을 그에게 보내시였다. 리인철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군사분계선상의 전선들에는...》

장군님께서서는 가벼이 손을 흔들어 그의 말을 끊으시였다.

《군사분계선은 바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침착하게 방안을 둘러보시였다

《동무들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허나 놈들이 제 아무리 허장성세해도 우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함부로 건드릴 때 제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때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그이의 안광에서 번개가 번쩍 이는듯했다.

《방금 동무들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섬주민들이 홍수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응당 온갖 자연의 횡포로부터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작전지휘부의 립대철장령이 책임지고 출동하십시오.》

몸집이 거방한 한 장령이 벌떡 일어서며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방안은 점차 감동과 흥분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4

집무실로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무엇인가 놓치고있는것 같아 다시금 리인철에게 이르시였다.

《특히 섬주민들속에 병약자들과 운신못하는 늙은이들도 있을수 있으니 특별히 관심을 돌리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소. 홍수에 집이 무너지고 가산이 떠내려가는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더 번듯하게 마련해주면 되겠지만 사람이 상하는 경우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해줄수 없는거요.》

《명심하겠습니다. 헌데 보고에 의하면 환자는 없지만 그대신 시간을 다투며 해산을 기다리는 임신부가 여덟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란리에 파

거본다구 하필이면 그런 일치가 생겼는지...》

《경사로구만. 아주 좋은 일어요.》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며 물으시었다.

《헌데 내가 알아보라고 한 옥성녀 할머니네 손자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소?》

리인철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씀드리었다.

...오늘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당자는 몹시 피로와하는데 웬일인지 당장 해산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섭진료소 조산원이 전적으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도 조산원 20여년에 그런 일이 처음인데다가 마을에까지 물이 들어온데서 오는 불안이 겹쳐 그자신이 무척 당황해하고있는 형편이었다.

《혹시 조산원의 그 불안이 산모의 신경을 건드려놓은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닌것 같소. 그러지 않아도 해산을 앞둔 산모들이란 까닭모를 우울과 공포로 해서 몹시 불안해한다고 하오.》

《장군님! 그래서 옥성녀 할머니는 지금 자기 집을 봉쇄하달았습니. 가뜩이나 예민해진 산모에게 큰물공포의식이 더해지면 무슨 불상사가 빚어질지 모른다면서말입니다. 오죽하면 구조대조차 문전거절을 당했겠습니까. 그는 지금 물속에 말뚝표식을 해놓고 시간마다 관찰하는데 자기 집도방까지 물이 들어오자면 이들은 더 있어야 한다면서 산모가 해산을 하기전에는 집을 뜨지 않을 잡도리랍니다. 모름지기 그 집터에 대한 미련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림대철동무의 결심은?》

《우선 도산원에서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저녁때까지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산모들과 함께 무조건 도산원으로...》

그이께서는 얼른 그의 말허리를 끊으시었다.

《그 문제만은 심중히 대해야겠소.》

일단 결심만 서면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림대철장령의 군인다운 기질이 생각되시여 그 어떤 불안마저 느끼셨던것이다.

《산모가 극도로 예민해진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도 그렇구 옥성녀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구 우리가 도와줍시다. 헌데 이틀간 여유가 있다는 그의 관찰이 옳기는 합니까?》

《예, 그것만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끝내기 바쁘게 송수화기를 집어드시었다. 평양산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최수민박사를 즉시 보내달라고 이리시었다.

얼마후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키가 흰칠한 최수민이 들어왔다. 그는 한평생 부인파를 전공해오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그 분야의 원로였다.

머리는 희고 길쭉한 얼굴에 살이 없으나 혈색이 좋고 허리가 꼳꼳하여 칠십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전체에서 장년기의 활기가 풍기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마주 나가시여 그의 두손을 반갑게 잡으시었다. 수해지역형편과 옥성녀의 손자며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그이께서는 수고를 또 해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인자하게 말씀하시었다.

《다른 사람을 보낼수도 있겠지만 선생이 가셔야 마음이 놓이는걸 어찌겠습니까.》

사실 그이께서는 삼태자나 산모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그곳이 어디이건 늘 그를 불러 거기에 보내고서야 마음을 놓곤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황송할뿐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아흔살을 바라볼수 있으리만큼 정정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장군님은 덕인줄 압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구 이런 걸음을 할 때마다 저는 한 10년씩 젊어지는듯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보지조차 못한채 어머니배속에서 그대로 저승길을 걸을번했던 고사리순같은 어린 새 생명들이 고고성을 터칠 때면 금시 세상을 하나 더 얻는것같은 기쁨에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이 최수민의 손에 쥐여주신 인술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젊음과 활기의 원동력이라고 장담합니다.》

최수민은 눈동자가 흐릿해진 큰눈을 습벽이며 장군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5

이튿날 리인철장령은 아침일찍부터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고 대기하고있었다. 장군님을 모시고 사해안방어대 시찰을 위해 또 떠나야 했던것이였다.

림대철장령이 책임진 구조대는 새벽현재로 수해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안전지대로 대피시켜놓았다. 옥성녀네 손자며느리를 제외한 7명의 산모들이 도산원에 가서 순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뿐만아니라 구제물자를 실은 중앙기관의 대형자동차들이 련이어 현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형성될 섬마을 설계안도 벌써 심의에 제기되었다. 장군님께서 이 미 옥성녀 할머니네 집만은 총체적인 구도에서 좀 벗어나다 하더라도 본래의 집터에 번듯하게 세워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리인철에게는 이 며칠간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꿈만같이 여겨졌다.

사실상 자연재해는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나 불의에 다 당하고있는 현상으로서 많은 나라들에서 그 엄청난 재난이 휩쓸고 지나가도 피해자들에게 대한 책임적인 국가적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설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생명의 구원은 받는다해도 실천적으로 생활상의 안정대책은 받지 못하고있었다. 지어 정부의 위문전보 한장으로 그 전부를 대치받는 현상도 없지 않은것이였다. 게다가 오랜 력사적타성에 의해 오늘까지도 피해자들 자신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형편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지구상의 그 전례를 무시해버리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히 피해자의 모든것을 책임지는 부모의 립장에 서계시는 것이다.

물론 리인철이 흥분이 점점 더 커지고 생각이 자꾸 깊어지고 있는것은 그것때문만은 아니였다.

그이께서 정예무력의 대집단을 수해지역으로 출동시키자 그 무슨 종말을 두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서방이 갑자기 병어리가 된듯 입을 다물어버린것이였다. 그와 동시에 군사분계선상의 적들도 기를 꺾고 잠잠해졌다.

그는 어제밤에야 서방의 한 통신이 날려보낸 그에 대한 론평자료를 손에 쥐게 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상에 서남쪽의 엄청난 무력증강에 대한 북의 특이한 반응은 군사적 제압을 노린 그 남쪽의 무성하던 기세를 줄지에 서리맞은 풀잎처럼 만들어버렸다.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한 피사가 아닐수 없다. 자기의 생사존망을 외면했을 북이 결코 아닐진대 막강한 군사력을 대결장이 아니라 수해지역으로 출동시킨 그 실제적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가?》

리인철장령은 그 출동이 그렇듯 며칠사이에 세상을 뒤흔들어놓은 거대한 전화종이 울렸다. 그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이께서 급히 부르시는것이였다. 벌써 떠나시려는가? 리인철은 몸가짐을 바로하고나서 바빠 서류가방을 들고 그이의 집무실로 갔다. 커다란 책상우에는 각종 문건과 자료묶음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슨 자료인가를 밑줄을 그어가며 심중하게 읽고계시였다.

《장군님!》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였다. 눈에 피가 지고 밤사이에 퍼그나 수척해지신듯 았았다. 또 한밤을 꼬박 새우실 모양이였다. 자기는 그래도 몇시간 눈을 붙였는데 장군님께서만 밤을 밝혀가며 일을 하신것이였다. 그 일을 조금이나마 대신해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이께서 지금 《고난의 행군》을 단신으로 하고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기습이 저릿해졌다.

《일찍 불려 안됐소. 눈을 좀 붙였댔소?》

《장군님! 저는 꼭 잤습니다.》

《허허… 뭐 꼭 잘 시간이나 어디 있었소? 현대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동무는 오늘 수해지역으로 들어가야겠소.》

《예? 그럼…》

《아니, 일정이 달라진건 없소. 나는 나대로 떠나겠소. 동무와 함께 다니면 도움도 받고 여러모로 편리해서 좋은데 나야 뭐 좀 불편한들 뭐라겠소. 줄지에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을 생각하니 눈을 붙일수가 없었소.》

그는 그만 눈곱이 후끈해져서 얼른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면 밤사이에 저렇듯 수척해지셨겠는가. 그자신 역시 장군님의 사랑속에 안겨 살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다는 알지 못했다.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그 깊이에 그쳐 눈곱이 뜨거워질뿐이였다.

《내가 가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는구만. 그러니 동무가 나를 대신하여 가야겠소. 그들과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나누면서 위로도 해주고 당에서 다 생각하고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고무해주어야겠소. 그리고 최수민선생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오. 새 생명들을 위해 바친 선생의 수고를 조국은 잊지 않을거라고.》

리인철은 쏘아지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이것으로 일은 일단락되였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장군님께 일분일초라도 시간을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좀처럼 일어나게 되지 았았다. 며칠사이에 일어난 마음속변화를 장군님께 토크 털어놓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얼마동안이기는 하겠지만 이제부터 그이의 결을 떠나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욱 미룰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자료를 앞으로 당겨놓으시려다가 말고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시였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것 같구만.》

《장군님!》

《뭐든지 좋으니 어서 말하오.》

《저는 사실 이 며칠간을 꿈속에서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닫는바도 큼니다.》

그는 흥분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한평생 명령에 습관되어 군말을 모르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란 쉽지 았았다. 방으로 들어설 때만 해도 청동의 조각상처럼 엄숙했던 그의 표정에서 철부지나 다름없는 천진스러움마저 보게 되자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을 지으시였다.

《제가 이제 수해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왜그런지 이시각 동에 닿지 않게도 옛말 하나가 자꾸 생각키워집니다.》

하고싶은 말 많고많건만 그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하긴 며칠간 체험의 귀결이기도 했다.

그이께서는 결상을 당겨 책상바투 나앉으시였

다.

《어서 말해보오. 인첼동무같은 무관에게서 옛말을 듣는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요?》

《불쌍한 오누이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었다는 구원의 바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쌍한 오누이가 굶주린 벌을 만나 더는 피할길이 없게 되었는데 갑자기 우뢰와 함께 번개가 일더니 하늘이 찢 갈라지고 그사이에서 난데없이 바줄 하나가 드리워졌다. 오누이는 바줄을 잡고 벌을 피해 하늘로 올랐다. 벌은 자기한테도 바줄을 보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랬더니 인차 바줄이 내려왔다. 했으나 썩은것이여서 그것을 타고 오누이를 따르던 벌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것이였다.

《그처럼 사람에겐 선을 베풀고 악은 징벌했다는 하느님도 불쌍한 오누이를 위해 겨우 바줄 한 오리를 내려보냈을뿐인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모두의 진정한 하느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싶었으나 걱정이 차올라 그러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몸을 뒤로 젖히시며 호방하게 웃으시고나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인첼동무! 우리는 인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쇠바줄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을 통채로라도 내려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고 동무가 수해지역주민들을 찾아 급히 떠나는데 아니겠소.》

리인철은 깊이 공감하며 방을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경, 군용직승기 한대가 수해지역상공으로 들어가고있었다. 리인철장령은 시창가에 앉아 며칠사이에 노호하는 바다처럼 되어버린 수해지역전경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적지 않은 집들이 이미 물에 잠겼거나 떠내려가고있었다.

두대의 수륙양용장갑차와 한척의 해군함정에 웅위된채 사뭇치는 물의 포위속에 든 독립가옥 한채가 가랑잎만 하게 눈에 띄이자 그는 그것이 옥성너네 집임을 대뜸 알아보았다. 둔덕진 집옆 공지에는 만약의 경우를 예견하여 신속기동수단으로 대기시켜놓았다는것이 알리는 직승기 한대가 내려앉아있었다. 리인철은 즉시 무선대화기를 들고 구조대현장지휘부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05번, 내 말이 들리는가?》

즉시 림대철장령의 답전이 날아왔다.

《들린다. 나 07번, 감도 좋다! 나는 지금 옥성너할머니네집에 있다.》

《알았다. 산모가 지금 어떤가?》

《가만! 직접 들어보라!》

몇순간 잠잠하더니 갑자기 무선대화기에서 난데없는 고고성이 터져나왔다.

《응아! 응아! 응아!》

뒤이어 석침한 웨침소리.

《순산입니다.》

걱정에 찬 최수민의 목소리였다. 리인철은 그의 목소리에서 그가 지금껏 몹시도 긴장하고 힘겨운, 자칫하면 산모도 새 생명도 통채로 잃어버렸을수도 있었을, 그래서 그 생명들에 자신의 의술보다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인간사랑을 건 아름찬 전투를 벌려왔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최수민선생,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모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모든것이 정상입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은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다는듯, 세상이 응당 자기의 고고성을 들어야 한다는듯 더욱 다기차게 울어댔다.

《울음소리가 세찬걸 보니 사넨것 같습니다.》

《웁습니다. 사넨니다.》

지난 세월에는 웬간한 홍수에도 수많은 기박너가 생겨나던 이 섬에서 오늘은 100년래의 큰물이 졌지만 단 한명의 기박너는 고사하고 여덟명이나 되는 새 생명이 더 태어난것이였다!

《최수민선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바친 선생의 그 수고를 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최수민은 목이 메이는지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장군님! 누구보다 먼저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푸른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저 고고성이야말로 장군님의 인간사랑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찬가입니다! 그는 최수민을 대신하여 이렇게 송엄하게 마음속으로 그의 뒤말을 이었다. 어찌선지 자꾸만 눈물이 솟구쳐 건딜수가 없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한생을 살아오는 군인이였다. 락동강가의 새초무성한 풀숲에 수많은 전우들을 제손으로 묻으며 피눈물을 삼켜온 로장이기도 했다. 그 나날에 그가 신념으로 새긴 생활철학은 군복과 눈물은 병립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셔오는 과정에 그자신이 눈물이 많아졌을뿐만아니라 장군님의 눈물이야말로 인간사랑의 정화라는것을 심장에 받아안게 되었으며 그것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총대로 지켜드리자고 마음다지기도 했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인간이 태어나 백만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사랑을 갈구하여 하늘에 빌고 신에 기원해왔던가. 그들이 오랜 세월 인간사랑의 성인으로 숭상해온 석가모니나 예수나 모하메드도 그 사랑을 래세에 약속했을뿐 현세에서는 그 빛갈조차 보이지 못했었다.

오직 인민을 위해 온 넋을 깡그리 바치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몸을 그대로 내대시는

열의인, 정치도 군사도 그 근처에 인간사랑이라는 숭고한 리념을 품으신 인민의 총복, 이 땅 어디에 가든 인민이 스스로 한가정, 한식술로 여기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인류의 역사적숙원이었던 그 진정한 인간사랑을 이 땅위에 현실로 활짝 펼쳐놓으시었다.

그이이야말로 력사에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할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다. 그 사랑의 힘을 누가 감히 막을수 있단 말인가. 대포도 원자탄도 결코 막을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가슴그들먹히 차오르자 그는 갑자기 푸른 하늘을 마주한것처럼 눈앞이 환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움을 느꼈다.

륙해공군정에무력의 수해지역으로의 출동! 서방이 의문부를 단 이 출동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사랑으로 대포를 제압해버린 위대한 출동이였다!

두루미섬에서는 구조대의 마지막대오가 철수하고있었다. 패속정이 앞에 서고 그뒤로 두척의 상륙정과 여러척의 해군함정이 따라섰다. 옥성녀일가와 그 증손이의 출생을 지켜온 최수민과 구조대 지휘부성원들이 섬을 떠나고있는것이였다. 어린 새생명을 하늘에서도 웅위하듯 직승기도 따라섰다.

사품치는 물살을 헤가르며 전진하는 대오의 모습은 마치 어느 함대의 열병식을 방불케 했다. 어린 생명을 품에 안은 장엄한 수증행렬이였다.

아담한 보금자리를 삼시에 휩쓸어간 광포한 자연의 홍수속에서도 장군님의 그 위대한 인간사랑이 지금 이 섬마을에 대하처럼 굽이치며 흘러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인간사랑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자 리인철은 저도모르게 번쩍 고개를 들고 흰구름너머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흔들리고 들추어대는 차안에서 췌기밥을 드시며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실 장군님이시였다. 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또 어떤 사랑의 새 력사가 창조될지 아직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것을 긍정하듯 다시금 고고성이 터졌다.

-응아! 응아! 응아!

문득 리인철에게는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그 고고성이 인간사랑의 새 시대를 세상만방에 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인간사랑으로 충만된 **김정일**시대는 시작되였다. 21세기는 인간사랑의 세기, **김정일**세기로 될것이다!

걸잡을길 없는 환희와 걱정이 그대로 눈물이 된듯 로장령의 두볼에 어느덧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직승기는 무한대의 하늘가로 그 고고성을 실어 나르려는듯 두루미섬을 에돌아 수재민들이 있는 신평시 상공으로 기수를 돌리였다. 눈부신 해빛이 직승기의 시창마다에서 번쩍 빛을 뿜었다.

나는 먼길가는 법을 배웠다

김영락

나는 애젊은 로동청년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아도
내 삶의 길 이것만은 안다
잊지 못할 고난의 나날속에서
나는 먼길가는 법을 배웠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사나운 해일은 재해를 몰아오고
원썩들의 봉쇄는 우리 갈길 다 막았건만
《고난의 행군》길에서
나는 래일을 위한 그 길을 얼음을 씹으며
오늘에 가는 법을 배웠다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서
끼니는 번지는적 있어도 번짐이 없이
출근부에 이름을 써넣던 나날
죽어도 기대를 배고 눕는것이
내 청춘 내 간직한 신념
죽어도 장군님 손을 잡고 숨지는것이

내 운명 가야 할 한길임을 나는 알았다
어찌하여 장군님 영상을 품속에 지니고
저 멀리 대양 한끝에 쓰러진 병사들이
시체가 되어서도 이 땅을 찾아왔던가
그들의 넋이 살아숨쉬는 이 땅에
푸르른 삶을 둔 나는 청춘
장군님과 조국은 하나임을 나는 알았다

조국이어! 믿으시라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참된 삶의 이 진리를 간직한 청춘
장군님따라 가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최후의 승리가 영원히 우리의것임을
사무치게 깨달은 이 아들을 믿으시라
아 나는 혁명의 먼길가는 법을 배웠다

(주체88. 6. 23)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림성희

저물어 날이 저물어
이 북변땅을 떠나실 적에
평양으로 가신다고, 댁으로 가신다고
웃으시며 우리 집을 나서신 장군님

밤깊어, 밤이 깊으니
이제는 댁에 들어서시여 편히 쉬실 것이라고
오늘만은 쌓으신 피로 푸실 것이라고
기쁨에, 기쁨에 마음도 즐거운데
아 또다시 밀려드는 그리움!... 그리움!...

서둘러 펜을 듭니다 그리움에 못이겨
평양으로, 평양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침보도는 웬말입니까?
장군님 또다시 철령을 넘어
최전연의 최전선을 찾으셨다니?...

쉬어서 가시라고
내리는 진눈까비 그어서 가시라고
옷자락에 매여달리는 우리들에게
오늘만은 집에 들려 발편잠을 자겠다고
새 감자품종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웃으시며 떠나가신 장군님이 아닙니까

온밤 내리던 진눈까비
그 험한 철령에서
다 맞으셨단 말입니까

온밤 몰아치던 세찬 바람
그 골깊은 계곡에서
다 맞으셨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소원 다 풀어주시고도
이 세상 모든 약속 다 지켜주시고도
그 약속만은 여기신채 평양을 지나가신
아버지장군님

우리 언제면
집으로 들어서시는 아버지를 뵙습니까
우리 언제면
한밤이라도 편히 쉬시는
아버지의 그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원췌가 눈앞에 있는 최전선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전선
그 최전선에 언제나 계시는
아버지장군님

그리움에, 그리움에 젖은 이 편지를
우리는 평양에 부치지 않습니다
철령너머 최전선-!
장군님 언제나 계시는 최전선!
그 최전선으로 부쳐드립니다

(주체88. 7. 27)

봄하늘이야기

박경심

땅에도 눈
산에도 눈
길이란 길마다 쌓이고쌓인
정월의 눈
북방의 눈

기차도 눈덮인 백암령을 못넘어
회의가 열리는 평양으로 가지 못하는
량강도 농업일군들의 가슴가슴에도
애타게 쌓이는 눈
야속한 눈

이젠 오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일군들이 기다리기를 단념한 그 시각
이 세상 단 한분의 어버이만이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계셨으니

아 그분은
백사람이 아니라 단 한명의 전사가 못온다
해도

바다에 길을 내고
땅속에 길을 내고
하늘에 길을 여시는 우리 장군님

조국땅 북변에
두대의 대형러객기를 보내시고
얼마나 반갑게 들으셨던가
평양으로 떠났다는
은빛날개의 그 동음소리 동음소리를

땅에는 겨울 백설의 광야
아득히 눈아래 굽어보며
뜨거운 눈물로 시창을 적시는
그들과 함께 소리없이 목메여 운것은
나였다
인민이었다
흘러온 이 나라 반만년 세월이었다

아 강산은 변하고 겨울이 천번을 다시 온대도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할 밝은 해빛
우리의 추억속엔 천만의 마음속엔
언제나 푸르게 열려있으리
위대한 사랑의 대하가 흐르던 봄하늘
태양우에 인민의 태양이 빛나는
우리 삶의 영원한 봄하늘이!

(주체88. 7. 27)

내 마음의 호수

김진주

별빛고운 밤
그밤마다 그러보았어요
가슴울렁이며 그러보았어요
사랑을 나의 사랑을
아이참 그런데
이 가슴 깊은곳에 호수가 생겼어요
설레이는 호수가 나도 몰래 생겼어요

그 언제 생겼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저 이 호수가엔 이 호수가엔
그대 모습만 짝 차있어요
꽃다발 받아들던 제대군인 그 모습만
뜨겁게 이손 잡던 그 모습만

언제나 그 언제나
호수의 물결은 파도쳤어요
밀보리 푸른 벌에 나란히 앉아도
감자꽃 흔드는 달밤을 걸어도

열정의 파도되어 이 심장을 두드려요
행복으로 행복으로 끝없이 떠밀어요

아, 퍼내여도 퍼내여도
마를줄 몰라요 이 호수는
맑게만 푸르게만 샘솟아요
사랑으로 넘치는 이 물결로
홍단벌을 다 적실래요
백두벌을 다 적실래요

노을빛 행복이 가득찬 호수
푸른 희망 밝은 미래 가꾸는 호수
래일로 더 좋은 래일로
그대와 함께 달음쳐가며
내 한생 설레일 이 마음의 호수
백두벌에 정맺은 내 사랑의 호수

(주체88. 7. 27)

어머니에 대한 찬가

리정옥

이 세상에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많고도 많다. 생명을 주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며 한생토록 보살펴주는 다정하고도 은혜로운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찬가만큼 아름답고 환희에 넘친 노래가 또 어디에 있으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고 생명이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날것이며 영원히 불리워질것이다.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당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 땅의 천만사람들에게 참된 인간의 영원한 삶을 안겨주고 생의 보람을 꽃피워주며 행복을 마련해주는 정다운 어머니품-조선로동당.

당은 어머니... 당은 어머니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당을 가장 친근하고도 정다운 어머니에 비겨서.

하지만 어찌하랴, 내 우리 당을 또다시 어머니라 노래하게 되는것을...

지난 2월 나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들끓는 시대의 벽찬 숨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장강군을 찾았다.

지난해 1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찾아주시였던 장강군.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직접 와보니 장강군은 정말 듣던바 그대로 자랑할만한 군이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기온차계 흐르는 북천강 기슭을 따라 아담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지방산업공장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아 한쪽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읍거리, 북천강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며 군차체의 힘으로 지방의 자재를 리용하여 특색있게 건설한 장강 1호, 2호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들, 그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전기로 난방도 보장하고 밥도 지을수 있게 전기화된 55세대살림집들...

군을 돌아볼수록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나가며 구보로 내달리는 이곳 장강군인민들의 기상과 숨결, 희열과 랑만이 그대로 느껴졌다.

지난날 화전민들의 구슬픈 노래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리던 이 궁벽한 산골에 일어난 이 변혁!

내 나라, 내 조국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뛰고 또 뛰는 충신일군들이 없이는 이런 전변을 기대할수가 없는것이다.

이미 소문을 들은바 있고 또 여기 군을 돌아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던 장강군당책임비서의 얼굴이 상상속에 떠올랐다.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목이 메여 그길로 장강 3호발전소건설장에 나가 등짐으로 벽돌을 나르며 걸싸게 일했다는 당일군, 늘쌍 옷과 신발이 땀과 흙탕물에 얼룩져있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군했다는 그... 아마도 억센 체구에 부리부리한 눈, 한번 마주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눈빛을 가졌으리라.

한시바삐 책임비서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싶은 심정이 솟구쳐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책임비서를 만나면 시대적인 문제가 담긴 좋은 글감을 잡아 쥔것만 같은생각이 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군당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나를 안내하던 군당일군은 나의 속생각을 읽은듯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러다 혹 책임비서동지가 없기라도 하면...》

《할수 없습니다. 사실말이지 같이 일하는 우리들도 책임비서동지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까요.》

물론 한개 군의 사업을 말아안고 바쁜 책임비서를 만나기가 그리 쉬우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더욱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읍입구에 들어서자 군당일군이 저기가 군당청사라고 손들어 가리켜주었다. 그가 가리키는곳을 바라보니 아담한 단층건물과 현대적으로 건설한 3층건물은 군내 주민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이었다. 그리고보면 단층건물이 군당청사였다. 이때까지 보아온 살림집들과 멋지게 건설한 발전소들, 그옆에 서있는 편의봉사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다.

《저게 바로 군당청사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당일군은 나의 의아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했다. 오히려 그렇게 서둘러 달려오다싶이한 내자신이 뜨아해하며 선뜻 정문에 들어서기를 주저하자 웬일이냐는듯 쳐다보는것이였다.

나는 새삼스럽게 군당청사를 훑어보았다. 아무리 봐야 우리 나라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보통 단층건물이였다. 청사내부도 소박하면서 정갈하게 꾸려져있었다.

군당책임비서는 그 일군의 짐작대로 방에 없었다. 농장에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것

이었다.

군당일군은 어찌겠습니까 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앉아 기다릴수도 없고 정말 난처하였다.

《차라리 군을 더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느라면 책임비서동지를 만날수도 있을겁니다.》

《정말 그럴가요?》

기대가 어린 나의 물음에 군당일군은 《그럼요.》하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군당청사를 나서면서 나는 그 일군에게 아까부터 궁금하였던것을 물었다.

《새로 세웠다는 읍건설전망계획에 군당청사도 들어가있는가요?》

군당일군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새로 짓다니요. 군당청사를 말입니까? 어렵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책임비서동지가 어떤 사람이라구요. 안될 말입니다.》

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었다.

도당에서 일하던 책임비서가 군에 내려온지 얼마쯤 지나서였다.

하루는 책임비서가 출근시간에 진거름이 든 바께쓰를 들고 나왔다. 사람들은 책임비서가 어떻게 그런것을 다 들고 다니는가싶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날 청사 한쪽 구석에 표말이 박히고 거름이 쌓이기 시작했다. 책임비서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진거름이 든 바께쓰를 들고 출근하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영문을 알아차리고 너도나도 책임비서를 따라나섰다. 이제는 그것이 출근수표처럼 되어 누구도 빈손으로는 출근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렇게 모든 거름은 농장들에 실려나가 알찬 열매들을 거두었다.

정말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제손으로 꾸려나가려는 이악한 기풍을 지닌 일군만이 할수 있는것이였다.

《우리 책임비서동지는 소박하고 또 소탈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당에서 일하는지 얼마 되지 않는데 책임비서동지에게서 정말 배우는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책임비서동지는 그저 일, 일밖에는 모릅니다. 늘 현장에 나가살다싶이 하지요. 나가서는 사람들과 함께 질통도 지고 김도 매고... 휴식참에는 그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 추고... 이런 당일군을 왜 사람들이 믿고 따르

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걸치레나 요란한 언사를 좋아하지 않는 법이지요. 자기들과 같이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정이 통하는 사람, 자기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노력을 바쳐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군당일군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포근한 눈이불을 쓰고 단잠에 취해있는 대지에 거름을 실어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다.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풍요한 가을, 희망찬 래일을 앞당겨오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어쩐지 군당책임비서도 그들속에 끼여있을것만 같았다.

나는 끝없이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었다.

비록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군당책임비서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했다. 비단 그의 외모뿐아니라 마음속 깊은곳에 자리잡은 속생각까지도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선 자랑스런 창조물들을 보듯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은 비록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가장 뜨겁고 신성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 어머니앞에서 늘 그 어떤 거짓도 가식도 모르며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든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깨끗하고도 소박한 진정을 담아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비록 화려하고 현란한 수식사는 없어도...

그렇다. 어머니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법이다.

모든것이 흥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살아갈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에서 울리는 즐거운 노래소리,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곧 어머니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인것이다.

그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이 어머니 당에 드리는 가장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찬가로 될것이니.

그 위대한 찬가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울려 퍼질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자기의 피와 땀을 바치고 진정어린 노력을 바치며 뛰고 또 뛰는 우리 인민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복무하게 하는 어머니 우리 당이 있고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이 있는 한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 그 위용 펼치며 반드시 솟아오를것이다.

우리 큰집 트랙 외3편

박근원

이제는 오랜 세월 정든
당중앙의 이 트랙 거니느라니
조용히 가슴에 차오르는
아름다운 추억

나에게도 있었다
어릴적 걸음마 떼고 뛰놀던
산간마을의 작은집 트랙

봄이면
꽃향기 함뿍 날리며
쌍쌍 벌나비들 반겨맞던
소박한 내 요람의 트랙

그땐 미처 몰랐더라
내 꿈을 자래운
그 작은집 트랙 지켜주는
큰집 트랙이 또 있는줄

내 지금 걷고걸는
당중앙의 이 트랙
되새길수록 뜨거웁으로
가슴후터워라

만경대고향집 트랙의 목란꽃
오산덕고향집 트랙의 백살구꽃
백두고향집 트랙의 서리꽃
당중앙 이 트랙에 모두 피어나
온 강산에 청신한 향기 풍기여라

나의 옛집 꽃향기는
봄 한계절에만 풍기며
작은 내 집 트랙을 못넘어섰건만
3대장군 안아오신 꽃향기는
당중앙의 큰집 트랙을 넘어
사계절 온 나라 집집으로 퍼져가나니

사랑의 꽃향기 혁명의 꽃향기
산간마을의 작은 나의 옛집 트랙
이 나라 모든 트랙을
그 언제나 포근히도 싸안아주고있구나

아, 내 안겨살며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우리 큰집 트랙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인민의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 계시는 당중앙 트랙이여

출근길

10분이면 가닿는 나의 출근길
어제도 오늘도 걷고 또 걷는 길이건만
언제나 상쾌한 출근길
마음은 즐겁기만 하여라

두둥실 솟는 붉은 해 안고
꽃향기 그윽한 포장길우에
출근의 자욱자욱 엷을 때면
내 이 세상의 행복 독차지 한듯싶어라

푸르른 록음속의 번듯한 청사
창밝은 사무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신문을 드니
우리 장군님께서

풍랑 사나운 바다길을 헤쳐가시여라
그제는 안개서린 강원땅
논두렁길 밟으시고
어제 새벽엔 최전연고지에 오르시더니...

아, 우리 장군님
출근시간은 언제이며
출근길은 어디인가

인민에겐
제일 밝고 좋은 출근길 주시고
자신께선
깊은 밤 제일 험한 출근길 걸으시니

쉬시는 시간 따로 없고
때식하시는곳 따로 없으신 장군님

그래서 《쪽잠》, 《췌기밥》이란 말
이 나라에 생겼거나

내 날마다
더 일찍 일어나 험한 길 걸어
인민이 걷는 화려한 출근길우에
우리 장군님을 모실수만 있다면...
아, 그 마음 더해지는 아침이여

퇴근길

안해와 아이들의 마중 받으며
정다운 집에 들어서는 저녁
텔레비존에서 울리는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
심장의 흥벽 세차게 치누나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이 시각
머나먼 북변땅을 찾아
비바람 몰아치는 령길에 계시누나
아, 우리에겐

따스한 집 기다리는 퇴근길이 있어도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퇴근길이 없으시구나

비오고 눈이 와도
낮에도 밤에도
끝없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의 그 길이
인민의 행복한 퇴근길만 펼쳐는구나

당중앙지붕의 붉은기

어디서나 보이는 붉은기
바라보면 언제나 숨엄해지는
당중앙지붕의 당기

광명성 탄생을 축하하여
온 강산을 물들이며
백두고향집에 펄펄 나뭇기던 그날처럼
붉은기여 너는 오늘도
장군님의 높은 뜻 안고
푸르른 하늘가에 세차게 날리는구나

우리 장군님 사랑속에 퍼덕이기에
우리 장군님 열화로 붉게 타기에
우리 장군님 예지로 빛나기에
붉은기여
날리는 네 모습 그리도 장엄하리

아, 붉은기여 너를 바라보면
눈보라 폭풍치는 백두산에 올라선듯싶고
너를 가슴에 안으면
네 기폭 심장에 붉게도 새겨져
내 언제나 장군님 곁에 사노라

붉은기여 너는
백두에서 솟아오른 태양의 빛발을
온 나라에 뿌리며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그 이름 떨칠
내 조국의 기상을 안았나니

붉은기여 너는
붉은것 아닌 온갖 잡색과 원썬들에겐
죽음의 철추를 내리고
정의와 인민에겐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나니

아, 당중앙지붕에 날리는 붉은기여
너는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
조선의 운명!

그래서 우리 살아도 죽어도 너를 못놓으며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대를 이어
영원토록 너를 심장에 안고 살리라!

동 지

논석이

연구소들을 깊이 료해하는 과정에 성묵은 일부 사람들속에서 학위학직을 가지기 위한 사업이 리기주의, 공명주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의때마다 일은 안하고 논문만 쓰는 《공명주의자》들은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흘러나오고 바쁜데 언제 논문을 쓰고 앉아있겠는가 하는 말이 꺼리낌없이 튀어나왔다. 그 말들을 주의깊이 들어온 성묵은 생각이 깊어졌다.

(근 30년 역사를 가진 이곳 과학연구집단에 학사 몇명밖에 없는것이 바로 그 후과가 아닌가. 학위학직은 과학연구사업업적을 말해주는 징표가 아닌가. 연구사업이 실천이자 리론이고 리론이자 실천으로 될 때라야 리론과학과 실용과학이 배합되는것이 아닌가.)

성묵은 학위학직을 받기 위한 노력을 리기주의, 공명주의로 보는 견해가 아주 잘못된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달성한 연구성과로 보아 당장 논문을 쓸수 있는 연구사들을 장악해보았다. 20여명이나 되었다. 일군들이 일을 잘못해서 20여명이나 시간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성묵은 놓쳐버린 그 시간을 되돌려세울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연구론문을 씌우는 일을 더는 지체시킬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성묵은 20여명의 연구사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보고 그들에게 연구론문을 집필할것을 권고하였다.

모두가 당비서의 권고를 달갑게 받아들였으나 최금석이라는 연구사만은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 리유인즉 이 바쁜 때에 그걸 쓰고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

《발명가 에디슨의 연구실기를 읽었습니까? 그는 일생동안 한주일에 100시간이상 실험을 하면서 백열전등, 알카리축전지 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천수백건의 발명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연구사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 한숨소리를 들으니 시간을 못내는 문제가 아니였다. 성묵은 말머리를 돌리였다.

《자기는 사람들앞에 나설수 없는 존재여서 학위론문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정통을 찢리운듯 최금석은 깜짝 놀라며 당비서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고있는가

박승록

하는 눈길이었다. 며칠전에 많은 연구사들이 연구성과도 많고 학술적자질도 높은 최동무가 먼저 학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지명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던것이다.

《사람들앞에 나설수 없다는건 무슨 소리입니까?》

성묵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최금석은 얼굴을 숙인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은 깨끗치 못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처야 맡겨진 일이나 잘하면 뻔치 학위논문까지야 뉘. 기쁨이 백가지인들 한가지 불행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백가지 기쁨이라, 아니 최동무에겐 한가지 기쁨도 없습니다. 가정환경으로 해서 생긴 의심만이 있을뿐입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성묵은 믿음 그자체가 힘있는 교양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말을 이었다.

《늘쌍 실험실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 대우나 개선해선 뉘하겠는가고 생각했지요. 과학론문을 쓰지 않는것이 더 편안했을테니까. 그게 어디 자기만을 위한 일입니까.》

최금석연구사는 머뭇거리며 말이 없었다.

《나도 논문을 당장 쓰라고 권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제를 하나 연구해놓고 논문을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교양에 무관심한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혼자 충성하겠다고 아무리 애써도 가정에서 말쑥군이 나오면 과학연구도 잘할수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니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나도 있는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성묵은 최금석연구사를 보내고 혼자 곰곰히 생각하였다.

(가정환경이란 말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주위라는 말이다. 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정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면 그들은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정말 그들이 제일 바라는것은 당의 믿음이 아닌가.)

성묵은 연구과제의 분담으로부터 그 수행과정과 도입과정 그리고 평가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적신임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던 주체70(1981)년 11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농촌경리부문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중요한 자재를 연구해야 하겠다는 과업을 주시였다.

성묵은 책임일군들과 토론하고 이 연구과제를 최금석연구사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새 연구과제를 받아안은 최금석연구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전으로 실험실적인 연구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침식을 잇고 고심분투하였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한결음두걸음 전진하였다. 그가 드디어 성공의 문턱에 다달았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제기되었다.

최금석연구사의 둘째아들문제로 법기관에서 당비서를 찾아왔다.

《최금석동무의 아들이 지금껏 로동단련을 하었는데 어디에 배치하는것이 좋겠는지 비서동무의 의견을 받으러 왔습니다.》

《나오게 되었던 말이지요. 그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걸 알면 최금석동무가 무척 기뻐할겁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지요. 아버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범하지 않도록 다 자극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교양받고 나오는 이상 우리가 말아 잘 키우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압니까?》

성목은 성공을 눈앞에 둔 연구사업에 대하여, 그 인민경제적가치에 대하여 자상히 설명해주었다.

법기관에서 온 일군은 생각되는바가 있는지 한참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다시 토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목은 손님을 배려하려고 정문까지 따라나서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길로 성목은 차에 올랐다. 최금석연구사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도시번두리로 나갔다. 인차 집을 찾지 못하고 이사람저사람에게 물어서야 겨우 집을 찾아내었다. 문을 두드렸으나 주인의 대답이 없었다.

성목이가 옆집에 물어보려고 돌아서는데 어린이의 쟁쟁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나왔다.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 외가집에 갔어요.》 애너석이 집 문앞에 버티고서서 뻥히 올려다 보는 것이었다.

《난 너희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 어머니가 없으면 집안구경이나 좀 하고 가겠다.》

《우리 아버지 책임자나요?》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선 애가 다시 물었다.

《책임자? 이를테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야 집엘 왔으니 면목이 없구나.》

성목은 밖에 섰채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가구들도 제자리에 놓이고 깨끗하게 꾸려져있었다.

성목은 책상우 책꽂이에서 책 한권을 끄집어들었다. 그것은 책이 아니라 두툼한 자료수첩이었다.

수첩에는 각종 연구자료, 잡지와 외국기술문헌에서 따낸 설계자료 등이 적혀있었다. 그런 책이 무려 58권이나 되었다.

《집에 습기가 차지 않니?》

성목은 머루알같은 눈알을 굴리며 빠르게 올라다보는 애에게 물었다.

《불이 잘 들이지 않겠구나?》

《겨울에 방안은 더워요.》

《됐다. 그럼 난 가겠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네.》

《잘있어라.》

성목은 애의 머리를 쓸어주고나서 돌아섰다.

그때로부터 달포가 지난 어느날 성목은 현장에 나갔다. 마침 새로 제작한 기계의 시험운전을 하려는 때였다.

스위치를 넣자 기계는 서서히 돌아갔다.

연구사들속에서 누가 웅쳤다.

《성공, 성공이다!》

다른 연구사가 그것을 확신시키려는듯 제품의 한조각을 잘라들고와서 두손에 힘을 주고 찢어보았다. 이제는 다량생산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날 최금석연구사는 성목에게 지금 수지가공 연구실에서 말아하는 **김일성**경기장(당시 모란봉경기장)에 새로 놓을 의자를 강화수지재료와 함께 내충격성수지재료를 함께 연구하여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성목은 눈이 번쩍 뜨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있는터였다. 내충격성수지재료가 어떤가 하는것은 토론해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각해낸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가. 최금석연구사는 자기가 맡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긴급과제로 떨어진 경기장의 의자해결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지 않았는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모란봉경기장을 세계1등급의 경기장으로 개축하고 그 이름을 **김일성**경기장으로 부르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이고 결심였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스스로 받아안고 집단과 함께 숨쉬며 사는 최금석연구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것이 성목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었다.

(사람은 벅찬 투쟁속에 뛰어들어 자기도 한몫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것이 아닌가!)

성목은 이런 생각끝에 저녁에 진행되는 수지가공 연구실회의에 최금석연구사를 참석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최금석연구사의 생각은 좀 달랐다.

《비서동지, 제가 생각해본 의자의 로화방지문제, 형태제작문제, 제품생산문제 등을 수지가공 연구실장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저야 이번에 연구한 제품의 다량생산을 밀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동무가 나보다 더 깊이 생각했구만.》

성목은 연구사의 제의를 지지해주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연구실 호상간, 연구사 호상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지난날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것 같았다.

그리하여 수지가공연구실에서는 강화수지의자와 내충격성수지의자 두종을 연구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두종의 시제품을 보아 주시고 그중에서 내충격성수지의자를 선정해주시면서 **김일성**경기장관람석에 놓을 의자를 새로 연구제작하고 그 생산을 맡아나선 일군들과 과학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훌륭한 일을 해놓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충실성과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감사전달모임에서는 석달안으로 수만개의 수지의자를 생산해낼 결의가 다져지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였다.

다음날 수지의자생산분과가 조직되어 경기장건설지휘부에 배속되였다.

그런데 실험생산에서 그렇게 잘 나오던 내충격성수지의자가 다량생산에 들어가면서 계속 오작이 나기 시작하였다. 현장에 나간 과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으나 좀처럼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성목은 더는 날자를 잃어버릴수가 없어 분초를 쫓아여쓰고있는 최금석연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부탁하였다.

최금석연구사가 현장에 나간 그날로 오작원인이 밝혀졌다. 내충격성수지의자 생산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새것이 아니라 오래전의것을 잘못 배합한데서 생긴 오작이었다.

성목은 자신의 거친 사업후과로 해서 귀중한 며칠을 잃어버린것이 분하였다. 그는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일군들과 토의하여 의자생산에 맡은 공장들의 원료보장으로부터 생산품검사에 이르기까지 당원들에게 개별분공을 조직하였다.

성목은 2월에 들어서면서 최금석연구사와 수지가공연구실 동무들과 함께 경기장에 나가 의사설치정형을 알아보았다. 연구사들도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서 크나큰 공지와 보람을 느꼈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경기장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새로 설치한 내충격성수지의자를 보시고 아주 좋다고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이런 일이 있는 얼마후인 주체71(1982)년 4월 25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창건절을 맞는 인민군구분대로 나가시던 길에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제1작업반에 들리시여 최금석동무가 새롭게 연구하여 도입한 실패를 돌아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더없는 만복에 무한히 고무된 최금석연구사는 또다시 대형기계설계에 달라붙었다. 그의 연구사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것은 자기실생원들에게 늘 일감을 주고있는것이였다. 성목이 료해한데 의하면 일부

실장들과 연구사들은 자기가 연구사업에 몸을 잡그기 시작하면 조수들과 실험공들에게 일감을 바로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금석연구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일감을 준후에는 반드시 돌봐주고 잘못되었이 있으면 수정시켜주며 그 일이 끝나면 총화하고 새 과업을 주곤하였다.

성목은 이것을 연구소들에 일반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집단앞에 허심하고 대중의 지혜를 귀중히 여기는것으로 하여 그의 연구과제는 신속히 수행되곤하였다.

최금석연구사는 대형기계의 설계도 며칠사이에 완성하였다.

이 기계가 과학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전시회에 나가자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목은 당위원회를 열고 최금석연구사의 연구성과에 새기술혁신봉화상을 내신할데 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그에게 학위논문준비를 권고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청천벽력파도 같이 최금석연구사의 둘째아들이 재범하였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안전기관으로 찾아가는 성목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기가 법기관앞에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아름찬 연구과제를 받아안고 거기에 몰두하고있는 최금석연구사를 대신하여 둘째아들에게 자기가 관심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자기는 그 아들이 어느 공장에 배치되어 일한다는것을 알고도 그저 이제는 별일 없으려니 하고 방임상태에 있지 않았는가.

성목은 해당 안전일군과 마주앉아 먼저 자기 잘못을 심심히 반성하였다.

《이 씻을수 없는 과오는 내가 범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식을 바로잡아줄수 있게 아버지에게 시간조차 주지 못한것도 나입니다.》

성목은 최금석연구사가 1년나마 집을 떠나있지 않으면 안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당비서의 말을 유심히 듣고있던 안전일군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번엔 절도사건으로 단속되었는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이상 억류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할 때까지말입니다.》

성목은 그게 좋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왔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서 최금석연구사를 불러 의논하였다.

《전 그놈때문에 얼굴을 들고다닐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사업에 몰두해서인지 최금석연구사의 눈등은 부석부석 부어있었다.

《그놈이 사람구실 못할바엔 버리는셈치고 안전기관에서 하자는대로 내맡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아니요. 래일 찾아가서 그놈이 제 잘못을 숨김없이 다 고백하도록 말해보오. 아버지구실도 해야 하지 않겠소.》

당비서가 가슴이 답답해서 몇번 큰숨을 내쉬자 최금석연구사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끼쳐서 죄송

합니다.》

《그런 말 마오. 이번엔 내 죄가 더 크오.》

사흘후 저녁 최금석연구사가 당비서를 찾아왔다.

《비서동지, 그자식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최동문 지금 제정신이요?》

《그놈이 그냥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뻔치는데 아버지라고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왔으니 비서동진 모르는척 해주십시오.》

성목은 오죽 안타까우면 저렇게 말하랴 하고 생각하였다. 설마 그렇게야 말하였겠는가.

성목은 최금석연구사를 돌려보내고 안전기관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그건 아버지가 속이 타서 한 말이니 그렇게 리해해줘야 하겠습니다.》

성목은 송수화기를 놓고 최금석연구사의 말을 놓고 생각해보았다. 어찌보면 천진한것 같고 어찌보면 암둔한것 같기도 하였다.

(자식 하나 바로세울 힘이 그에게 없단 말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성목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그런 힘이 최금석연구사에게 있다고 믿고싶었다. 아니 벌써 그런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과학탐구 하나밖에 모르는 자신의 생활로써 잘못된 혈육들이 지은 죄를 씻고있지 않는가. 그는 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는것인가. 자기가 한생 공들여 쌓는 탑을 못난 혈육들이 무너뜨린다고 그 분골이를 하고있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가정환경으로 하여 생긴 의심이 아직 그에게서 가셔지지 않고있다는것이 아닌가.

다음날 성목은 다시 안전기관에 찾아가 자기의 이런 심정을 내비치었다. 지금 최금석연구사의 정신은 이번엔 용서받을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될대로 되라고 절망하는 상태라는것을 이야기하고 공로가 있는 과학자를 구원하자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의 말에 감복한 담당안전일군은 최금석연구사의 아들이 오늘에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남의 자전거를 타보는척하다가 달아나고도 지금까지 호기심에서 한번 타보느라고 그랬다고 말한것은 법적처리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것이 두려워 우겨왔다는것이였다.

성목은 안전일군으로부터 죄를 지었다해도 사람당, 건당으로 볼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다시 토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재범인것으로 하여 법처리는 백번 있을수 있는 일이었다. 그때문에 최금석연구사는 자기에게 어떤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그 어떤 불평이 없이 스스로 받아안을 그런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어진 가슴속 얼음이야 언제 녹아볼 날이 있을것인가.

이러한 때에 최금석연구사는 새기술혁신봉화상과 학사의 학위, 새 주택입사증을 편이어 받게 되고 아들도 용서를 받고 새집으로 돌아왔다.

최금석연구사는 당위원회에 찾아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줄대같은 눈물만 쏟았다. 그러는 최금석연구사를 바라보고있던 성목도 수건을 꺼내들고 눈굽을 훔치였다. 최금석연구사의 얼어들었던 가슴에서 눈석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금석동무의 연구성과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가 일생을 바쳐 토박토박 수집정리한 자료수첩과 함께 연구성과를 인민대학습당에 전시하고 과학기술일군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그에게 이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던것이다.

한 과학자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많은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원손잡이》

사나운 눈보라가 울부짖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였다.

성목이가 재능있는 한 귀국자연연구사를 만나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앉아있는데 부비서가 진눈까비를 뒤집어쓴채 방안으로 들어섰다.

한 연구소에 나가 강연회에 출연하고 돌아온 그는 거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나서 귀국자마석준연구사가 자기 손목을 꼭 잡고 간절한 청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집에 초청하더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성목은 방금전에 다른 귀국자연연구사를 만나본 뒤라 그 무슨 연고인듯싶어 서둘러 물었다.

《그 동무의 생활에서 심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망설이고있는중입니다.》

《심중한 문제라니? 그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말입니까?》

《어찌 그뿐입니까. 금요로동에 나가서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오. 초청받은 시간이 늦겠습니다.》

성목은 부비서의 말을 중단시키고 어서 가보라고 일렀다.

《가고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청할 때에야 무슨 사연이 있는게 분명합니다. 부비서동무가 리유없이 거절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당비서가 그러면 안된다고 설복시켰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연구소로 가서 같이 가겠습니다.》

성목은 부비서가 나간후에 귀국자연연구사들과의 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문제가 있는 동무라고 하면서도 가정방문 한 번 하지 않았다는것이 스쳐버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누가 붙인 별명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부 귀국자연구사들을 《원손잡이》라고 하는데는 참을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원손잡이》란 이름은 사랑스러운 의미가 아닌것 같았다. 분명 거기에는 원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쳐줄수 없듯이 그들을 교양할수 없다는 그릇된 견해가 깔려있었다.

그들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뜻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재일귀국자들은 거의 다 고향을 남반부에 두고있기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한몫 할수 있는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성묵은 귀국자연구사들을 대담하게 믿고 옹계 교양하여 그들모두를 혁명의 역군으로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었다.

그가 당비서사업을 시작하면서 첫걸음에 부딪친 문제의 하나가 귀국자연구사들과의 사업이었다.

마석준연구사가 어느날 금요일동에 나가 휴식시간에 우리 나라 력사문제에서 잘못된 견해를 말하면서 했다는 발언들을 종합추리해보면 우리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함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욕설이나 해주고 멀리해서는 해결을 보지 못할것이 아닌가.

성묵은 다음날 마석준연구사의 집에 갔다온 부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였다. 《가보니 마석준동무의 어머니 첫뉘제였습니다.》

《그것 보오. 가길 잘하지 않았소.》

《자기 어머니 장례식날에 수고가 많았다고 불러준것은 고마운 일인데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하는 말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자기 신세타령이라 할가...》

《그건 무슨 소리요?》

성묵은 어떤 얘기를 하였겠는가 하는것이 짐작이 갔으나 마석준연구사를 깊이 알기 위해 물었다.

부비서는 어제밤 마석준연구사의 집장면을 방불히 그려주는것이였다. 집에 들어서니 다른 연구소에 있는 귀국자 권명수가 먼저 와있었다. 제를 지내고 세사람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해서 두사람은 취기가 오르자 자기들의 신세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비서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여들자 권명수가 서분하다고 마석준에게로 얼굴을 돌리었다.

《하긴 남의 심정을 알락이 없지.》

《왜 몰라. 알아도 잘 알지.》

부비서가 장담해나섰다.

권명수는 조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나마 조선소에서 선체설계를 하였다. 한번은 어느 한 배에 처음 설계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관의 중량차이가 있다보니 선체가 떨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누구에게나 죄

를 따져야 하겠는데 그 대상인즉 실체를 책임졌던 기사인데 그는 권명수와 함께 귀국한 사람이였다.

《내 죄란 이거야 이거...》

마석준이 제입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부비서가 두사람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상우에 놓았다.

《모두 취했어. 이젠 그만두자구.》

부비서는 어제밤에 있었던 일을 여기까지 되살리고나서 두 동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하였다.

《 좋게 보면 신세타령이고 나쁘게 보면 불만불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고 납득시켜주어야 할걸 그랬습니다.》

성묵은 부비서의 견해에 공감이 가지 않아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을 걸머지였다.

늘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자면 낚시를 던져 봐야 한다. 사람의 깊은 속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제기된 자료만 가지고 조금하게 속단하는 부비서의 작풍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도 귀국자연구사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야 하였다.

성묵은 여러날 이 사업에 힘을 들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마석준연구사는 일본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다가 총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르조아사회학을 배워 무얼하겠는가 생각하고 규슈대학 농학부로 전학하여 그 학교를 졸업한후 총련이 조직한 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일하다가 주체54(1965)년에 귀국한 동무였다.

마석준연구사는 우리 나라 맛내기공업을 창설하는데 기여하였을뿐아니라 련이어 옥당연구집단에 속하여 고정화효소연구에 성공함으로써 옥당연구도입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 동무였다.

성묵은 마석준연구사가 발언했다는 그 모호한 내용들을 그의 생활과 결부하여 분석해보았다. 교양부족이였다. 일반적인 교양만 하고 구체적인 교양을 하지 못한 후과였다.

어느날 성묵은 바쁜 일이 있어 좀 늦게까지 일하다가 빠스정류소에 나갔다.

날씨는 대단히 참데 빠스는 오지 않았다. 한동안 거기서 서성거리던 성묵은 문득 조금전에 연구소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던 일이 생각났다. 마석준연구사가 경비를 서고있지 않았는가.

성묵은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얼마 멀지 않은곳에 있는 그리로 찾아갔다.

그는 밤이 깊어서 빠스가 오지 않아 경비실에서 자고가려고 왔다고 하면서 경비를 교대한 마석준연구사는 당비서를 굳이 아래목에 누우라고 권하는것이였다. 성묵은 하는수 없이 아래목에 누웠다.

성묵은 어린 시절의 바다가고향집 아래목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소꿉시절의 한 동무가 원손잡이재간동이었다고 하면서 원손잡이들은 하나같이 재간이 좋은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고나서 그는 마석준연구사에

게 물었다.

《마동무도 왼손잡이라지?》

《...》

마석준연구사는 어쨌든 웃을뿐 대답이 없었다.

《왜 틀렸소?》

《그건 제 별명입니다. 아직 이 머리가 비다보니 분별없이 한 말들이 그만...》

《그래,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잡이>란 별명이 붙었던 말이지?》

《예.》

마석준연구사는 새로 온 당비서에게 지난날 자기가 비판받은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성묵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마석준연구사의 말이 끝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동무는 오랜 기간 일본학교에서 공부하다나니 그럴수 있었겠다는것이 리해됩니다.》

성묵은 이렇게 서두를 떼고 동무가 한 발언은 오래동안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면서 받은 낯고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성묵은 귀국자들에 대한 그 무슨 차별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레를 들어 설명해주었다.

《얼마나 많은 귀국자들이 나라의 큰 간부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자라났는가! 그러니 마동무도 당정책에 대한 학습도 잘하고 자신을 수양해서 꼭 조국의 이름을 떨치는 과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숨소리도 없이 당비서의 말을 귀담아 듣고있던 마석준연구사는 일어나 앉았다.

《저는 오늘처럼 속 시원한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털어놓고 말해주면 기쁘겠습니다.》

《약속하오. 그렇게 하기로요.》

동무는 맛내기생산을 공업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뿐아니라 옥당을 연구하여 당에 얼마나 큰 기쁨을 드렸습니까.》

《거야 우리 집단이...》

《겸손하기까지야. 그런데 당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린 어려서 익지 않은 강냉이대를 잘라 단물을 빨거나 잘해서야 부모들이 울안에 심은 몇대의 사랑수수대를 빨며 당분을 보충했지. 그런데 이제는 옥당을 생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자 마동무는 신이 나서 옥당을 만드는 공정을 설명하면서 원탁의 물병에서 옥당을 탄 물을 고뿌에 부어 마셔보라고 권하였다.

성묵은 그것을 받아들고 마시면서 말을 이었다.

《정말 사랑못지 않습니다. 나는 미생물부분을 전혀 모르는데 마동무는 어떻게 되어 이 부분을 전공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과학이 미세부분으로 쏠리게 될것입니다.

미생물학부분에 거대한 잠재적힘이 있으니까요.》

성묵은 고뿌에 남은 단물을 마저 들이키고나서 누우라고 마석준연구사의 손을 끌어당겼다.

성묵은 마석준연구사가 누웠을 때 다시 말을 이었다.

《귀국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큼니다.

마동무는 귀국해서 벌써 옥당과 맛내기연구에서 큰 성과를 올렸는데 앞으로 더 훌륭한 발명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석준연구사는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불행속에서 살아온 설움에 찬 지난날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다. 성묵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중국의 녀류작가 장광자가 쓴 <압록강가에서>를 읽어보았습니까?》

마석준연구사는 읽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그 작가는 당시 쏘련에서 공부하던 여러 나라 류학생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 일제식민지하에서 당하는 조선인민의 구슬픈 운명에 대하여 썼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나면 누구나 우리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를 목숨으로 지키며 무궁토록 번영하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국땅생활을 해보아야 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저는 조국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들먹이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고향은 남에 있지만 저는 북으로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왼손잡이>가 되다니.》

약속이나 한듯이 그들은 함께 유쾌히 웃었다.

《하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이 왼손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지, 오른손잡이구말구.》

둘은 다시 통쾌하게 웃었다.

그후 마석준연구사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의 성장을 보면서 성묵은 사람의 모습은 마음속에 묻혀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사람의 속을 모르면 의심이 가고 알고보면 믿음이 가는법이 아닌가.

며칠후 성묵은 마석준연구사를 다시 만나서 장연구실을 다시 내울 임무를 맡기고 연구해보라고 하였다. 성묵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김치연구실과 장연구실을 비롯한 일부 연구실들을 없애버린 사실을 알고 잘못된 이 일을 바로잡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연구사들중에는 김치와 장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마석준연구사는 꽤히 접수하고 준비사업에 발벗고나섰다.

성묵은 마석준연구사와 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경향만을 가지고 원새끼만 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뒤가 깨닫지 못하다는 귀국자

권명수연구사를 료해하기 시작하였다. 부비서의 말에 의하면 권명수연구사는 귀국하여 김책공업대학 (현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었다가 45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있다는것이였다. 그는 오작설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다가 기관책임자와 언쟁을 하고 사직한후에 이곳 연구소로 옮겨왔은 사람인데 이따금씩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추태를 부리곤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지식수준은 높고 몇개의 외국어까지 소유한 사람이지만 연구성과는 별로 없다는것이였다.

성묵은 권명수연구사가 과학기술수준이 높다는 데 력점을 찍고 그에게 긴급하게 제기된 연구과제부터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권명수연구사를 책임자로 하는 7명의 성원이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소재연구사업에 착수하게 되였다. 성묵은 매주 두세번씩 연구소에 나가 권명수연구사를 만나 연구사업진척정형을 알아보곤하였다. 한번은 성묵이가 40여일간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권명수연구사의 방에 들렀는데 그간 연구사업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다가 책임자 자신은 우물쭈물하며 뒤머리만 문지르곤하였다.

「연구사업은 꼭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보니 곡절은 불가피하게 있거나마련이지요.」

《곡절이라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계획대로 밀고나가지 못하다나니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권동무가 책임자를 못하겠다고 했소?》

《...》

《왜 대답이 없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알만 하오. 그러니 지금까지 문헌조사로부터 한단계 한단계 밝아올라가던 권동무는 손을 털고 앉아 <네가 한번 해보라>는 식이겠소? 연구과제가 녹아나는데도말지요.》

《비서동지, 속에 불만은 있었지만 그렇게 손뎌를 놓고있지는 않았습시다.》

권명수연구사는 안타까운듯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물론 그랬겠지. 난 그걸 믿소.》

성묵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전후사연을 알아보았다.

《비서동지가 출장가실 때 각별한 당부도 있고 해서 관심해오다가 과학행정지도일군들이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다고 제기하길래 책임자를 바꾸었습니다.》

《그간 사업을 이야기할 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소?》

《그만 놓쳤습시다.》

《놓치다니... 일도 사람도 다 놓칠번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읍시다. 우린 권명수연구사를 실

천을 통해서 바른길에 돌려세워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다는것을 그 자신이 생활속에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성묵은 이런 취지를 과학행정일군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책임자를 바꾼 잘못된 처사를 수습하였다.

처음 권명수연구사에게서 나타난것은 스스로 술을 끊은것이다. 그는 피치 못할 자리에 가앉았다가도 술잔을 입에 대지 않은채 서둘러 돌아가곤하였다. 말은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문만은 아니였다. 그는 타락한 생활을 술로 위로해온 자신을 발견하였던것이다. 어릴 때 일본에서 보아온 폐풍이 자기의 뱃속에서 부활되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몸서리쳐졌던것이다.

권명수연구사는 술을 끊은지 3년만에 새로운 금속도금법연구사업에서 성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이곳 연구집단에서 팽간압연박판에 새로운 금속도금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이 공정을 빠른 기간에 꾸릴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 다음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가르치심에 따라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실험설비를 가지고 공장으로 나갔다.

연구사들과 공장 기술자, 노동자들이 각기 자기 맡은 과제를 안고 숨결도 걸음도 맞추었다.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나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새로운 금속도금판 생산공정을 계획된 날자보다 3일 앞당겨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10돛이 되는 날에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금속도금한 철판이 쏟아져나오자 용접문제를 제기되었다.

이러한 때 권명수연구사는 이미 다른 동무가 연구해놓은 새로운 용접을 여기에 적용할것을 제기하고 그 력량을 현장에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도입사업은 짧은 기간에 완전한 결속을 보게 되었다.

연구사업과 도입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권명수연구사는 학사학위를 받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참관단성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마석준연구사는 장연구실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권명수연구사가 외국에서 돌아온 날 성묵은 일부러 비행장에 마중나갔다.

성묵은 권명수연구사를 자기 차에 태우고 들어오면서 외국방문인상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있다가 심중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권동무, 동무는 정말 병신이 아니요?》

권명수연구사는 얼떨떨해서 눈만 습벅일뿐 반문하지도 못하였다.

《왜 한생 홀아비란 놀림을 받는가말이요. 이제 동무가 집에 들어가면 반겨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소?》

그때에야 권명수연구사는 당비서가 비행장에까지 나온 사연과 그 말뜻을 알아차렸으나 역시 대답을 못하였다.

성목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수세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그 대답을 당장 받아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차창을 열고 바람소리에 귀기울이고있었다.

그날로부터 닷새만에 권명수연구사는 20년이상 끌어오던 결혼문제를 성사시켜 좋은 여성과 결혼하였다.

권명수연구사는 평양산원에서 첫 아들을 받아안아온 날 그달음으로 당비서를 찾아와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말하였다.

《비서동지, 45살에 첫자식을 보았습니다. 일복에도 편지를 보내었는데 늙은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큰 경사로 여길것입니다.》

성목이도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생남을 축하합니다. 동시에 내 그때에 한 무례한 행동도 용서해주시요.》

《원, 별말씀을. 그때에 제가 20년 묵은 체증을 푹 뗐는데요. 사람은 어머니의 매질이라 해도 피하거나 줄이려고 애쓰지만 이젠 저는 그 매질이 그림습니다.》

성목은 권명수연구사가 남기고간 말을 되새겨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람들의 인생행로에는 이런저런 곡절이 있는 것으로 하여 남모르는 시름을 안고살기마련인데 얼기설기 땀힌 그 가슴은 오로지 믿음과 사랑으로써만 풀수 있다는것을 성목은 다시 절감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과의 사업은 벼가을하듯 끝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산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속에서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하게 되는것만큼 그 변화를 알고 심장을 울리는 사람만이 당일군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것을 깊이깊이 새기고있었다.

가사

평양하늘

오재일

머나먼 최전연 고지우에서
때없이 그리워 우렷습니다
장군님 계시는 평양의 하늘
병사는 마음속에 안고삽니다

들어온 총대너머 바라다보면
언제나 가없이 열렸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평양의 하늘
병사는 목숨으로 지켜갑니다

장군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저 멀리 산너머 달려갑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평양의 하늘
자애론 그 영상이 어려웁니다

아, 영원히 푸르른 평양하늘은
병사가 안고사는 조국입니다

받아주세요

유영하

오늘은 양어장에 물고기 푸는 날
앞마을 뒤마을 모두 모여오시라요
일 잘하는 샘물집 생남한 머느리는
펄펄뛰는 잉어가 제일이라요
받으세요 사양말고 받아주세요

잘생긴 초어를 끌라주자요
받으세요 사양말고 받아주세요

키를 넘는 기념어는 백뿔상을 받으시는
효동이네 할머니께 기념으로 드리자요
영예판에 크게 난 예쁜이 뒹으로는

뒤동산 풀밭에는 염소떼 흐르고
양어장 맑은 물엔 물고기떼 꼬리쳐요
인민위해 베푸신 장군님 그 사랑이
바다 먼 산촌에 넘쳐만 나요
받으세요 사양말고 받아주세요

장군님 결승선에서 맞아주셨네

정성욱

나는 어머니조국의
사랑의 젖줄기를 빨며 자라난
이 나라의 딸, 평범한 마라손선수

허나 나는 평범하게 달리지 않았다
주체의 내 조국이 지켜보고
시련을 이겨낸 인민 기대하며 지켜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손선수로
출발선을 찬 첫 걸음부터
결승선의 마지막걸음까지

그 길이 아니던가
압력과 회유
붕쇄의 시련을 박차고
구보로 달리는
내 조국의 진격의 길
아, 그래서 나는 결코
평범하게 달릴수 없었어라

그 길은 105리가 아니었다
장군님 현지도도의 긴긴 로정
최전연초소로 오르는 험한 길이었고
강계와 성강, 대흥단으로 가는 길이였다

정녕 그 길은
력사가 아직 모르는 역경을
맨 앞장에서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 열어가시는
승리의 길이였다

하여 나는
걸음걸음 장군님 그리며 달리였다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내 작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의 거룩한 보폭에
내 작은 걸음을 따라세우며...

힘겨웠다
하지만 기적같은 힘이
용암처럼 근육에 뻗치였으니

그것은 무엇때문이었던가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왔다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아, 우리 장군님께서 결승선에 계셨다
두팔 벌려 성욕아 어서 오라 부르셨다

달아오른 가슴으로
결승선에 들어서는 그 순간은
우리 장군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너전사의 가장 행복넘친
영광의 순간이었다

나를 포옹한 장군님 품은
따사로워라, 자애로워라
아버지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품으로
100만 환영의 꽃바다도 펼쳐주시고
영웅으로 《마라손녀왕》으로
세계의 단상에 하늘높이 올려주시었거니

조국이어!
세계여!
우뢰소리를 들으시라
우리 장군님은 승리의 상징
기적의 화신이시여서
그 품속에 이름없던 이 나라의 딸이
세기의 영웅으로 왕으로 솟아올랐거니

장군님을 그리며 내가 달려
금별메달
장군님을 따라 내조국이 달려
강성대국

아 우리의 장군님은
영원히 결승선에 서계신다
너도나도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자
강성대국결승선에 거연히 계시는
우리 장군님 품으로

장하다 민족의 딸아

정성환

장하다 정성옥
민족의 자랑스러운 딸아
세빌라의 하늘높이 공화국기 휘날려
세계를 뒤흔든
《마라손녀왕》아

축하의 노래
축하의 인사로
군중의 함성은 하늘을 채우고
다시 보자 한번 더
너 다시 보자
굽이치는 꽃파도는 길을 짝 메우고

장군님이 펼쳐주신 대환영연도
어깨우에 걸리는 꽃목걸이들
창문마다 내흔드는 손과 또 손들
한순간에 사랑을 다 쏟지 못해
군중은 누구나 속들이 탄다

그저 너를 차에서
담썩 안아내리여
차는 차대로 가라고 하고
우리는 너를 열싸안고서
이 거리를 걸어서 가고싶구나
하지만 그것은 욕심일뿐

아직도 네 갈 길은
멀고도 멀어
꽃물결의 연도는 길고도 길어
어서 길을 비키라는 경적소리들
만나자 헤어지는 아쉬운 마음

아쉬워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가는 차를 앞질러 달리는 걸음
목메이는 마음들은 네 이름을 못부르고
이슬고인 눈들은 네 모습을 못보나니
그러나 너 탓하지 말아다오
우리 마음 알거든 탓하지를 말아다오

나라가 힘든 길을 가는 이때에
고난이란 그 말이 생활속에서
자주 번져지는 이런 시기에
네가 이렇게 이기고 왔으니
그래서 너의 승리 천백배 값높고
그래서 네 모습이 천백배 장하구나

가로수도 시드는 불벌의 100여리
장군님을 그리며 달려온 100여리
철의 신념과 철의 의지를
자욱자욱 짙어온 승리와 그 힘이
강성대국 향해가는 조선의 기상임을
온 세상에 시위한
장군님의 딸아

사랑하노라 끝까지
조국과 인민은 너를 자랑하리라
너는 20세기 하늘을
공화국기발로 장식하였구나
이 세상 만민의 마음속에
강철의 조선을
빛나게 빛나게 새겨주었구나

단상

심장의 세기에 대하여

최치성

나는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심장의 세기를
가늠해본다. 그리고 스스로 묻는다.

나의 심장에서 자부할만큼 강렬하고 무게있는
박동이 느껴지는가. 그 어떤 극한점도 자신만만
히 이겨낼수 있는 힘과 의지가 그속에 배태되어
있는가.

이것은 나만이 아닌, 이땅에 태를 묻고 이 나
라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받아안게 되는 엄숙한 시대적물
음이다.

나는 지금 주체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펼치
고 조국에 돌아온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
를 환영하는 연도에 서있다.

한여름의 폭양을 무색케 하며 수도의 거리거리
를 뜨겁게 달구던 100만군중의 환영열기, 창공높
이 울려퍼지던 격조높은 시구절들과 환영곡의 우
렁찬 선율, 거리를 짝 메웠던 꽃물결들과 오색테
프들...

환영의 꽃바다우에 높이 떠오른 몸매작고 얼굴
가름한 처녀를 보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

었다.

저 자그마한 처녀의 그 어디에서 그렇듯 세계를 경탄시키고 온 나라를 격동에 끓게 한 거대한 힘과 열정이 샘솟아올랐는가, 혹 보통사람들보다 더 억세고 든든한, 특이한 심장을 지닌것은 아닌지.

정녕 총 105리가 넘는 마라손주로를 달리며 형언하기 어려운 극한점을 이겨낸 정성옥선수의 심장은 과연 어떤것인가.

여기에 그에 대답을 주는 시구절이 있다.

걸음걸음 장군님 그리며 달리였다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내 작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의 거룩한 보폭에
내 작은 걸음을 따라세우며...

그렇다. 정성옥선수의 심장은 결코 남다르지도 특이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해 우리 장군님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위대한 로정에 자기 달리는 주로를 이어놓고 걸음걸음 장군님을 그리며,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자기의 작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달리고 또 달리여 우리 민족의 강한 기개를 소리높이 떨친 민족의 장한 딸-정성옥선수.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과 시련을 단신으로 헤

쳐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고동쳤기에 정성옥선수의 심장은 참기 어려운 극한점도 이겨낼수 있었거니.

그렇다. 강한 심장은 극한점도 이겨내고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정성옥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준 생활의 진리, 심장의 진리이다.

우리는 다만 인간이라는 생명유기체를 살아움직이게 해주는 그러한 생물학적, 육체적 심장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육체적심장만으로써는 이겨낼수 없고 극복할수 없는 그런 엄혹한 시련과 고난이 오늘 우리앞에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일어서면 이기고 주저앉으면 쓰러진다는 결사의 각오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충만된 열혈의 심장은 넘지 못할 극한점을 알지 못하며 극복 못할 난관을 모른다.

이 위대하고 고귀한 진리로 뛴뛰는 수천수만의 크고 억세고 비상한 심장들이 정성옥선수의 뒤를 따라 승리를 향하여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고동쳐 간다.

나는 지금 한껏 뛴뛰는 나의 심장과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심장은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강한 세기로 고동치는가.

순간도 멈춤없이 힘차게 고동치라, 나의 심장여!

이 나라 녀성의 이름으로

황성하

물랴구나 정성옥 그대가
억대우같은 사나이도 아닌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세계의 폭풍같은 시련을 엄청나게 모으리란것을

누구도 물랴구나
조국과 아득히 먼곳에서
따가운 폭양을 뚫고 달려
조국의 기발을 높이도 날린이가
다름아닌 이 땅의 몸집작은 처녀일줄을

나도 그대와 같은 녀성인것이
이처럼 벅차고 기쁘구나
그때문에
마치 그대와 자매간이라도 되는듯이
내 마음에 친근하고 가깝게 생각되는구나

기쁘구나
너무도 고맙구나

성옥이 너와 같이
부지런하고 강의하고 슬기로운
이 나라 처녀들과 녀성들의 그 넋을
세상에 대고
남김없이 보여준 네가 고맙구나

조국에 드리운 시련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이 두려워함이 없이
맞받아나섰던 우리 녀성들
평온한 날보다 갑절 어려운
들일에 공장일에 가정일에

해종일 고운 얼굴이 별에 타도
노래많고 웃음많던 우리 녀성들
그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뒤질줄 모르는
이 나라 녀성들의 의지를 담아
그렇게 천걸음 만걸음 달려준
성옥이 그대가 눈물겨웁도록 고맙다

고맙다
그렇듯 순수하고 불같은 녀으로
우리의 아버지장군님을 받들고 따르는
이 나라 녀성들의 마음을
세계에 꾸밈없이 소리쳐 터쳐준
성옥이 그대가 가슴빠근토록 고맙다

보라 이 나라 녀성들의
그리도 부드러운 정으로 엮은
축복의 꽃 다발다발이
그대의 머리에 해빛을 타고 줄지어 내린다

단상

결승선

리금철

나는 지금 텔레비죤수상기앞에 앉아있다.
민족의 장한 딸,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의 승리의 소식이 에스빠냐의 세빌라상공에서 온 우주로 울려퍼지던 그날로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또 보는 화면이다.

볼 때마다 새롭지만 특히 정성옥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서는 모습에서는 눈물이 솟구친다.

경기장에서 출발선을 떠날 때에는 수십여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함께 달렸지만 그 누구도 정성옥선수, 우리 조선에 대하여 생각지 않았다.

허나 우리의 정성옥선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고 또 달려 남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으며 승리의 단상에 높이 올라 우리 민족의 장한 정신과 기개를 만방에 높이 떨쳤다.

결승선에 들어서는 정성옥선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력사에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뚫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려본다.

최근년간 우리 인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고비를 헤쳐왔다.

민족의 아버지를 잃는 대국상을 당하였으며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한 경제적난관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주저앉지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연히 일어서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었으며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승리를 눈앞에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하다면 무슨 힘으로 어떻게 남들같으면 열백번을 더 주저앉았을 시련을 이겨내고 거연히 일떠

이 나라 녀성들의 살뜰한 마음들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그대 앞길에
눈부신 무늬를 짜고 또 짠다

세계 《마라손녀왕》
그가 다름아닌 조선녀성인것이
그리도 기쁘고 가슴벅차
그처럼 명절처럼 들떠있는
이 나라 녀성들의 웃음과 노래와 존엄은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영원하리라

설수 있었는가.

나는 이 물음에 정성옥선수의 시구절로 명백히 대답한다.

장군님을 그리며 내가 달려
금별메달
장군님을 따라 내 조국이 달려
강성대국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결승선에 계신다
너도나도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자
강성대국결승선에 거연히 계시는
우리 장군님 품으로

그렇다. 정성옥선수가 결승선을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고달려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설수 있었듯이 우리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었기에,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달려왔기에 최후승리를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어제와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한것처럼 래일도 영원히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승리의 한길로 달려 강성대국건설의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설것이다.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가 다가온다.

빛나는 미래가 두팔 벌리고 마중온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결승선》이 눈앞에 보인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결승선에 서계신다.

창작실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시장철 푸르고 억센 소나무의 기상인양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비약과 기적만을 창조하며 전진하는 민족, 하나의 피와 살로 혈연의 대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숨결로 사는 민족. 이런 민족이 바로 **김일성** 민족이고 내가 속한 민족이어서 역경을 박차고 105리를 맨 앞장에서 달려 우리 민족의 이름을 세계에 대고 자랑스럽게 펼친 정성옥선수의 애국적장거를 두고 100만의 수도시민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폭풍같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민족의 강한 딸, 조선의 영웅으로 떠받들려 축복을 받는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지난날 땅은 있어도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민족은 망국노의 실음으로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빛을 잃었으며 체육경기에 참가해도 남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런 민족이 오늘은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가 1등의 영예로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이름을 세계에 대고 자랑스럽고 긍지높이 펼치고있으니 이 얼마나 민족사적경사인가.

오늘의 이 영광, 이 민족적공지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여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떠메시고 우

리 민족을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미래가 있다. 정성옥선수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정성옥선수가 자기의 피와 땀으로 보여준 진리를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이 한 몸 기꺼이 다 바쳐나가겠다.

주체사실주의기치가 세계를 진감하며 높이 휘날릴 21세기 주체문화건설에서 우리 문학의 척후병이 되는것은 우리 평론의 근본사명이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장군님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실현나가는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론창작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정성옥선수처럼 실천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결사판철하는 쟁쟁한 평론가로 준비하겠다.

김정철

더 높은 사상적각오와 강한 정신력으로

조선민족의 강한 딸 정성옥선수가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단연 1위를 하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민족인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것은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이것은 세계선수권을 보유할수 있는 힘의 비결이 무엇인가고 묻는 기자들에게 한 정성옥선수의 말이다.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어엎고 세계육상계를 놀라운 그는 40여키로메터의 전구간을 자기의 정신력으로 달렸고 그 힘으로 승리하였다.

언제나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안고 역경을 박차고 달리고 달려 결승테프를 끊은 정성옥선수의 모습은 미제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시며 준마타고 구보로 나가는 조선의 기상, 주체조선의 모습이다.

그는 조선의 민족정신과 기상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도덕의리, 량심적자각, 실력으로 민족의 아버지를 받드는 지극한 효성임을 뚜렷이 증명하였다.

사상과 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성옥선

수처럼 높은 사상적각오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세계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가 **김정일**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고그리며 달려 민족적대경사를 안아온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충효심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누구든지 모든 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있다.

나는 세계 《마라손녀왕》-조선의 영웅, 정성옥선수가 장군님만을 그리며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로 달리고 달려 주체조선, **김일성**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펼친 그 투지, 그 정신력을 따라배워 창작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의한다.

나는 정성옥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35도의 폭열속에서도 105리를 이악하게 달려온 투쟁모습을 생각하면서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려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과 맺으신 숭고한 동지적관계를 보여주는 도서 《수령과 작가》를 가장 우수하게 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평론가 박준택

이들처럼 땅을 사랑하라

문동식

노래로 높아지는 산정우에서

무심히 보지 말라
오랜 세월 돌과 덩불속에 묻혀
쓸모없이 놀던 아슬한 산정마다
돌기돌기 뻗어오른 저 이랑들을

진정 저 이랑이랑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새겼던가
쟁기를 잡고 산에 오르면
누구나 노래를 부르고볼렀지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 그리워

평-평- 맞서는 암반앞에 지칠 때도
장군님 그려보며 노래부르면
새힘이 솟아나고 용맹은 솟구쳐
바위를 깨내고 이랑을 지어갔지

흙뿌리 캐내어 씹을 때에도
장군님 드시는 채기밥을 생각하면
허리띠를 또 한번 조이면서도

뿌려가는 밤만은 아낄줄 몰랐지

그렇게 기울인 뜨거운 진정우에
해마다 무수한 씨앗이 움터자라
장군님께 드리는 기쁨의 노래를
감자와 강냉이 해바라기 풍년물결
끝없이 이어이어 부르는 여기

오, 장군님 찾아오시는 그날이 오면
그이께 만족한 기쁨을 드리려
오늘도 그리움의 그 정만 바쳐가는
여기 산촌의 이랑이랑우에서
시인인 나도 이 노래 부르노라

《고난의 행군》 시기 충신호자들
여기 깊은 산중에 일떠세운 원료기지
자력갱생의 아름다운 이 락원에
장군님을 모시고싶어 모시고싶어

쌀함박

우람찬 산밭의 봉우리마다
살진 이랑들이 휘감겨올라
내 머리들어 바라볼수록
높은 산 깊은 골은 쌀함박같구나

《고난의 행군》 엄혹한 세월
조국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들
자력갱생 횡불을 높이 추켜들고
산판을 벌판으로 바꾸어놓았거니

돌기돌기 쌀함박같은
이 산촌 이랑들은 무엇을 일었던가
겨울엔 얼고 삼복철엔 그슬리며
걸음걸음 역경을 헤쳐갈 때
이 쌀함박은 무엇을 끌었던가

조국이 겪는 천만시련앞에
그 누가 아낌없이 심장을 바치는가

사상과 신념을 검열하는 이때에
그 누가 안일과 향락을 바라는가

내 눈길들어 뜨겁게 바라보는
산정의 이랑들은 일고일었구나
쌀속에서 쪽정이를 갈라내듯이
애국과 배신 충신과 역신을

제국주의원썬들의 압살의 광풍속에
그 어떤 정신과 그 어떤 량심만이
바위와 벼랑들에 뿌리내렸는가를
나에게 다 말해주는 여기

오, 산촌의 이 쌀함박속에 안겨
나는 자부하노라
애국자와 충신들이 사는 나의 조국
이보다 강한 나라 세상에 없음을

내가 만난 당비서

어디에 갔을가
어디서 일할가

다부진 몸매
날과람이는 걸음
수수한 작업복에 벙어리장갑...
새벽에 신발끈을 조이고 나서면
노상 일속에 땀에 젖어사는 사람

경사급한 산정마다에
굽이굽이 뻗어오른 넓은 신작로
그 길도
당비서의 걸음따라 뻗은 길

산기슭 뒤엎킨 가시덩굴 걷어내고
번듯이 펼쳐놓은 포전들
거기에도 당비서의 땀이 스며있어
내가 꼭 만나고싶은 일군

눈이 오면 눈에 얼고 비오면 비에 젖고
두손에 콩알같은 물집이 생겨도
그 손에 삽과 팽이 때로는 미장칼

먼저 잡고 불바람 일쿠는 그

어디에 갔을가
어디서 일할가

나는 끝내 홀로
산길과 포전길 양어장과 염소사
식료공장 미분공장 풍력발전기...
산촌에 마련된 새 원료기지를
견고결으며 생각하였네

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높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심장으로 받드는
충신 당비서의 모습이라고

그를 끝내 만나보지 못했어도
나는 들었네
산중에 빛나는 창조물들에서
나를 만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당비서 심중의 귀중한 그 말을

산길을 오르며

돌산에 돌산이 앞을 막아도
정대와 마치로 한치 또 한치
갓가지 열매를 따내릴 그날로
설한풍을 헤치며 앞서간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가있는가
소슬한 봉우에 또 첩첩 봉우리
저 산정 끝까지 길을 내며 오르더니
저 하늘나라에 올라갔는가

진정 그네들이 하늘에 올라
해와 별을 다 따서 땅우에 내려온듯
원료기지 새 마을에 전기불 휘황하고

우렁찬 기계소리 메아리를 일쿠저니

경탄속에 굽이굽이 자랑속에 굽이굽이
오르고오를수록 숲속에 혼한 열매
다 안아내려 조국을 빛내이려
앞서가며 길을 연 사람들의 모습은
내앞에서 별처럼 빛나고있구나

《고난의 행군》길을 락원의 행군길로
내앞에 열어놓은 참된 사람들
이름없던 산촌에 전변을 가져온
그네들의 그 모습은
후손들앞에서도 영원히 빛나리라

물속에서 불타는 해

굽이치는 강줄기 여기 없어도
물결을 굽어보니 양어장물속에
이글이글 끓는 해가 불타고있네

해를 품고 물결은 반짝거리고
그속에선 잉어 붕어 초어떼 헤엄치고
그우엔 푸르싱싱 설레이는 버드나무
실실이 머리풀어 흐느적이고...

이 풍경 한푼에 다 안고 불타는
물속의 해를 보며 내 생각하노니
열개의 양어장을 골짜기에 꾸려놓은
주인들의 가슴속 불타는 마음을

진정 그네들의 심장이 아닐가
얼음을 깨내고 암반을 들어내고
이끌저끌 샘줄기를 하나로 모아
양어장을 펼쳐놓은 사람들의 불덩이

그래그래 나는 보았네
물속에도 식지 않고 불속에 열지 않는
그네들의 가슴속 불타는 심장
오로지 충효로만 끓는 그 심장

아, 나는 보았네 력력히 보았네
장군님의 강성대국 만년초석으로
심장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
그네들의 가슴속 불타는 그 사랑을

우등불

비바람에 씻기고 눈보라에 날리고
타오르던 우등불이 꺼진지는 그 언제
지금은 여기 발머리에 몇개의 돌덩이만
거멓게 그슬린채 남아있을뿐

얼마나 벅차고 뜨거운 생활이
이 우등불가에 피어났던가
눈보라에 땅은 돌처럼 얼었어도
개간의 일손에 불꽃을 날렸지

바위와 나무뿌리 앞을 막아도
제국주의원썬들과 결사전을 벌리는듯
깨고 부시고 뿌리 뽑아던지며
새땅을 얻어내던 그때의 기쁨이여

흙보다 돌이 많은 산기슭이여도
돌보다 더 많은 열매가 쏟아질
그날을 그리며 그날을 앞당겨
입술을 깨물며 안아올린 땅이여

설참이면 얼마나 유쾌한 웃음

이 우등불가에 꽃피났던가
숫구치는 불길, 흥겨운 춤노래에
눈보라도 녹고 언땅도 녹고...

그날의 불타던 눈빛과 숨결이
오늘도 어려있어 뜨거운 우등불가
누가 그 누가 말할수 있으랴
이제는 우등불이 다 꺼져버렸다고
여기에 싸늘한 돌만이 남았다고

장군님을 옹위하며 당을 따라서
결사의 싸움벌린 충효의 정신은
오늘도 여기에 우등불로 타올라
내 가슴 뜨겁게 불태워주거니

오, 《고난의 행군》 준엄한 세월
우리의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개간자들의 그 정신 그 신념은
내 조국이 추켜든 자력갱생의 불길
영원한 부흥의 노래가 되었노라

가사

백학이 날아드네

강승계

백학이 날아드네 산을 넘어 날아드네
토지정리 첫해가을 풍년벌에 날아드네
장군님 은덕아래 천지개벽 되었으니
별방의 풍년학이 내 고향에 날아드네

아득한 금파우에 훨훨 나는 그 모습이
전변된 내 고향의 새로운 풍경일세

장군님 은덕아래 천지개벽 되었으니
기계농사 도래하며 풍년학이 날아드네

수수천년 별방에만 날아예던 풍년새
오늘은 이 산촌에 춤추며 날아드네
장군님 은덕아래 천지개벽 되었으니
영원한 보금자리 네 여기서 찾았구나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언어형상

리환식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분야는 언어형상분야이다.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뚜렷하게 갖춘 작가일수록 언어형상에서 자기식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에서 언어형상의 개성화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도는 작가들이 자기식의 독특한 문제를 확립하는것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언어형상에서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작가였다.

천세봉은 자기식의 독특한 언어문체적특성을 명백하게 구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매 작품의 내용과 양상에 따라 그것을 능숙하게 굴절시켜 표현하는 언어기교가 높은 소설가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자기의 이러한 언어적개성을 총서작품인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발현된 작가의 언어적개성은 무엇보다도 성격형상에서 기본인 인물의 내면세계를 행동묘사와 대사형상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립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사건과 인물관계의 전후사연을 밝히는 데로 집중되도록 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천세봉은 소설가 본연의 자세로 객관적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생활화폭을 창조하였다. 여기로부터 그의 소설에는 행동묘사와 대사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화폭을 창조하는 언어적개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펼쳐보이는 심리묘사부분은 적고 행동묘사와 대사형상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하여 작품에 전개된 심리묘사가 주어져있지 않다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물의 심리와 정서, 섬세한 내면세계의 변화까지도 놓침없이 감득할수 있게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레를 들어 만경대교향집을 두번째로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부분을 보자.

《할아버님께서 사립문너머에 얼핏 시선을 주었다가 부엌쪽을 향해 소리를 치시였다.

<아니 누가 왔다고요?>

부엌일을 하던 할머니께서 치마폭에 손을 씻으

며 뛰어나오시였다.

<할머님!>

장군님께서 감격의 첫 상봉을 하던 며칠전 그때처럼 세월의 풍파에 늙고 쇠진해진 할머니의 어깨를 그러안으시였다.

<오늘은 소문두 없이 네가 왔구나.>

할머니께서는 장군님의 손을 쓸어만지며 울어 버릴듯이 말쑥을 계속하시였다.

<요즘 정사에 바쁘다는데 어떻게 짬을 냈느냐? 전번에두 네가 강나루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다더니 또 걸어온가보구나.>

할머니께서는 장군님의 한쪽팔을 잡아쥔채 눈물을 머금고 사립문밖 저쪽을 내다보시였다.

<제가 이집 마당에 차를 타구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치마폭에 손을 씻으며 뛰어나오시는 리보익녀사의 모습에 대한 행동묘사와 대사형상에는 수령님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오신 할머니의 못견디게 그리워하던 마음과 반가움에 대한 심리가 그대로 생동하게 표현되어있다. 또한 《요즘 정사에 바쁘다는데 어떻게 짬을 냈느냐? ... 전번에두 네가 강나루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다더니 또 걸어온가보구나.》라는 대사속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속에서도 손자분을 아끼시는 할머니의 걱정이 담겨져있다.

또한 반가움속에서도, 손자분을 아끼시는 할머니의 걱정이 담겨져있다. 또한 《제가 이 집마당에 차를 타구 들어서면 되겠습니까.》라는 대사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높이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장군님께서 감격의 첫 상봉을 하던 며칠전 그때처럼 세월의 풍파에 늙고 쇠진해진 할머니의 어깨를 그러안으시였다.

작품은 이러한 행동묘사와 대사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교향집을 처음 찾으시였을 때의 사실을 재현시키고 사건과 인물관계의 전후사연을 밝혀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 천세봉은 행동묘사와 대사형상의 유기적인 련관에서 인물의 심리와 정서, 섬세한 내면세계의 변화까지도 놓침없이 감득할수 있게 립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사건과 인물관계의 전후사연까지 뚜렷이 엿볼수

있도록 개성적인 언어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발현된 언어형성에서 작가의 개성적특징은 다음으로 정서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언어현상을 통하여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소설가 천세봉은 자기 작품에서 즐거운 해학을 섞어가며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언어형상의 개성적인 특기를 가지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군당조직부장이 된 이전날의 재령벌 머슴군 김창규가 결혼상을 받기는커녕 결혼승낙도 못받은채 남의 귀여운 외동딸을 차고 정든 고향과 리별한후 처음으로 처가집을 찾아오는 장면과 그의 장인 리홍목이 사위를 만나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정서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언어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창규는 일제때 재령군 동흥리에서 가난이 죄가 되어 하루아침에 랑부모를 모두 잃고 꼴머슴을 살다가 리홍목이네가 살고있는 신당리 지주 서만호의 집에 옮겨와 머슴살이를 했다.

그때 이 마을의 가난한 농민 리홍목에게는 몸매가 민출하고 인물잘난 딸이 있어 홍목은 장차 어딘가 돈푼이나 있는 집에 딸을 주어 팔자라고 고쳐보자고 실로 한가닥 행운을 몽상해오던차였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이 걸친것 하나 없는 머슴총각 창규와 정분이 난것이다. 홍목은 그때 창규를 불러다놓고 《체네 한살에 돈이 얼마지 아니. 이속곳 한벌 못입고 사는 알몸뚱이야, 체네나이 한살에 백냥이면 체비 열살에 돈이 천냥이야.》라고 하며 분기가 충천해서 창규를 맞대놓고 샅대질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창규는 온다간다 소리없이 지주 집을 뛰쳐나간후 1년이 지난 어느날 밤 홍목이네 집에 불쑥 나타나 돈 오백냥을 집어던지고 그의 딸과 함께 그밤으로 사라졌던것이다.

이와 같이 가슴아픈 청춘시절의 인생행로를 가진 그 김창규가 오늘은 어엿한 혁명전사가 되어 처가집을 찾아오는것이다.

작가는 처가집을 찾아오는 창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추억속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던 그 골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안해와 첫사랑을 언약하던 오리나무숲은 여전히 저쪽에서 옛모습그대로 설레이고 있고 흐느끼는 안해의 손목을 이끌고 정든 땅과 리별하던 슬픔의 자욱자욱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채 걸음걸음에 추억을 되살리고있다....

(...이제 장인, 장모들앞에서 어떻게 사죄를 한다? 그 부모들앞에서도 사랑하겠다는 말을 해야지. 마을을 사랑하고, 농군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용서해줄것이다.))

작가는 자기 식의 독특한 언어형상수법으로 어엿한 혁명전사로 자라난 오늘의 김창규와 그의 고생 많던 지난날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정서속에 잠기게 하며 지난날 우리 농민들에게서 삶에 대한 초보적인 권리마져 애타갔던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매부를 맞이하는 처남 영길이와 사위를 만나는 홍목의 형상은 참으로 가관이다.

그날 처음 만나는 매부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몰라 찢절매고있던 봉산수수대과 같이 껍뚜룩한 키에 몸이 다부진 처남 영길이는 어머니가 인사할줄도 모르는가고 나무라는 바람에 첫인사를 한다는것이 《매부, 농사지으러 왔소?》라고 한마디 툭 내쫓는다. 부지깽이를 든 장모가 목을 빼들고 울러다보다가 《에그 끝끝, 봉산수수대같아서. 무슨 인사본때가 저렇누.》하고 혀를 찬다.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더꺼머리농촌청년의 인사법이다. 그러나 가식없고 진실한 처남 영길이의 모습이 또한 독자들에게 그대로 안겨오는 생동한 형상이기도 하다.

한편 창규가 남의 딸을 채가지고 들구뛰었다고 그를 두고두고 죽일놈이라고 욕질하던 홍목이 이들은 외상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울바자에 들어서 기도전부터 큰소리 친다.

《내다보는놈이 없이 문 꼭 달고 뺄하느냐? 어어른이 나들이 갔다오면 나와보는 레절두 모르느냐?》

그야말로 가관이다. 아직도 봉건적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농민 리홍목은 서발막대기를 휘둘러도 걸릴것 없는 이 길에서 그래도 주인이라고 호통치는것이다.

집안에 사위를 앉혀놓고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다 달려나온 처에게 하는 홍목의 말은 더욱 불만하다.

《...그래 내가 그 못난 사위덕 좀 보는게 어때? 서만호가 날보구 뭐랬는지 알아. 장구배미 줄테니 베, 베나락 심어 머 먹으래는거야. 적은이라구 울려추면스리. 그놈두 이젠 공산당세상인줄 아는가부지. 왕벌이 어찌 저렇게 오졸없는 인간처럼 나한테 추절을 떠는지 알아? 내가 저놈 술한잔 얻어먹구 제간놈을 굶게 불가 해서. 웬, 테. 난 남의걸 먹어두 체정신까진 팔지 않는다.》

이날 홍목은 감자나 찌놓고 매부를 맞아들이느냐고 아들을 몰아대며 애지중지 키워오던 엄지개를 잡게 당장 바줄을 가져오라고 호령한다.

정말 웃음속에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사이다.

이것을 단순한 주정이 아니라 천대받고 지지리 눌러살던 홍목이 해방과 함께 공산당 간부가 되어 돌아온 사위에 대한 긍지와 악착한 지주 서만

호 그리고 착취계급에 대한 저주와 조소를 담은 대사인 동시에 홍묵의 성격적특질을 잘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사위 김창규를 만나는 장인 리홍묵의 성격과 생활을 정서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언어형상을 통하여 깊은 의미를 담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이외에도 작품에서는 해방직후 저마다 애국자인체하면서 긴 머리카를 흔들며대는 《맑스의 사위감》들을 조소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장마당 장면과 재령별농민들이 악질지주 송상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야유하는 농민집회장 장면을 비롯하여 여러 장면들에서 독자들을 웃기기도 하고 깊은 정서에 잠기기도 하고있다.

이와 같이 소설가 천세봉은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정서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언어형상을 통하여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발현된 언어형상에서 작가의 개성적특징은 다음으로 자기식의 독특한 대사형상을 활용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대사형상에서 작가의 개성적문체는 우선 정황과 대상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대사를 구사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나라가 갓 해방되다보니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군들의 소원을 꼭 풀어볼 결심입니다.

할아버님, 우리는 며칠전에 당을 세우고 편이어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그건 당장 소작료를 3.7제로 하고 장차로는 지주의 토지나 일본놈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땅들을 농군들에게 노나주게 하는 결정입니다. 땅의 주인이야 발같이하는 농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사는 해방된 그해 가을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김보현선생님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다.

그때 할아버님께서 지금 지주놈들과 마름놈들이 흉흉한 소문을 내돌리어 농군들속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장군이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는지 하고 매우 궁금해하는데 대하여 주시는 대답이다.

소설에서 제시된 정황과 대상은 바로 철학적인 표현이나 섬세한 심리묘사를 비롯한 이여의 언어구사으로써는 처리할수 없는 바로 명백하면서도 간결하고 통속적인 대사형상을 통해서만 해결할수있는 정황인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정황과 대상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고 명백한 대사속에 통속적으로 모든 의미를 부여하여 보여준것이다.

작품에서는 또한 땅을 달라는 혈서를 써가지고 평양에 올라온 조순근농민을 데리고 수령님의 저택을 찾으신 김보현선생님께서 나라에서 농군들에게 땅을 팔아준다는 소문이 도는데 앞으로 지주의 땅을 돈주고 사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주는가고 물으셨다.

그 물음에 답변을 주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작가가 정황과 대상에 맞게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왜놈들한테서 돈주고 찾았어요? 땅도 마찬가지로. 지주놈들이 농민들한테서 돈을 주고 샀는데요. 우리가 뭇때문에 피흘려 찾은 제 나라에서 제 땅을 다시 돈내고 산단 말입니까?...》

얼마나 간결하고 명백하며 알기 쉬운 대사가 논리적인 견지에서도 틈이 없이 아귀가 맞는 그야말로 명문장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당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황과 대상에 맞게 구사한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대사형상을 통하여 숨씨있게 보여주고있다.

대사형상에서 작가의 개성적문체는 또한 필요 이상의 묘사를 피하고 적절한곳에서는 간결한 대사로 처리함으로써 작품의 신축성, 동적미감이 나게 언어구사를 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

《이사람 창규, 자넨 서슬을 내뿔으며 겨우 살아난 생각이 안나나? 자네가 그때 애비의 우악스럽게 틀어잡은 입에 쏟아내는 서슬을 몇모금이라도 넘겼더라면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있거나 할것 같은가. ...》

이 대사속에는 지난날 김창규네 가정과 그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비참한 생활전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 대사가 담고있는 생활내용은 묘사문으로 처리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작가 천세봉은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생활내용을 김창규가 겪은 어린 시절의 비참한 생활을 직접 목격한 그의 삼촌 김재경의 몇마디 대사속에 함축시켜 처리함으로써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겪은 비참한 생활경로를 간결하게 보여주면서도 작품에서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왜소화되지 않도록 언어구사를 참신하게 전개시켜나가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고투와 사투리들을 씬에 있어서도 당시 농민들의 언어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게 활용하는 동시에 오늘의 시대적미감을 고려하여 쓰고있다.

...

《심두 좋네, 엇제약엔 진디기논에서 돌피뽕더니 은제 또 가래기동쳤시까?》

재령별 농민 리홍묵의 이 대사는 황해도지방의 전형적인 사투리로 구성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재령벌의 토배기농사꾼인 리흥묵의 대사는 일관하게 황해도지방의 고유한 사투리로 구사하고 같은 황해도지방의 토배기농사꾼인 조순근을 비롯한 다른 농민들의 대사형상은 될수록 사투리를 적게 쓰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언어형상에서 토색적인 맛을 돋구면서도 시대적 미감을 잘 살릴수 있게 하고있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민심은 천심》, 《까마귀 평잡을 계교》, 《올라두 조구값》, 《사위란

놈은 백번 끼고 살아도 남》, 《봉산수수대갈다》, 《응답없는 곰처럼 되고말았다》, 《물밑에 놀렀던 술한 두꺼비들이 기지개를 편다》등과 같은 성구, 속담, 비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농촌생활과 농민들의 성격적특성을 섬세하게 표현하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 장편소설 《조선의 봄》은 소설가 천세봉의 개성적인 언어형상수준을 뚜렷이 보여주는 성과작이다.

어머니 생각 외1편

김석주

어머니는 내 어릴적에
울면서 집에 들어서면 제일 싫어했나이다
사내너석이 매맞고 다너
다시는 울면서 집뜨락에 들어서지 말아
그런 날 좋아리에 안기던 그 아픈 매가
내 한생 약한 눈물을 모르게 한게 아닐가요

어머니는 내 어릴적에
거짓말하는것을 제일 엄하게 꾸짖었나이다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어미앞에서야 솔직해야지 거짓말을 해
잘못을 빌 때까지 벌을 세우던 그 엄함이
내 한생 거짓을 모르게 한게 아닐가요

어머니는 늘 타일렀나이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네거리에서 인분짐을 지고다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오늘 그 말로 지식들을 타이르는것은
늘 등을 떠밀어주던 그 뜻이 고마워서가 아닐가요

귀엽다 어루만지며 응석반이로 키운 자식은
연약하게 키워준 그 사랑을 잊을수도 있나이다
하지만 굳세고 용감한 아들은
엄하고 강직한 그 사랑을 못잊나이다
어머니시여, 당앞에 솔직하고 강의한것은
당신의 그 사랑이 자식의 모습으로 된게 아닐가요

발가송이시절

해종일 뛰놀다 감탕칠을 한채 들어서면
어머니는 발가벗긴 나를
커다란 나무함지안에 세우고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영치를 때려가면서

몸에 걸친것 하나 없이
알몸똥이로 어머니앞에 섰어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웃던 그 시절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한생에서
가장 천진하고 순결하던 시절이 아닐가요
숨길것도 없고

감출줄도 몰라
그래서 부끄러울것도 없던 마음이 아닐가요
더구나 몸의 기미 하나 다 알고있는 어머니앞
에서야
자식은 언제나 발가송이가 아닙니까

인간이 한생을 그렇게 산다면
온 한생이 순결하고 참된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당앞에 내 언제나 그렇게 설수 없을까
가린것 하나 없고 숨길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비오는 거리에서 외2편

리석

비오는 거리
어린 아이 손잡고
걷는 너인의 모습이
문득 이 마음에 안겨주는 생각

아이의 신발이 물에 젖을세라
자기는 물관을 짚고걸으면서
아이에게는 마른 땅을

플라걸게 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점점 멀어져가도
내 마음에 깊어지는 생각
사람들에게 진펄길도 헤쳐가자 웨치면서
자신은 마른 땅만 플라가며 걷는
그런 지휘관은 없는가

귀 맛

거짓 웃음과 눈물도 있어
귀맛만 돌구는 말
분칠하고 억지로 억양을 섞는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면

눈이 멀게 되리
귀가 메게 되리
수수하고 평범해도 진짜보배말도 스치는
청맹과니가 되리

해놓은 일을 보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을 모른다 했지만

진심을 주며
사람들속에 깊이 들어가 살아보니
다 알겠구나

그 생각 그 마음까지도

위훈의 다발을 아름답게 엮으며
순간순간 새겨가는 그 자욱을 보면
다 알게 되리라
속깊은 그 마음 그 생각까지

백두길을 걸으며 외2편

김석천

백두산답사행군길을 떠나는 날
나는 풀빛제복차림에
간편한 배낭을 메었다
허리엔 군인혁띠를 두르고

대오앞에 붉은기를 날리며
답사의 첫걸음을 뻗적에
절로 들떠있던 마음이어
단숨에 백두산정에 치달아올라
남먼저 해돋이도 맞이하리라

하지만 백두는

내앞에 선선히 길을 내주지 않았다
키를 넘는 눈속에 나를 던져
아름드리 진대나무도 넘게 하고
때로는 생눈으로 시장기를 달래는 법을 배워주며
제힘으로 길을 여는 걸음새를 가르쳐주었다니

빨찌산차림새로
빨찌산걸음으로
끝끝내 백두산정에 올라선 그날
불타는 해돋이를 맞으며
가슴속에 절로 차오르던 생각이여

백두 여기는
 등산복을 입고선 들어설수 없는곳
 러행가방 들고선 헤쳐갈수 없는곳
 오로지 깊이 조른 혁띠와 신들메를 더 조이고
 배낭을 멘 그러한 차림새앞에만
 자기의 가슴을 열어주는곳

항일의 긴 세월이 비껴있는곳에서
 보름이라는 답사의 길을 걸으며
 나는 한생의 철리를 심장에 새겼다
 반세기전 투사들의 그 차림새가
 우리에게 왜 그리 필요한가를
 세대에 이어지는 혁명의 그 려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밀영풍경

쏟아지는 햇빛과 어울려
 붉게 물드는 백두의 하늘
 정일봉은 멀리서도
 불멸의 존함을 내비치고있다

산허리마다엔
 흰띠처럼 감겨있는 흰구름
 바람결조차 숙연해지니
 천년을 그대로 걸려있을듯...

고요하다!

붉은기의 펄럭임소리만이
 숨엄한 정적을 흔드는곳
 성스런 생가를 둘러싼 모든것이

성벽처럼 말없이 솟아있는곳
 눈앞에 비껴오는 생각깊은 풍경이어
 창검을 추켜든 호위의 대오런듯
 어깨걸고 늘어선 이갈숲의 바다
 태양의 성지를 지켜
 엄엄한 기상으로 갈기를 날리는
 저 사자봉의 모습을 보아라!...

눈보라에 대한 송가

평온한 안식짓든 창가림밑에서
 내 만일 이 소릴 들었더라면
 심장은 공포에 떨었으리라
 밀림을 뒤흔드는 눈보라소리...눈보라소리

수백년 자란 거목들이 허리를 꺾이우고
 수천년 뿌리박힌 바위들이 웅크리고 우는
 백두의 겨울 무서운 광풍앞에
 나의 숨결도 거칠어진다

지금껏 말로만 불어왔고
 지금껏 노래처럼 불어왔던
 눈보라소리-그것이 감상의 선물이 아니었음을

백두는 나에게 준절히 타이르는가

열혈의 투사들이 남긴 메아리가
 장엄한 합창이 되어 울리는 소리
 물으라 심장이 눈보라의 깨우침을-
 이 맛을 봐야 혁명을 안다!
 이 맛을 봐야 투쟁의 보람을 안다!

가야 할 혁명의 머나먼 길에
 시련이 왜 없으랴 풍파가 왜 없으랴
 그것을 각오하고나선 사람에겐
 얼마나 장쾌한가 밀림이 연주하는 이 선를
 오! 눈보라소리 백두의 눈보라소리...

영원한 복무

리중홍

(전호에서 이음)

추억

똑똑,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분명 문두드리는 소리 같았는데 조용하였다. 나는 귀를 강구었다.

똑똑똑... 툭툭...

문두드리는 소리가 맞았다. 문두드리는 사람이 부참모장동무가 아닐까 하는 욕감이 들었다. 수속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고 생각하며 들어오라고 응수했다.

문이 열리더니 어쩐지 몸에 잘 붙지 않아보이는 사복을 입은 부참모장동무가 들어왔다.

《축하합니다. 정치부장동지!》

문안에 들어서며 던지는 그의 인사였다. 너무 죽한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 넘쳤다. 서글서글한 목소리도 흥분에 젖었다.

(이사람이 어느새 벌써...)

소리없이 떠오르는 그 의혹에 대답이나 하듯이 내 손을 덥석 잡으며 그는 말했다.

《무슨 새 일감이 없을가 해서 사동쪽으로 나왔다가 한동무를 만났는데... 그가 알려주더구만요. 그래 곧장 달려오는 길입니다. 우리 동갑이들중에 장령동지가 나왔는데 가만히 있겠더라구요.》

그는 노상 웃음이 떠날줄 모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기보다 소리쳤다.

《사동》이라는 지명이 뇌리에 인찍혀지면서 영- 하고 허공을 찌는 폭격기의 엔진소리같은것이 귀전이 아니라 심중 깊은곳에서 울려오는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뒤이어 눈앞에서 병긱하고 눈부신 섬광이 일어나며 우뚝 솟아올랐다가 후루루 무너져내리는 시커먼 흙기둥이 언뜻 그려졌다. 하지만 이것은 짧은 한순간의 착각일뿐... 찢찢 웃는 그의 웃음소리와 전에없이 수염발이 희끗희끗해진 그의 얼굴과 그리고 낮익은 방안기물들이 나의 주위를 짙 둘러쌌다.

《사동》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나의 생각은 나 자신도 어쩔사이 없이 45여년전 평양방어전투가 벌어졌던 사동의 그 잊지 못할 언덕으로 얼핏 갔다온것이였다. 인간의 생각이란 얼마나 자유분방한것인가!

《정치부장동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오?》

웃음겨운 얼굴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며 옛 부참모장이 묻는 말이었다. 나는 오늘 벌써 두번째로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받았을 때 보다는 대답하기가 한결 쉬웠다. 나는 지금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이거 참 우연한 일치라고 할가. 내 전사령장

을 달고 첫 전투에 참가한것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때 평양의 동남쪽 관문을 사수하는 사동방어전투였는데 오늘은 바로 수도를 지키는 한 초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으로 장령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구만!》

그는 잠시 흐려진듯싶던 낯색을 밝게 가지며 또다시 나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리고는 의자등받이에 걸린채로 있는 그 군복을 벗겨들더니 《왜 방안에 이려고 앉았소? 번쩍번쩍한걸 입고 나가 부대를 한바퀴 빙 돌아오질 않구!》하고 핀잔하며 내게다 그것을 입혀주느라 부산을 피웠다. 전에는 좀해 피우지 않던 부산이었다. 그도 자기의 행동이 전에없이 부산스러워진것을 느꼈던지 웃으며 말했다.

《내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때 애송이전사였던 부장동무의 어깨우에다 이렇게 누런 장령별을 엮어주신게 너무 기뻐서 그렇니다. 이걸... 우리 로병들모두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늙지 않았다는... 아직 최우등졸업일수 없다는... 허허.》

그도 웃고 나도 웃었다.

그렇게 한동안 웃고 떠들다가 그는 갔다. 그간 다음에도 나는 아까 눈앞을 얼핏 스쳤다가 사라진 그 환영을 지울수가 없어 오래동안 홀로 앉아있었다. 그때를 그 나날들을 되새겨보고싶어서였다...

주체39(1950)년 10월이었다.

우리 중대는 지금의 사동공원 오른편언덕 휴양동쪽으로 넘어가는 릉선을 차지하고있었다. 우리 중대의 릉접이 어느 중대였는지, 우리 중대가 맡은 방어구간이 얼마였는지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 또 알수가 없었다. 자기앞의 방위목표와 량옆의 전호에 얹드린 전우들과 기껏하여 분대장, 소대장밖에 알수 없었던 애송이전사였던것이다. 그나마 보위성직속 대렬보충련대(당시 595군부대로 불리웠다.)에서 전선에서 들어오는 전투부대에 편입된지 이틀밖에 안되는 풋내기병사였다.

후날 말하자면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펴 흐른 다음 지휘관으로서 내가 전사로 참가했던 그 평양방어전투에 대하여 당시의 정세자료들과 적아의 역량상태, 작전전술적기도들을 분석과 악하는 과정에 리해한데 의하면 그때 내가 얹드려있던 사동방어진지는 전선에서부터 뒤로 들어오면서 꼬리를 바투 물고 따라오는 적들을 걸음 걸음 견제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부대가 평양근처에 판 최초의 방어진지였다. 전선은 내가 생흙냄새 풍기는 전호력에 흥분으로

세차게 뛴뛰는 가슴을 맞대이고 엎드려있던 바로 그 시각 중화, 상원 계선에 머물러있었다.

더 큰 위협은 강동-평양간 대도로를 따라 동쪽으로부터 압축하여 들어오는 적들의 대집단이었다.

바로 그 시각에 적들의 선두부대는 대성산성을 몇키로미터 앞에 둔채 피에 주린 악마처럼 악착하게 달려들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중 적들의 동쪽으로부터의 돌연한 진출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당시로서는 적들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정황으로서 사실상 그것은 먼저 동서 량해안의 상륙부대들로 중부조선일대에 강력한 포위진을 형성하고 랑동강으로부터 올라오는 부대들과 함께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던 적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작전계획의 파산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와 같은것은 펍 후날에 알게 된 사실일뿐 그때에는 전사로서 이 모든것을 조금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은 명백히 알고있었다. 그것은 전호를 파고 엎드리자 옆의 전호로부터 날아넘어온 한장의 종이말이에 쓴 짙막한 구호에 집약되어있는 사상이었다.

《뒤에는 우리 수도 평양이 있다!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누가 써서 돌렸는지는 알수가 없었으나 공책에서 찢어낸 한장의 조그마한 종이에다 또박또박 박아쓴 그 글이 나에게 준 의미는 실로 큰 것이었다.

나는 그때 평양이 처음이었다. 모란봉이니 청류벽이니 대동문이니... 하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평양땅에 발을 들여놓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날아침에 내가 본 평양이라느것은 어디를 둘러보나 조국해방전쟁 석달동안에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말미암아 재더미로 화해버린데다 우리가 차지한 언덕으로 해서 저쪽 문수봉기슭에 다닥다닥 들어앉은 반토굴집들이 전부였다. 게다가 밤새 강행군으로 달려와 진지부터 굴설하다보니 평양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대동강 건너 본평양쪽은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것이었다. 해방직후 우리의 어린 마음을 그토록 끌던 수도의 모든것은 우리 뒤에 있었다.

아, 얼마나 와보고싶은 땅이었던가!

아이적에 마을앞으로 흐르는 넓지 않은 강물위에 소나무껍질이나 피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배를 띄워보내면서도 우리들의 동심을 실은 그 배가 평양으로 가기를 바라군하던 우리들이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입성하셨다는 소식이 산넘어 들너우 우리 고장까지 와닿았을 때에도 우리의 어린 마음은 대동강물결을 따라 평양으로 평양으로 흘렀다. 그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이 평양으로 떠나갔던 마을어른들이 보름

가까이 지난 뒤 김일성장군님께서 40만 평양시민들앞에서 개선연설을 하시었다는 소식과 함께 품에 소중히 모시고 온 젊디젊으신 장군님의 초상화를 마을앞 넓다란 공지에 내걸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것처럼 환하신 민족의 어버이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흘렀다.

그런데 이토록 와보고싶던 땅, 달려와 밟목이 시도록 밟아보고싶던 평양을 뒤에 두고 우리는 전호에 엎드려 원썬을 기다리고있었다. 원썬들이 이 시각 것처럼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바라보던 희망의 땅, 행복의 땅을 짓밟으려는 것이었다. 안된다! 그렇게는 안된다!

그날 그 전호속에서 내가 그려본 평양은 우리 마을어른들이 처음으로 보여준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이었다. 장군님의 영상은 곧 평양의 모습이였다. 수도 평양은 곧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나는 장군님을 지키기 위하여 총창을 꼬나들고 전호속에 엎드려있는 것이었다.

《여 저게 뭐야?》

뒤쪽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얼굴을 돌리니 낯설은 하사가 교통호로 해서 나의 전호로 꺾어드는 것이었다. 얼굴이 길죽한데다 어깨팍이며 넓적다리며 울근불근한 근육이 군복밖으로 느껴지리만큼 다부지게 생긴 사람인데 손이 아니라 조금 앞으로 내밀사한 길고 뽕죽하게 생긴 턱으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의아쩍은 생각으로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니 우리 진지에서 한 오륙십미터가량 떨어진 산기슭에 무슨 쌀마대 같은 것을 잔뜩 실은 한대의 마차가 기우뚱하니 넘어진 것이 보였다. 맨 옷쪽의 마대에서 흰것이 슬슬 새여내리고있었다. 퍼그나 오래 흘러내린 모양인지 아래쪽엔 흰것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쌀갈래!》

《쌀이요?》

《미시가루가?》

하사는 제말을 제가 부정하며 그냥 그쪽을 내려다보고섰다.

나도 쌀인지 미시가루인지 딱히 가려볼수가 없었다. 문득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시가루라면 한모자쯤 담아다 동무들과 나눠먹고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는 누가 말릴사이도 없이 움쭉 전호턱에 올라섰다가 그리로 내닫기 시작했다. 몇걸음 달렸을가 했는데 뒤쪽에서 다급한 고함소리가 물방으로 터졌다.

《야, 고수머리! 죽자고그래?!》

(내 머리털이 심한 곱슬머리인것을 보고 동무들은 첫날부터 나를 그렇게 불렀다.)

《돌아섯! 돌아서라!》

《빨리 돌아와, 빨리!》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으나 일단 내리닫기 시작한 걸음을 멈춰세울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내리달렸다.

달려가자마자 쓰고있던 모자를 벗어 새내리는 흰줄기아래에 대었다. 그러며 보니 모자안에 수북이 담겨지는것은 쌀이나 미시가루가 아니라 결정이 작고 반짝반짝 빛을 뿜는 흰 사랑가루였다. 기뻐서였던지 혹은 어처구니 없어서였던지 나는 그것을 받으며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사랑가루예요!》

앵-

고막을 찌는 아츠러운 소리를 들은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적 경폭격기의 시커먼 배배기가 파랗게 들린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손에 닿을듯 올려다보았다. 그놈은 나의 머리위를 지나 저쪽 상공으로 휩 날아가고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 눈길을 떨구어 진지쪽을 바라보았다. 이쪽에도 대고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전우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속에서 그자리에 었더라고 안타까이 손짓, 몸짓을 해보이는 하사의 모습이 눈속에 푹푹히 안겨왔다.

나는 사랑가루가 무드기 담긴 모자를 든채 옆드릴가 설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를 향하여 올리달기 시작했다. 몇걸음 달렸을가 했는데 귀전으로 앵-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지나가더니 눈앞에서 흰 섬광이 번쩍했다. 순간 몸이 허공 떠올랐다가 몇보쯤 뒤로 날려가 벌렁 자빠졌다. 몸을 일으키니 방금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잡관목이 서있던 자리에 시커먼 폭탄구멍이가 커다란 입을 향 벌리고있었다.

《폭탄구멍이로, 고수머리!》

하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폭발음을 누르며 귀속으로 또렷이 날아와 박혔다. 폭탄은 한구멍이에 두번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했지하는 생각과 함께 얼른 그 구멍이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눈으로 다음 옮겨있을 자리를 찾아보았다. 저앞 일어덥보 떨어진곳의 커다란 나무등걸 밑을 건주고 몸을 일으켰다. 그때에 쉬익-하는 소리가 등골을 훑더니 눈앞에서 화광이 펴났었다. 흙기둥이 일어서고 매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금방 전주었던 나무등걸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커먼 흙구멍이가 나타났다. 아까보다 더 커보였다. 그리로 달렸다.

《야, 었디라 이놈아!》

목갈린 다급한 웨침이 하늘을 찌는 비행기소리, 땅을 흔드는 굉장한 폭발음을 뚫고 날아왔다.

폭탄구멍이안에 납작 었드린채 얼굴을 들었다. 전호턱에 우뚝 상반신을 세우고 서서 손짓하는 하사의 모습이 보였다. 나와서 거리는 불과 20~30보쯤밖에 되어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저기까지 단번에!)

다시금 상반신을 드는데 푸루룩-하고 기총탄이 땅에 박히는 소리가 귀전을 때리며 나의 눈길이 전주어진곳으로 누런 먼지의 줄달음이 지나갔다.

그 줄달음이 내가 썼던 전호턱으로 곧추 그어지더니 전호턱우에 우뚝 서있던 하사가 뒤로 넘어지는 모양이 보였다.

(으-응?!)

나는 몸을 벌떡 일으키고 그리로 달렸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의 생명을 걱정하며 전호턱우에 몸을 우뚝 세우고 웨치다가 쓰러진 하사동지가 어찌되었을가 하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올리달렸다. 나의 생명같은건 나중에 없었다. 바위밑에 잠시 움츠리기도 하고 문득 멈춰서기도 하고 재빠르게 몸을 날리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것은 눈과 귀와 피부로 감각되는 위험앞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따름이었다.

전호속에서 뛰어드니 하사가 교통신호바닥에 주저앉은채 피가 뿜어나오는 넓적다리를 싸매다말고 나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왔구나!》

동통때문에 이지러진 목소리였다.

나의 눈앞에서 곧추 줄달음쳐가던 기총탄에 맞은 모양이었다. 모르는 눈으로 보기에다 중상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것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아바이!》

나는 그한테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분명 그렇게 소리쳐 불렀다. 기껏해야 나보다 일여덟살 우뚝 되어보이는 그를 무슨 까닭에 그렇게 불렀는지 지금도 나는 설명해낼 길이 없다. 그때 우리는 매 본대마다 거의 한명씩 속해있는 마흔살전후의 아이아버지들을 통칭 《아바이》로 불렀었다. 그러나 그는 기껏해야 스물네댓살밖에 안되었었다. 그런 그를 그렇게 부른데는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내대면서까지 나를 넘려하여준 그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죄스러운 감정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

그날 우리는 적들과의 몇차례의 접전끝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사동나무를 건넜다. 동쪽으로 먼저 달려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밤에 있는 전투총화에서 나는 지휘관으로부터 엄한 추궁을 받았다. 무엇이든 제손으로 만져보고 뜯어보고서야 직성이 풀리군하던 아이적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여 저질러진 엄중한 자유주의! 그때문에 한 전우를 중상입혀 후방병원으로 후송하게 만든것이였다.

《전쟁이 무슨 놀음마당인줄 아는가? 자기의 생명과 조국의 운명을 걸고 너죽고 나 사느냐, 아니면 나 죽고 너 사느냐 판가름하는 싸움마당이란 말이야. 글썽 죽자고 그런델 뛰어들어? 엉.》 이렇게 추궁을 시작한 중대장(그는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온 사람이었다.)은 시종 어마어마한 어조로 눈이 쑥 빠지도록 나를 닦아세우는 것이였다.

추궁을 받는동안 나는 울었다. 겉으로는 입을 꽁 앓아물고있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그리고 나자신으로서는 감당해낼수 없고 도무지 언어 화해낼수 없는 무서운 생각-내가 장군님 계시는 수도 평양을 지키는 싸움에 궤방을 놀았구나 하는 그 죄의식에 놀리어 울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나는 내 일생에 겪은 그 첫 전투를 잊지 못한다. 총한방 면바로 쏘보지 못했을까봐 자유주의적 행동으로 전우를 부상입힌 가슴아픈 후회와 함께 떠오르곤 하는 전투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때로부터 거의 3년동안 수없이 치른 모든 전투중에서도 제일 지워지지 않는 싸움의 하나로 남아있다. 아마도 일생의 첫 교훈과 결부된 싸움인 까닭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적충동이나 그 어떤 성격적약점으로부터 발로된 개별적군인들의 자유주의적행동이나 사소한 실수가 집단의 행동에 장애를 주거나 다른 전우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정도에 그치지만 전쟁행정에서는 그 후과가 자신과 다른 전우들의 피와 생명으로 보상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다는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가린봉에 큰 호수가 있고 팔복시같은 물고기들이 옥실거린다는 배군들의 말을 듣고 며칠동안에 걸치는 모험주의 행동으로 끝내 가린봉에 갔다오던것과 같은 말하자면 보고싶은것은 물불을 가림없이 꼭 가보고야 말며 먹고싶은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먹어보아야 직성이 풀리곤하던 끝은박이성격도 모난데는 더러 깎아내고 지내 고집스러운데는 두드려펴는식으로 군사집단행동에 어울리도록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을 위하여 위훈은 고사하고 조국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남을수조차 없다는것을 어렵게하게나마 깨달았다. 이를테면 군대복무의 첫 시험에서 나는 그와 같은 피의 교훈을 남긴채 락제를 한셈이었다. 입대하여 마을을 떠나기전에 좌상로인앞에서 치른 《뒤집바위시험》에서는 합격했지만 조국앞에 치른 실지 시험에서는 여지없이 패한것이였다.

그 교훈이 얼마나 큰 상처로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었던지 그후 조국해방전쟁 3년동안 나는 다시는 그런 자유주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몇번인가 그때처럼 적들의 무자비한 집중사격구역을 단신으로 돌파한적이 더러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때와 사정이 전혀 달랐다.

현대포지휘소대 경찰수로 전선동부에서 나가 싸우던 주체41(1952)년 가을이였다.

그때 군단사령부는 적들의 무차별 폭격으로 여지없이 타버린 장안사절간이 있던 골짜기에 위치하고있었고 우리 사단은 거기서 백리가량 내륙쪽으로 들어와 1052고지후면에 전방지휘소를 두고있었다. 내가 속한 76련대는 사단에서 40리가량 남쪽으로 내뻗어있는 960.5고지를 차지하고있었

는데 우리 현대직속 포병지휘감시소는 960.5고지에서 그리 멀지 않게 내다보이는 871고지 남쪽릉선, 뒤로는 보다 높은 871고지를 등지고 앞으로는 북한강 건너 적들의 《하모니카릉선》이 뻗히 바라보이는 포병학적산정에 위치하고있었다. 871고지우에는 우리 76련대 3대대가 자리잡고있었다.

련대의 임무는 코앞에 대치하고있는 칼릉선(적들이 하모니카바람구멍처럼 영구화점을 만들어놓은 다음부터는 《하모니카릉선》이라고 불렀다.)을 차지한 적들을 견제하며 북한강(지류)을 건너 1211고지쪽으로 진출하는 적들을 차단하는것이였다.

우리 현대포병지휘감시소의 임무는 《하모니카릉선》의 적들을 감시하여 련대와 사단에 제때에 보고하는것이였다.

우리앞에는 북한강지류가 흘렀는데 그 강이 우리와 적들을 갈라놓는 자연장애물로 되였다. 갈수기에는 무릎우까지만 바지를 걸어올리면 쉬이 건너갈수 있는 큰 개울만한 강이었지만 장마철이 되면 동해안의 강들이 대개 그러하듯 물밑으로 소대가리같은 바위돌이 막 굴러내리는 무서운 강으로 변해버리곤 하였다.

고향의 우리 집앞으로 흐르던 대동강상류와 마찬가지로 북한강상류도 물이 대단히 맑았다. 그러나 일단 불어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검붉은 황토빛으로 흐려지곤했다.

강은 우리가 틀고앉은 871고지와 좌측 릿점의 854.1고지사이의 골짜기로 해서 하청송과 상청송(지금의 청두리)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하면 강의 흐름과 반대로 된다. 강은 직동령밑에서 청두리로 해서 《하모니카릉선》아래로 흘러 아군과 적들사이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누르끼레한 썩바위고지뒤쪽에서 본강과 합류했다. 854.1고지와 871고지사이와 협곡을 적들은 《함정골》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854.1고지와 884고지사이의 등그스럼하게 경사진 벌을 《죽음의 벌》이라고 불렀다.

1211고지를 노리고 덤벼들던 적들이 바로 그 벌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곤했던것이다.

1211고지는 884고지 좌측에 우뚝 솟아있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211고지는 전선동부에서 그중 높은 봉우리로서 전선방어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고지였다.

우리 사단이 방어하는 고지들은 1211고지 우측 봉우리들로서 1211고지의 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었다.

한 40리가량 떨어져있는 우리 련대와 사단간의 련계는 통신으로 이어졌는데 적들의 포사격으로 선이 끊어져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연락병들을 띄웠다. 연락병으로는 주로 전화수들, 무선수들이 많이 동원되곤하였는데 인원이 딸릴 때에는 우리 포정찰에서도 나갔다. 포정찰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렸던 관계에서였던지 많은 경우

내가 뿔뿔했다. 그날도 정찰근무를 금방 끝마쳤는데 련대지휘소에서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전투복차림으로 지휘소에 올라가니 포병부련대장이 통나무로 체를 만든 키가 큰 《아썸(A-7)》무전기앞에서 땀을 빠질빠질 흘리며 파장을 맞추고 있는 상급무전수를 한창 닦아세우고있었다. 워낙 낡은 로씨야제무전기인데다 다이알을 돌리는 손동작으로 미루어보아 상급무전수도 어지간히 긴장한것 같았다. 둘러보니 전화기앞에서 포지휘소대장이 직접 전화직일을 서고있었다. 전화수들을 모두 선검열에 내보낸 모양이었다. 그가 나를 등지고 선채 상급무전수를 다돌려대고있는 부련대장에게 보고하라고 눈짓했다. 보고를 하자 부련대장이 돌아섰다.

《응, 왔구만!》

하더니 그는 욱하던 사람같이 않게 핵 돌아서 안쪽문을 열고 들어가버렸다. 잠시후 두툼한 문건봉투를 들고나온 그는 내앞에서 봉인상태를 확인한 다음 나에게 넘겨주면서 두시간이내로 사단 포병참모부에 넘기고 오라고 하였다.

임무를 받은 다음 복창하고 지휘소문을 나서면서 나는 문어구 벽에 걸려있는 지선봉과 보조수화기, 선통구리를 둘러메고 나왔다. 그때 우리는 가선수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련대로, 사단으로 연락을 갈 때면 의례히 권선기와 지선봉, 보조수화기를 가지고 떠나곤했다. 그리고는 통신선을 따라가다가 끊어진데를 발견하게 되면 이어놓고 가곤했다. 그것이 어느 련대, 어느 대대, 어느 중대의 선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어쨌든 아군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날은 전화선이 끊어진데가 몇군데 없었고 가는 도중 적기의 공습이나 포사격구역에도 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예정보다 조금 빨리 사단에 도착하였다. 문건봉투를 접수한 사단에서도 련대에서도 비슷하게 봉인땀을 붙인 문건을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직동령밑에 있는 중간련락소에 들렀다. 아니 들렀다기보다 중간련락소를 지키고있던 나이지숙한 아바이전사가 《여, 76련대 교수머리!》하고 나를 불러세웠던것이다.

련락임무며 지형정찰임무를 받고 수없이 오가는 사이에 안면을 익힌 아바이였다.

여기서 《중간련락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때 전선련대들은 사단과 련대, 대대 그리고 군단사령부를 잇는 중간지점들에 반토굴집을 지어놓고 나이지숙한 책임적인 아바이전사들을 파하여 련대, 대대, 사단으로 오가는 군인들의 편의를 돌봐주도록 하였다. 지금의 군인숙박소 비슷한것이였다. 말하자면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다가 자기네 관할 련대군인들이 들리면 식사보장도 해주고 겨울에는 자그마한 야장간을 차려놓고 사가리(얼음판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발에 덧

신고다니는 쇠판)도 베풀주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끊어진 통신선을 《너의것》, 《나의것》이 따로 없이 서로 이어주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련대》, 《너의 련대》라는 개념이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 75련대 중간련락소에서 76련대군인을 불러들여앉혀놓고 밥도 먹여주고 사가리도 갈아채워주는가 하면 74련대 군인이 76련대 중간련락소에 들러 그와 같은 편의를 보장받고 가곤했다. 그 누구의 지시나 혹은 명령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그렇다면 마음좋은 련락소 아바이전사들의 후한 인심때문에 베풀어진 호의였던가.

사실 그들은 한사람같이 마음 무던하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들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나이 많고 어리무던하고 동작들이 민첩하지 못한탓에 전투행동에 지장이 될가봐 그리로 돌려앉혀놓은 사람들이 아니였다. 반대로 남달리 책임성이 높고 자립성이 강하고 믿음직하기때문에 선발파견된 동무들이였다.

가끔 개별임무를 주어 홀로 파견할 일군들이나 사관들을 선발할 때마다 나는 그 아바이전사들을 생각하곤한다. 그리고 그들처럼 그 어떤 절해고도에 내놓아도 마음이 놓일 듬직하고 책임성있고 독자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동무들을 선발하려고 심사숙고한다.

그러나 우에서 말한것과 같은 호의는 결코 그들의 후한 인심때문에 베풀어진것이 아니였다. 너나할것없이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들과 생사를 판가름하며 싸운다는 그 계급적련대감으로부터 흘러나온 자연스러운 미덕이였다.

나를 불러앉힌 74련대 중간련락소아바이는 박달나무를 솜씨있게 깎아만든 밥주걱으로 김이 문문 나는 밥을 무드기 퍼담아주면서 체격 먹고가라고 했다. 조금 가면 우리 련대의 중간련락소가 있다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 명령받은 시간안으로 가야 한다고 우겼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할수 없이 주저앉았다. 그 아바이의 우격 다짐에 가까운 환대를 물리치기는 어려운것이였다. 아마도 자욱자욱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다니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관에서 그것도 적과 직접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제일선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처럼 억지에 가까운 우격다짐의 환대를 빚어냈는지도 모른다.

사실 직동령밑에 있는 그 중간련락소를 나서면 옥녀봉과 그옆 형제봉이 저만치 쳐다보이고 그 사이에 밋밋스름한 개활지대가 펼쳐져있는데 그 개활지대는 적들이 무시로 포탄을 쏘아대는 《쏘구역》이였다.

언제인가 바로 그 아바이와 《쏘구역》이라는 군사술어를 놓고 열이 올라서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난다. 그날도 그 아바이네 중간련락소앞에 막 도착했는데 적들의 포사격이 급시 시작되였다. 그리 넓지 않은 마당 한복판에 길고 끝은 나무꼬

쟁이를 세워 만든 구식 해시계를 들여다보고 섰던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혼자말처럼 《개놈들! 또 싸대는군.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저게다 설사만난놈처럼 저렇게 싸버리군한다니까.》하고 귀먹은 욕지거리를 해댔다. 아버지의 걸쭉한 욕을 듣고 섰던 나는 《저건 <빼소사격구역>이거든요.》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포정찰수로서 새로 배운 군사술어들을 한번 써보고싶은 욕망때문에 한마디 했다. 그러자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던 아버지가 《빼소라니?》하고 힘들게 되받아외우고나서 《쏘구역이 아니구?》하고 반문했다.

아하, 이 아버지가 쏘구역이라니까 포탄을 쏘아대는 구역이라서 쏘구역이라고 하는줄로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나는 신이 나서 알고있는 발은 지식을 다 쏟아부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쏘구역이라는것은 로어로 《CO》라는 말로서 집중사격구역이라는 말이며 그앞에 《빼》라는 문자를 하나 덧붙이면 대집중사격구역이라는 말이 된다는것 그리고 《빼쵸》라는것은 부동조애사격구역 즉 움직이는것을 불허하는 사격구역을 말하는데 포사격제원을 부를 때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소나무 하나》, 《사과나무 둘》 이렇게 부르며 그반대의 《엔쵸》 즉 이동조애사격구역에 대한 제원을 부를 때에는 움직인다는 뜻에서 《곰 하나》, 《여우 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 등... 한참동안 신이 나서 설명하는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다 듣고난 아버지는 《내 오늘 76련대 고수머리한테서 하나 배웠다!》하고 나를 칭찬하더니 《어쨌든 포탄을 쏘기때문에 쏘구역인건 사실이지?》하고 자기 고집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았던지 《그러니 임자도련락을 많이 다니는데 각별히 몸주의하게.》하고 훈수하는것으로 젊을것한테서 한식경이나 강의를 받으며 깎이운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것이였다.

아니, 아니다.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의 손상된 체면을 세우기 위한 훈수가 아니였다.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걱정하여주는, 하여 이것이 부디 마지막상면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준 진실하고 뜨거운 충고였다.

참으로 한발 내짚으면 수시로 포탄이 날아와터지는 《쏘구역》천지인데 금방 웃으며 헤여진 전우를 꼭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 먹여주는 이 밥이 마지막밥이 아니된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사실 그때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난 전우와 헤여지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전우들을 뒤에 두고 싸움터로 떠나가면서 이것이 혹시 그와의 마지막리별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조차 자기자신이 잘못되므로 그들과의 마지막 상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은 드물었다. 아니, 없었다. 그 누구나 전우들이 잘못될가봐 그래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될가봐 속으로 겁내며 걱정하곤했다. 말하자면 자기 생명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우들의 생명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을 조이며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하는것이였다.

겁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두고 겁을 낸다면 참다운 군인이 아니다. 전우들의 생명을 두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고 겁을 내는 군인만이 참다운 군인이며 또한 참다운 인간인것이다. 새삼스러운 평가같지만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우리는 동지들 호상간, 군관들과 병사들, 사관들과 병사들 사이에 언쟁이나 구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몰랐다. 그런 말조차 없었다. 그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로 되였었다.

무엇때문이였겠는가?

언젠가 나와 사업상의 련계를 가지고있던 어느 한 문필가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한마디로는 그 질문에 대답할수 없고 해서 내가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들었던 전투일화중에서 우리 련대 린접에 위치한 옥녀봉과 형제봉에 깃든 전투일화들을 이야기해주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었다. 지금도 그 전투일화들을 공개하는 편이 훨씬 더 웅변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형봉과 동생봉 그리고 옥녀봉... 그 세고지들은 884고지 후면, 1211고지 측면에 나란히 솟아있었는데 크기는 어슷비슷하고 모양들은 같지 않은 그 고지들엔 그때까지만도 이름이 없었다. 군용지도들에도 군사전술상의 이름으로만 표기되어있을뿐이였다. 바로 그런 무명의 고지들에 그와 같은 이름들이 붙게 된데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있다.

진지방어전때의 일이었다.

1211고지와 이웃하고있는 형봉과 동생봉(아직은 이름이 없을 때였다.)에서는 적들의 파장식공격으로부터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피어린 싸움이 낮과 밤을 이어 계속되였다. 싸움은 가렬하였다. 하나의 고지라도 더 빼앗아내려고 적들은 시체로 산을 쌓으며 필사적으로 덤벼들었고 한치의 땅이라도 적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붉은 피로 고지를 물들이며 용감하게 싸웠다. 중기와 경기, 자동보총과 야식보총... 불을 뿜을수 있는 모든 총구들이 이리떼마냥 아득바득 기여드는 원수들을 향하여 복수의 총탄을 날렸다.

전사는 자기의 총소리보다 옆에서 들려오는 전우들의 총성에 더 마음쓰며 싸웠다. 그러다가 울부짖던 그 총소리가 문득 끊어지면 《여, 중기, 뭘해? 살았어? 죽었어?》하고 원쑤를 향해 총을 겨눠둔채 소리친다. 대답이 없다. 총소리도 없다. 고개를 돌려본다. 전우가 차지했던 전호엔 파편이 금시 파헤친 시뻘건 좌지뻘... 전우는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중기! 어디 갔어? 중기!》

있는 힘껏 소리친다.

그러자 전호밑 무드기 싸인 흙무지가 움썰하며 그밑에서 잔등이 솟아나고 뒤이어 고개가 쳐들린다. 그가 린접의 전우-중기사수이다!

《살았구나! 살았어!》

조국앞에 전사가 받은 방어구역 8미터, 아니, 전투의 하루가 흐르고 사흘이 지나자 중대의 반수이상인 줄어들어 어제부터는 16미터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 16미터를 맡아줄 전우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가 잘못되었더라면... 그 16미터는 전사의 것이 된다. 그 16미터의 절반은 저쪽 사수가 맡는다고 해도 8미터는... 그러면 전사의 방어구역은 벌써 24미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없다. 전우는 살아있는 것이다. 금시 눈곱이 핑갓는다.

《어딜... 상하지 않았어?》

기쁨에 겨워, 동시에 흑시? 하는 겁을 안고 소리쳤다.

중기사수는 군모우에, 어깨우에, 옷설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고 다리를 몇번 들어올려보더니 이쪽을 향해 흰이를 드러내며 벌썬 웃는다. 살았다는 소리다. 어디 하나 상한데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 됐다, 쏘자. 전우여 원쑤를 향하여!

또다시 귀에 익은 총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10분, 30분... 한시간이 흐른다. 울부짖는 총성, 총탄의 휘파람소리, 목갈린 웨침이...

이번에는 우측이 조용해졌다.

《철국이 뭘해? 뭘해?》

대답이 없다.

《철국이, 왜 총을 안쏘는거야?》

그래도 대답이 없다.

조문우에 붙잡아세운 적을 쏘아눕히고 얼핏 돌아본다.

전호흉장에 얼굴을 묻은채 쓰러진 전우의 모습이 보인다.

《철국동무! 철국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총을 놓고 그에게로 기여간다. 안아서 둘러본다. 얼굴은 이지러졌다. 입은 꼭 앙다물어져있다. 눈은 곧추 앞을 쏘아본다. 손은 총대를 꼭 틀어잡은채 벌써 경직되기 시작했다. 가슴앞이 화락하니 젖었다. 전호터도 거뭇거뭇 젖었다. 분노에 젖은 눈길을 들어 전호흉장너머를 쏘아본다.

원쑤들이 한놈, 두놈, 세놈... 대가리를 쳐들고 기여오른다. 뺨뺨이 서서 오는놈도 있다. 저놈들이...저놈들을... 이 개놈들, 우리가 다 죽은줄 알아!

이제는 16미터만이 아니다. 전우의 뒀까지 32미터이다. 저쪽 린접의 사수도 잘못되지 오래다. 그 옆의 사수도... 그들의 뒀까지 두굽, 세굽, 네굽을 맡아야 한다.

평소에 그들을 더 아껴주지 못한 생각이 느닷없이 가슴을 친다. 그들앞으로 기여드는 적들부터 먼저 씹눌혀주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 그랬더라면... 정말 그랬더라면...

눈물을 흘칠새가 없다. 적은 벌써 허리를 꼴끗이 펴고 고향을 지르며 달려들고있다.

《개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전우가 옆드렸던 전호, 전우의 피가 흥건히 배인 전호에 옆드려 방아쇠를 당긴다. 노호한 총소리, 땅에 납작 엎드리는 적들의 물결이 보인다. ...

새벽녘 적들의 공격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 고지우엔 전사 혼자 남았다.

그러나 린접고지쪽에선 아직도 총성이 그칠줄을 몰랐다.

저기서도 고지를 내어주지 않았구나?

가슴이 든든해졌다.

만약 저 고지를 적들에게 빼온다면 전사가 홀로 지켜선 이 고지의 운명도 시간문제로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고지의 주인이 된 전사는 어제아침까지만 해도 고지의 지휘관이었던 자기의 중대장이 안았던 그 걱정을 안는 것이었다. 적들과 총구를 맞대고 싸우는 전선에서 전사는 옆의 전사를, 분대장은 옆의 분대의 운명을, 소대장은 린접 소대의 능력을, 중대장은 린접중대의 전투력을 두고 못내 걱정하는 것이었다. 왜냐면 많은 경우 그 린접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기때문이다.

전사는 간단없이 들려오는 옆고지의 총소리를 가슴을 조이며 듣고있었다. 그들(총소리로 미루어 거기도 한두사람이 남은것이 확실했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직 본 일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चे나름으로 그려보며 속으로만 응원사격을 해줄 뿐이었다.

《동무들! 기운을 놓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옆엔... 우리가 있다! 아침까지만... 아침까지만... 그러면 뒤에서 동무들이 올 것이다.》

소리없는 그 마음의 격려가 가닿았는지 총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새벽공기를 찢었다. 그러다가 문득 끊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전사는 저도 모르는 사이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숨을 죽였다. 귀를 강구었다. 눈뿌리가 아프도록 눈을 힘껏 부릅뜨고 어둠에 덮인 익측을 쏘아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흑시?!

별안간 그쪽에서 전선의 새벽녘이라고 믿기 어려울만치 교묘한 대기를 흔들며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

듣기 좋은 남성중음이었다.

첫순간엔... 저기서도 고지를 끝내 지켜냈구나!
하는 눈물겨운 환희같은것이, 다음순간엔... 끝까지 고지를 지켜내고 전호바닥에 썸뽕종게 퍼더 버리고앉아 무기소제를 하며 노래가락을 뽑고있을 이름모를 전우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그 다음엔... 어디선가 많이 들은것 같은 그 음성에 주의가 쏠렸다.

그는 숨을 딱 죽이고 서서 점점 더 높아지는, 높아질수록 땡땡 어무진 소리가 뿔뿔어나오는 노래소리에 온몸의 신경을 다 모았다. 그러다가 전도 모르는 사이 무릎을 탁 쳤다.

《저건... 저건... 내 동생이다. 제남이의 노래다!》

그리고는 그쪽에 대고 힘껏 소리쳤다.

《여, 동무! 동무! 제남이 안야?》

목갈린 웨침이 검푸릿한 새벽어둠을 흔들며 찌렁찌렁 울려갔다. 그래도 못들었는지 그쪽에선 그냥 노래를 뽑아댄다.

...

아-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

아이적 항아리에 입을 대고 부르던 노래소리처럼 웅글면서도 티없이 맑은 목소리, 또박또박 가사를 씹으면서도 건드러지게 불러대는 그 노래소리는 분명 동생 제남의 것이었다. 전쟁전 풍년든 논벌에 나가 해종일 벼가을을 하고서는 휘영청 밝은달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달빛에 번쩍거리는 낫을 뒤꿈무늬에 차고 저만치 앞서 걸으며 부르던 동생의 노래소씨였다.

그것이 더 말할나위없이 확실해지자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것을 어쩔수 없어 그는 더욱 높은 소리로 그를 불렀다.

《제남아! 나다. 너의 형이다. 형님이다!》

순간 노래소리가 딱 멎었다.

그러더니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누구라구요?!》하는 소리가 건너왔다. 그 소리가 채 찾아들기도전에 그는 다시 소리쳤다.

《너의 형, 형님이다!》

저쪽고지에서 우렁우렁 마쳐오는 메아리를 누르며 놀람에 젖은 웨침이 따라왔다.

《아니 형님!》

그러더니 아직 검푸릿한 어둠속에서 바위같은 것이 고지 이편아래로 내리구르는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쪽 고지와 이쪽 고지를 잇는 안부있는데로 점점 가까와오고있었다.

(아니, 저애가 여기로 건너오는게 아니야?)

분명했다. 분명 사람이 내리달리는 소리였다.

(저너석이... 저너석이...)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야, 서라! 서라!》

했으나 소리는 그냥 내리굴러온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전투임무를 잊은것 같다. 안된다. 고지를 비워두고 어디로 오는가?

그는 총을 추켜들고 방아쇠를 당겼다.

땅!

내리구을던 소리가 멎었다.

《제남아, 이자식아. 고지를 두고 어디로 오는 거야?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 고지를 지켜야지, 고지를!!...》

그러는새 무름무름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고지로 치달아오르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마음으로만 보았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어둠이 짙었다.

그는 동생을 향하여 목이 갈리도록 웨쳤다.

《제남아! 고지를 지킨 다음 우리 만나자! 그때 만나서 실컷 얘길 나누자꾸나. 뒤에서 응원을 올 때까지 한발자국도 고지를 떠나선 안돼!》

형은 그러며 울었다. 눈물은 그의 볼을 구을러 그의 흙먼지 오른 군복앞섶을 점점이 적셨다. ...

이리하여 형과 동생은 응원부대가 나올 때까지 서로 고무해주고 격려해주며 쌍둥이처럼 나란히 솟은 두개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다음부터 전사들은 그 두개의 고지에다 《형제봉》이라는 다정한 이름을 달아주었다.

옥너봉이라는 이름은 이와 조금 다른 일화를 가지고있지만 그 일화말에 깔린 사상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어느날 몇명의 부상병들을 고지로부터 전방군의 소로 후송해가던 간호원이 바로 그 봉우리밑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적들의 소집단과 조우하게 되었다. 때는 어슬어슬한 저녁무렵이었는데 이쪽을 먼저 알아본 적들이 총구를 들이대며 손들라고 고함쳤다. 꼼짝못하고 붙잡히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간호원은 뒤에 데리고오는 부상병들의 운명을 생각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적들의 손에다 고스란히 넘겨줄수는 없었다.

그는 방금전에 전우의 부상처를 소독하고나서 그냥 손에 들고오던 마키롬(빨간약)병을 번쩍 쳐들며 맞받아 소리쳤다.

《자, 이놈들아, 수류탄이다. 반항하면 다 죽는다. 살아선 못간다. 살겠거든 총을 던져!》

간호원의 어조가 얼마나 단호하고 그의 행동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거무스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쳐들린 마키롬병을 공격용수류탄으로 믿어버린 적들은 황황히 총을 내던지고 손들을 쳐들었다. 죽고싶은놈은 한놈도 없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한개 분대에 맞먹는 적들을 사로잡고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그 일화가 있던 다음부터 그 무명고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옥너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무엇이 조그만 처녀의 가슴속에 그런 지혜, 그런 용단을 불러주었겠는가? 자기만을 위해서였다 라면 아마도 그런 지혜, 그런 대담한 결심을 내리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바로 뒤에 달고가는 전우들의 생명을 위하는 뜨거운 전우애, 동지애가 그런 용기와 담력과 슬기를 준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내가 본 전사, 내가 들은 유명무명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이밖에도 수없이 많고 많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필력이 딸리고 지면이 모자란다.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그 문필가동무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전우의 생명이자 나의 생명이며 전우가 없으면 나도 없고 전우가 살아야 나도 살수 있다는 바로 그 의식이 동지를 자기의 살붙이보다 더 아끼는, 아니 아니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며 존중하는 그토록 숭고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불러낸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정신, 그처럼 검박하고 생동한 의식으로 전사들을 무장시키는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면 동지의 몸에 감히 손을 대는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수 없지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퍼그나 긴 이야기에 담겨진 뜻을 한두마디로 압축해내는 솜씨에 어지간히 놀랐다.

이야기가 탄뎀으로 너무 흐른것 같다.

...나를 붙들어 앉혀놓고 뜨끈뜨끈한 밥을 량껏 먹여주곤한 아버이는 떠나려고 움쭉 일어서는 나의 팔을 붙잡고 바지호주머니를 벌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밥먹는 사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땀은 콩을 내 주머니에다 쏟아넣어줄 잡도리를 했다. 일없다고 사양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일단 주겠다고 생각한 이상 주고야마는 전선식 우격다짐이 또 작용한것이였다.

《뭘니뭘니해도 군대주머니엔 먹을게 많아야 돼. 알게 뭐가? 이제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겨 어떤 무인지경에 혼자 가있게 될지... 그때도 주머니에 이런 먹을것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참 그럴듯한 말이어서 주머니를 벌리고선채 말의 뜻을 음미해보던 나는 별안간 사타구니가 파가와나는 바람에 불판우에 올라선놈처럼 화닥닥 뛰었다. 식지 않은 콩을 주머니에 쏟아넣은것이였다.

《아 파가워, 아 파가, 아 파가...》

너무도 견디기 바빠서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바지를 벗어! 벗으라니까, 어서!》

아버이가 급해서 지르는 소리였다.

혀띠를 와락와락 풀어버리고 바지를 꼭 내리벗었다. 흰 면내의가 드러났다. 순간 어째선지 먼구스러운 생각이 들어 아버이를 외면하며 돌아섰다.

《잡은건 일없나?》

아버이가 걱정스레 다가서며 묻는 말이였다.

《잡은거라니요?!》

말뜻을 인차 가늠할수 없어 외면해 선채로 돌아보며 물었다.

《거시기말이네... 가운데 달린거...》

그제사 묻는 말뜻을 깨달은 나는 저도 모르게 씩 웃으며 통명스레 대답했다.

《일없어요... 체...》

《그럼 됐네. 난 또 임자 아들을 영영 못보게 만드는가부다 했지, 영이... 허허허.》

《하하하.》

그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웃으면서 그는 내 주머니속의 콩을 다시 털어 내어 양철판에 담더니 마당에 들고나가 키질하듯 훌훌 추기 시작했다. 빨리 식혀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보내려는것이였다.

서느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봄인지라 조금 안있어 콩은 다 식었다.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나서 나는 중간연락소를 떠났다.

아버이가 마당끝까지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고마운 아버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을 파고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두번세번 돌아보며 한 백미터가량 왔는데 머리우에서 앵- 하는 소리가 날아들더니 뒤쪽에서 짹하고 굉장한 폭발소리가 일어났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이번에는 바로 옆, 좀더 가까운데서 똑같은 폭발음이 일어나며 거센 먼지바람이 옆으로부터 나의 몸을 힘껏 후려갈겼다.

적들의 대집중사격이 시작된것이였다

얼마전에 아버지한테 열심히 설명해준것처럼 적들의 집중사격구역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다 대고 마구 쏘아대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다 대고 무작정 갈겨대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나 저거나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두 경우에 쏘아버리는 포탄의 량과 시간이 항상 똑같은것이였다. 그것은 자본주의나라 고용군대의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단적실례의 하나였다. 그놈들은 하루 썩버려야할 포탄량이 있는데 그것만 썩버리면 하루종일 움막에 들어박혀 낮잠을 자건 도박을 하건 상관하는놈이 없다는것이였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적들의 《쏘구역》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는 바로 돈에 팔린 군대의 그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있는데도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포탄이 나를 딱 견주고 쏘아대는 포탄이 아니며 그보다는 그 포탄을 썩대는 적들이 그 포탄이 살상하게 될 아군의 손실에는 그리 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다는것을 전사들은 그 누구의 강의가 없이도 잘 알

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후자의것, 즉 임의의 시간에 싸대는 집중사격이었다. 하지만 일단 그 구역에 걸려든 이상 규정된 량의 포탄이 다 날아올 때까지 용이하게 그것들을 피하던지 또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든지 해야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락문건이 든 군복앞섶을 짝 누르고 서서 앞과 뒤를 번갈아보았다.

앞은 아직 멀었다. 뒤는 백메터가 되나마나했다. 그런데도 어찌선지 뒤로 돌아가고싶지 않았다. 앞으로 그냥 내달고싶었다. 뒤로 돌아서면 30분이라는 시간을 잃는다는 생각이 든것이었다. 그러면 임무받은 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는 느낌이 돌아서면 꼭 잘못될것만 같고 앞으로 냅다 뛰면 반드시 살것 같은 생각을 불러주었다. 그래 들구뿔 잡도리를 하는데 뒤에서 다급한 고함소리가 날아왔다.

《고수머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섰.》

아바이의 그 목소리가 오히려 나의 행동을 충동질해주어 나는 불쑥 앞으로 내달기 시작했다.

《야, 어찌자고 그래?!》

다급하게 울리는 웨침소리를 뒤에 달고 그냥 뛰었다.

폭발소리는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멀게 가깝게 련속 일어났다. 흙기둥이 누렇게 떠올랐다가 흙비처럼 후두두 떨어져내렸다. 누런 먼지폭풍이 나의 몸을 휩싸고 이리저리 잡아흔들었다. 그래도 그냥 달렸다. 얼마나 뛰었는지...

발잔등이 띠금하는 아픔을 느꼈으나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생각- 빨리 앞으로 앞으로 내달아 이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흙기둥이 앞을 가리워 돌부리, 나무등결에 몇번 걸채였으나 요행 넘어지지는 않았다. 한동안 정신없이 달려서야 쏘구역을 벗어나 저편 산기슭에 가닿았다. 눈앞을 가리던 흙기둥, 흙버섯, 고막을 때리던 폭발음, 온몸을 잡아흔들던 폭풍, 회오리... 그 모든것은 뒤에 있었다. 나는 그 구역을 죽지 않고 벗어난것이었다.

안도의 숨을 후- 내쉬던 나는 발잔등이 몹시 아파나는것을 감촉하였다. 아까 거기가 띠금하던 생각이 났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손바닥만한 파편조각이 군화끈을 든든히 조여신은 나의 발잔등에 비스듬히 꽂혀있었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잡아뽑았다.

첫순간 시원한 느낌같은것이 발잔등으로부터 다리로 쪽 흘러오더니 또다시 띠금하는 아픔과 함께 붉은 피줄기가 올리뻗쳤다.

얼결에 그것을 덥석 잡으며 주저앉았다. 손가락짚으로 붉은 피가 천천히 스며여올랐다. 이렇게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휴대용개인붕대를 꺼내어 상처를 짝 싸맸다. 순식간에 붕대가 뻗겉게 젖었다. 면내의 아래자락을 짝 찢어내어 발목을 짝 졸라맸다. 조금 안있어 졸라맨 아래부

위가 거밋거밋 색이 죽으면서 붕대가 더이상 젖어들지 않았다.

일어서 부대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걸기가 쎄 힘들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다. 그러다가 봉우리를 에워싸며 갈라진 두갈래의 길앞에서 조금 주춤거렸다. 좌측으로 가면 전방군의소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리로 가서는 안되었다. 우선 명령받은 시간을 지켜낼수가 없었고 다음으로는 고만한 부상때문에 군의소신세를 지고싶지 않았다. 군의소는 물론 동무들도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우측길로 잡아들어 련대가 차지한 960.5고지 후면에 이르렀는데 뜻밖에도 소대세포위원장인 동철훈아바이가 검불깃한 얼굴에 잔뜩 노기를 머금고 서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나를 보자 된욕부터 퍼붓는것이였다.

《이놈의 녀석! 죽지 못해 그런 사지판에 뛰어들어? 아예 죽지 왜 살아왔어? 엉. 왜?...》

45년도 당원으로 우리들한테는 아버지벌이나 되는 그는 나이로 보나 당생활년한으로 보나 소대의 좌상이였다.

철없는 나이에 전쟁판에 뛰어든 우리 애송이병사들을 각별히 아껴주는 사람이였는데 우리들에 대한 북받치는 애정과 사랑을 《아이놈의 녀석》이라는 악의없는 욕말로 표현하군했다.

간혹 애기어머니들이 업고가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눈을 부라리며 욕하던 나머지 통통 살이 오른 볼파귀를 꼬집어 끝내 울려놓고야마는 사람들을 가끔 볼수 있는데 우리 세포위원장아바이의 그 욕지거리를 그에다 비유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에게 던진 《아이놈의 녀석》이란 욕말의 경우는 그와 좀 달랐다. 중간연락소아바이한테서 내가 쏘구역을 그냥 냅다 달려갔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듣고는 문자 그대로 성이 폭두까지 치밀어 고지아래로 달려내려온 그였던것이다.

(후에 들었지만 그날 내가 쏘구역을 빠져나가는 모양을 중간연락소아바이들이 모두 나와서서 가슴을 조이며 보았다고 했다.)

한바탕 욕사발을 퍼붓고나서 발목을 지혈한지며 상처를 싸맨지며 잔잔히 살펴보고난 그는 다시한번 나를 흘깃 쏘아보더니 말없이 돌아서 내앞에 잔등을 내대며 엉거주춤 앉았다. 업히라는 것이였다.

나는 싫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순순히 업혔다. 한두마디 욕설을 내뱉고는 말없이 쏘아보기만 하는 그 엄한 눈총에 주눅이 든것이였다.

나를 업고 고지로 오르면서 그는 코를 꿰지 않은 망아지같은 녀석이라느니, 제 어머니 속도 꽤나 태웠을 불망나니같은 자식이라느니, 아주 제대시켜버리고말겠다느니... 하고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넘적한 등에 업힌채 잠자코 그 욕을 듣기만 했다. 그러다가 어찌선지 등에 업힌 나를 뒤돌아보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 젖어드느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불이 젖어있었던것이다.

지금껏 나를 욕하면서 자신은 울고있었던 말인가?

대번에 눈시울이 후끈해왔다.

나는 가끔 그 눈물의 의미를 조용히 생각해볼곤 한다. 그러면 동철훈아바이의 심중이 어느 정도 이해되곤한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그 눈물의 뜻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다. 지금도 다 리해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도 그의 년세에 이르고 지금은 그때 그의 년세보다 켜 나이를 더 먹고보니 그 눈물의 의미가 뜨겁게 안겨온다.

그날 그는 등에 업혀가는 갓 열일곱, 아직은 물과 불이 무서운줄도, 제 한목숨 아까운줄도 모르는 철부지들마저 싸움판에 내세워야 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가혹성을 생각하며 울었으리라. 또한 것처럼 철없는 《아이놈의 녀석》들의 머리우에다 몇백키로짜리 포탄을 마구 퍼부어대는 미국놈들이 미워서 울었으리라.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직후의 일이지만 포성이 멎은 그해 가을 평양에 있는 예술단에서 우리 련대가 차지한 960.5고지로 위문공연을 운적이 있었는데 그날 내가 죽을번했던 그 쏘구역(그때는 이미 쏘구역이 아니었지만)을 지날 때 장판지까지 푹푹 빠지는 누린 먼지가루를 밟으며 주로 젊은 녀성들로 무어진 소련대 배우들모두가 울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포탄을 들부었으면 이렇게 까지 되었으랴 하는 억이 막힌 생각과 함께 그런 불속을 제 한목숨 아까운줄 모르고 뛰어다녔을 용감한 전사들을 생각하며 운것이였다. ...

고지에 다 오르자 세포위원장아바이는 것처럼 물이 귀한 고지였지만 맑은 물 반소랭이가량 떠다 손수 내 얼굴을 씻어주고나서 식당으로 데리

고갔다. 된욕을 당할가봐 중간련락소에서 밥을 먹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식탁앞에 앉아 금방 수저를 들었는데 젊은 소대장이 쑥 들어오더니 엄한 눈길로 나를 한동안 내려다보는것이였다.

나는 밥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섰다.

《왜 쏘구역을 그냥 달려왔소? 끝난 다음 올것이지.》

눈초리와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그는 가볍게 나를 나무람했다.

그러자 대신 아바이가 대답했다.

《그러면 명령받은 시간내에 올수가 없어 그랬답니다.》

아바이의 어조에는 엄한 아버지앞에서 아이들의 잘못을 변호해나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만 느낄수 있는 그런것이 있었다.

《세포위원장동무, 그 동물 그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단단히 기갈을 시켜야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소대장은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자 아바이는 내가 밥을 먹는동안 나의 발잔등에 난 상처를 조심조심 풀어보고 처치해주었다

그의 지성이 목구멍을 짹 메워서 나는 밥숟가락을 든채 소리없이 울었다.

지금도 그 아바이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 그후에도 줄곧 나를 쫓아다니며 짜증이 나도록 꾸짖기도 하고 잔소리도 해준군하던 아바이였다. 그 잔소리, 그 꾸짖음 밑에 깔린 진정을 나는 입당할 때에야 알았다. 53년 5월 나는 사단민청회의에서 입당보증심의를 받았다. 그다음 당시 정전을 앞두고 귀중한 인명손실을 극력 없애려고 인원들을 함부로 파견하지 말데 대한 상급참모부의 지시(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었던것이다.)로 정전이 될 때까지 세포 및 사단 당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고있다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가사

바다와 청춘

오재신

노을비긴 바다여 너는 누굴 닮았느냐
바다에게 물으니 바다는 대답했네
꽃나이 청춘이여 내 너를 닮아서
너처럼 언제나 아름답다고

파도치는 바다여 너는 누굴 닮았느냐
바다에게 물으니 바다는 대답했네

억세인 청춘이여 내 너를 닮아서
너처럼 언제나 용맹하다고

설레이는 바다여 너는 누굴 닮았느냐
바다에게 물으니 바다는 대답했네
열정넘친 청춘이여 내 너를 닮아서
너처럼 언제나 굴함없다고

돌아올 권리

장기성

그는 서유럽의 이름있는 R 종합대학교에서 동양 문학강의를 전문하는 교수이며 또한 소설가였다.

이름은 조항봉, 나이는 46살.

그는 서유럽에서 나서자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고있지만 우리 말을 능하게 했고 우리 문학에 대한 조예도 어지간히 깊었다.

비록 해외에 살지만 민족의 넋을 간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이 알렸다.

그는 우리의 주체문학실상을 연구파악하려고 조국을 방문했는데 돌아가기에 앞서 아호비령 심산속의 소재령밀 도화동에 꼭 가보고 가야겠다고 거듭 제기했다고 한다.

그곳이 나의 고향이어서 내가 그의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고려호텔을 떠난 승용차는 평양-원산간 도로를 따라 질풍같이 달리었다. 이 도로가 뻗기전의 도화동은 철길에서 수백리 떨어진 심심산골이어서 한번 찾아가기가 험치 않았지만 지금은 이 길로 한시간반쯤 달리면 가닿을수 있는곳이었다.

《내가 조국을 향해 떠나는 날 아침에 저의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채 자기 친구되는분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중부조선의 소재령밀 도화동이라는 데를 꼭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록화카세트를 세개나 주면서 도화동 전경과 드레소, 범바위, 마을 가운데 동산우의 몇백년목은 들메나무, 동구의 아름다리 느리나무, 훌쩍골, 가사산 소재령등을 촬영해오며 박원식이라는분과 쌍가매라는 녀인의 생사와 사는 형편을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호텔앞에서 나와 수인사를 나눈후 그가 한 말이었다.

나는 대뜸 이 사람 아버지의 친구되는 사람이 우리 고향내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물었다.

《그 친구되는분의 성함이 무엇이게요?》

《글쎄 그건 나도...》

그는 아버지가 친구의 부탁을 전할 때 비행기 시간이 박두한 때여서 그 사람에게 대해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도화동이란 동리이름은 아마도 복숭아꽃이 많은 고장이라는 의미겠지요?》

《여, 그렇지요. 매집 율타리안에 네다섯그루의 큰 복숭아나무가 있고 앞등성이에는 복숭아과원

이 몇정보 펼쳐지고... 한데 내 어릴 때만 해도 그닥 많지 못했습니다. 띠엮띠엮 널려있는 초가이영의 몇집 울안에 한두그루가 고작이었지요. 어쨌든 아득한 옛날 그 누군가 동리이름을 지을 때 그 복숭아나무가 고향의 자랑거리로 상징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복숭아동리가 되고 천지개벽을 이루었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에 앞질러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은연중 긍지감을 느끼며 손님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는 차창밖을 주의깊게 여겨보았다. 모내기가 한창인 전야와 신록이 짙어가는 산밭들, 흰 염소 때 풀 뜯으며 흐르는 자드락, 처마를 맞대고 줄지어 서있는 농촌문화살림집들... 그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걸탐스럽게 보고 또 본다. 왜 안그러랴.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자신이 조선사람임을 자각하며 조국을 알기 위해 애써온 지성인인데...

그가 하도 주변풍경에 심취되어있어 나역시 침묵을 지켰다.

《박원식, 쌍가매.》 나는 그가 알고싶어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뇌여보았다.

박원식-그 이름은 대뜸 귀에 익었다. 박원식은 내 고향의 자랑인 공화국영웅이고 모교에 그의 반신상이 세워져있기때문이다. 그는 읍에 나가 고급중학교를 다니다가 조국해방전쟁이 일자 군대에 탄원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는 금강도하전투에서 20살꽃나이로 희생되었지만 온 나라가 아는 영웅으로 영생하는것이다. 내가 네살때 그가 전선에 나가 전사하였으므로 생존시 본 기억은 없지만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의 사진과 모교에 세워진 반신상을 통하여 그의 초상을 생생히 표상하고있는것이다. 박원식영웅의 나이를 현재로 계산해보면 69살이다. 추측컨대 이 사람의 아버지 나이도 60대후반기나 70대전반기이겠고 그의 친구되는 사람도 그 정도일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생사를 알고싶어하는 박원식은 틀림없이 영웅 박원식동지일것이다!

그다음 쌍가매는 누구일까? 그도 이제는 고향이 된 할머니일텐데 어느 집 사람인가? 내 고향도화동은 30여세대 정도의 크지 않은 마을이어서 매집식구들을 더듬노라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수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아명이어서 36년전에 그곳을 떠나와 몇년만에 한번씩 가보는 나로서는 선뜻 알아볼수가 없었다. 마을에 가면 쉬이 찾을수 있겠는지...

《아, 거의다 온것 같구만요!》

손님의 말소리에 나도 생각에서 생각에서 깨어났다.

승용차앞으로 다가드는 굴이마에 써붙인 《신평굴》이라는 글발이 초행의 손님에게도 도화동이 가까와움을 알게 한것이였다. 도화동은 신평군안의 한 마을임을 그도 알기때문이였다.

《아직 한 70리쯤 더 가야 합니다.》

비로소 나의 안내역할이 시작된셈이였다.

꺾아찌른듯한 산벼랑밑으로 흐르는 남강을 옆에 끼고 굴, 굴. 또 굴을 헤쳐나가는 도로를 따라 승용차는 기세충چه 달리였다.

《참, 아름다운 고장이군요. 서유럽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경치입니다. 작가선생은 이런 고향을 가진 궁지가 대단히 크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건니는 부러움에 젖은 말이였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여기는 시작에 불과하지요. 이제 도화동에 가보면 선생은 감탄사를 연발할것입니다. 허허.》

그는 차창유리를 내리우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2

도화동이 가까와오는 한 지점에서 나는 승용차를 도로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뺀은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 길이 고속도로가 부설되기전에 도화동으로 나들던 옛도로였다. 지금도 화물자동차나 트럭또르는 이 길로 다니였다. 고속도로로 그냥 가도 잠시후이면 고향마을에 이르겠지만 이 길로 들어가야 손님이 촬영해가겠다는 드레소가 있었다. 남강의 한 지류인 두무천이 몇십길 벼랑에서 떨어져내리며 수수천년 다스려낸 돌확과 확에 넘쳐흐르는 물이 굶니며 고이는 크지 않은 소에는 전설이 깃들어있었다. 소의 물이 하도 맑고 깨끗하고 그 물로 몸을 씻으면 살결이 교와지기때문에 선녀들의 목욕물로 쓰기 위해 하늘나라에서 드레박을 내려보내 물을 퍼올린다는 이야기였다. 드레소는 도화동아이들의 흥겨운 물놀이장이였다. 물속밑의 흰모래며 새알같은 자갈들이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크고작은 고기들이 발가당 벗고 헤엄치는 아이들사이를 꺼리낌없이 싸다녔다. 어떤 때는 새끼고기가 애들의 사타구니를 들이받기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 꼬투리를 고기가 때먹었다-》고 소리를 치며 깔깔거렸다. 도화동태생이면 그 누구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어려있는 이 드레소에 이르니 감회가 깊었다. 아직 물이 차겠지만 흘러당 옷을 벗어던지고 풍덩 뛰어들고싶어졌다. 내 감상이 이렇진대 이 소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그려보는 심증은 또 얼

마나 절절할것인가.

조향봉은 록화촬영기를 부지런히 시동시켰다.

《그렇게 찍다간 여기서 카세트 하나를 다 풀지 않겠습니까.》하고 내가 일깨워주어서야 그는 촬영을 중지했다.

드레소에서 시내물흐름을 따라 뺀은 길로 500미터쯤 올라가 산굽이를 돌면 도화동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소소리높이 기름진 풍만한 잎가지를 펼치고 서있는 아릅드리 느티나무밑에서 도화동마을을 전망하는 조향봉의 입에서는 저절로 《아!》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Y》자형의 두 시내사이의 분지 한가운데 봉긋이 솟은 동산기슭에 층층 들어앉은 합각지붕의 소충문화주택들...

일직선으로 석축을 한 개울가, 두간두간에 건설된 뽕죽지붕의 소형발전소들, 포장한 마을의 길들과 개울가유보도들은 과일나무 가로수에 반쯤 묻혀있다. 규모있게 정리된 다락논들을 지나 밋밋한 둔덕에 서있는 회벽눈부신 2층짜리 학교, 좌우야산에 조성된 과원들...

땀도 들일사이없이 촬영을 하고난 조향봉은 그제야 느티나무밑 긴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 와보니 아버지 친구되는분이 어째서 신경같은 이런 고장을 떠나갔으며 자기가 직접 와보지 않고 남에게 록화해오라고 부탁하는지 리해가 안되누만요.》

《이전에야 이렇게 못했지요. 전쟁전에는 거의나 초가집들이었는데 그나마도 미국놈들 폭격에 불타버렸지요. 전후복구건설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혜택으로 이런 전변을 이룩한것입니다. 아버지 친구되는 사람이 우리 고향 출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가 여기를 떠난것이 언제쯤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록화물을 보고 선뜻 믿기 어려울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마을의 연혁을 추려서 설명해주었다.

3

리의 일군들은 우리가 온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해외동포영접국에서 전화를 걸어준것이였다.

《쌍가매는 샘물집 리선옥할머니의 아명이에요. 올해초에 여든살이 됐는데도 아직 정정하답니다. 눈과 귀도 밝구요. 손자내외와 함께 살아요. 오늘 점심식사를 그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일행을 반겨맞은 녀성관리위원장의 말이였다. 그는 중학시절 나보다 두해 아래반이였었다.

그와 동행하여 우리는 박원식영웅의 반신상이 세워진 학교부터 찾아갔다.

따발총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입하는 모습의

반신상앞에 우리는 꽃다발을 놓고 잠시 묵상을 했다.

학교 교장선생이 영웅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웅의 해방전 생활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놈들 징용에 끌려가 죽고 홀어머니 슬하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경사급한 화전 한패기에 명줄을 걸고 모자가 살다나니 칙뿌리와 송기, 풀로 주린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무척 배우고싶어했습니다. 해방전에 여기에는 학교가 없고 저 소재령너머 면소재지에 있었는데 그의 집형편으로는 학교에 입학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배울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마을에서 학교에 다니는 한 동무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무에게 소재령까지 마중가서 기다리고 있겠으니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면서 그날 배운것을 대달라고말입니다. 동무가 동의하자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십리나 되는 소재령에 올라 동무를 기다리었습니다. 동무를 만나서는 령우의 바위밑에서 한시간정도 배우고 돌아오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는 배워주는 동무가 고마와 무엇인가 사례하고싶었는데 집에 그럴만한것이 없어 칙뿌리 구운것을 들고가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소재령은 두 동무의 우정이 깊어진 눈물겨운 학습터였습니다.

해방이 되어 비로소 여기에도 학교가 서고 그 때부터 그는 마음껏 배울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총명한데다가 이악하게 공부하다나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동무와 시험성적에서 첫 순위를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감명깊은 교장선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웅의 고급중학교시절의 남다른 탐구심에 대하여, 옷사람을 존경하고 동무들을 끔찍이 위해 주던 미덕에 대하여, 전투에서 발휘한 위훈에 대하여...

《박원식영웅은 고향떠나 멀리 금강계선에서 희생되었으나 그는 이렇게 정든 고향의 모교로 돌아와 영생하면서 고향의 자랑으로 새로운 영웅감들을 키워내고있습니다.》

영웅을 레찬하는 교장선생의 목소리는 궁지높이 울려였다.

손님은 경의의 눈길로 영웅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영웅의 반신상을 촬영하고있을 때 랑랑한 종소리가 울리고 이어 교실들에서 학생들이 무리지어 나왔다.

잠시후 학급별로 대렬을 짓더니 한 교원의 구령하에 분렬행진을 시작하였다.

첫 대렬이 영웅의 반신상앞으로 다가갔다. 대렬 선두에 선 열성자학생의 청높은 구령-

《영웅을 향하여 우로 뵈!》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맑고 깨끗한 눈동자에 영웅의 모습을 되새기며 행진해나갔다. 대렬은 꼬리를 물었다.

조향봉은 여기저기로 지리를 옮기며 촬영을 했다.

4

땅속에서 맑디맑은 샘이 강물처럼 솟구쳐올랐다. 석회암지대에 간혹 있는 신기한 자연현상이었다. 그 샘가의 첫집이 쌍가매-리선옥할머니의 집이었다. 오른쪽엔 간벽없는 넓은 두칸 살림방이고 꺾이운 왼쪽엔 사랑방으로 아담한 살림집이었다.

왕골돛자리를 잔 넓은 두칸방 가운데 식탁이 차려져있었다. 꿩고기꾸미를 듬뿍 얹은 메밀국수에 메추리튀김과 봉어찜이 상우에 올랐다. 노란 기장찰떡, 발기우러한 물이 우러난 참나물김치, 하얀 도라지자반, 두릅나물무침, 구수한 토장내풍기는 곱돌장짜개... 향촌 토색이 짙은 소박한 식탁이었다.

매 사람앞에 맥주고뿌가 놓였다.

《들시다. 먼길 온 손님, 어서 드시오. 구미에 맞겠는지...》

쌍가매할머니의 가식없는 말이였다. 《자네두 어서.》 나보고 재촉을 한다.

《감사합니다. 그럼 할머니의 장수를 위해서 들겠습니다.》

손님-조향봉이 맥주고뿌를 들며 할머니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샘물가에 잠그어놓았었다는 맥주는 랑동기에 넣었던것 못지 않게 쫄었다.

이교장에서 나서자라 팔순을 넘긴 쌍가매할머니는 대외사업이란 말도 모른다. 그러니 국경 넘어온 손님과 나눌 말거리가 없는것이다. 할머니는 나에게만 말을 건다.

《자네 요즘 무슨 책을 쓰나?》

소설이란 말은 할머니 혀에 잘 붙지 않아 책이라고 표현하군한다.

내가 최근에 창작하고있는 소설에 대해 간단히 밀해주니 《자네 참 용아. 우리 도화동이 낳은 보배일세!》고 하는 할머니는 이발 한대도 빠지지 않아 발음도 정확하다. 나는 속이 후끈해남을 느꼈다. 할머니의 레사로운 말에서 고향의 관심, 고향의 인정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것이다.

관리위원장이 주로 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농장의 규모와 농사작황에 대해...

초벌식사를 했을 때였다.

문득 할머니가 손님에게 한마디 던졌다.

《나를 누가 알아보라구 했다고?》

《예, 저의 아버지 친구되는분이...》

《아마 그제 몫쓸 조순백이너석일거야. 그너석

아니고야 다른 나라에서 나를 알 사람이 없지.
그렇잖구.》

할머니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긍정했다.

그 순간 손님의 낯색은 줄지에 검붉어졌다. 그의 눈에 경악의 빛이 피곳 스쳤다.

《?》 나는 아연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할머니는 또 한마디 한다.

《순백이 그녀석은 나와 이모사촌간인데 몸쓸녀석이야. 나라에서 돈을 들여 류학을 보냈는데 전쟁때 돈많은 양놈들의 꼬임수에 넘어 외국에 주저앉았거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할 때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다 삼켰다고 하는 나발을 곧이들었다던지. 딱친구였던 박원식은 나라를 지켜 생명을 바쳤는데 그녀석은 배반했어. 역적이지. 그래서 우린 그녀석을 일가친척계열에서 떼버리고말았네. 가만 우리 집에 그녀석이 찍힌 사진이 한장 있을텐데.》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벽에 기대놓은 책장에 다가가더니 사진이 든 봉투를 들고 내려왔다. 돋보기안경을 끼고 한장한장 넘기며 그 사진을 찾아냈다.

《여기 있구만. 이 사람이 아닌가 보게. 뒤줄가운데 학생모자를 쓰고 찍은 녀석이야.》

할머니는 누렇게 황이 든 사진 한장을 손님앞에 내밀었다. 얼핏 보매 여럿이 두줄로 서서 찍은 사진이었다.

조향봉은 사진을 받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었다. 불편에 경련이 지나는데했다.

《그 몸쓸녀석 독사진은 다 불태워버렸어. 그 사진에는 가운데 끼여있어서 오려내면 사진이 못쓰게 되겠기에 그냥 두었지. 그녀석은 고향을 배반하구서두 아주 잊지는 못하겠던거지. 죽을 림박에야 철이 좀 드는지 원, 쯤쯤.》

할머니는 허까지 갔다. 그러더니 혼자소리처럼 한마디 더 했다.

《버린녀석이지만 때로 보고싶어지기도 해. 그 애를 내가 끔찍이 귀해했다고.》

그 소리에는 물기가 배어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매달렸다.

《임자 돌아가면 조순백이에게 이 누이의 당부를 전해주게. 순백이보다 더 큰 죄를 졌던 사람들도 개심하고 우리 장군님 품에 안기고있으니 동생도 뒤늦게나마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찾으라고. 돌아와 선친들의 무덤에 술 한잔 부으라고... 이 누이가 동생을 기다린다고...》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조향봉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있던 사진을 내려놓으며 가타부타 아무 소리도 안했다.

관리위원장이 음식을 계속 들자고 했으나 손님은 사의만 표할뿐 수저를 들려 하지 않았다.

좌석의 흥취는 완전히 깨어져버리고말았다.

(조순백이라니 이 사람과 성이 같다. 그러니 할머니가 말하는 이모사촌동생-조국 배반자가 조향봉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이 사진을 볼 때 경악해하던 표정... 십분 그럴수 있다.) 하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5

귀로에 오른 승용차안은 무거운 분위기였다.

도화동의 명소들을 활영할 때에도 손님의 기분은 침울했었다. 녀성관리위원장이며 쌍가매할머니의 다심한 배려음도 그의 기분을 되돌려세우지 못하였다.

차에 오르기전 도화동마을과 주변산촌을 다시 한번 휘돌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어려있었다. 차에 올라서도 무엇인가 깊은 생각속에 묻혀 있는듯했다.

승용차가 평양을 향해 절반쯤 달려서야 그는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선생은 아버지한테서 기만당해본적이 있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물론 없겠지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식간에 속이는 법이 없지요. 나는 아버지한테서 크게 속혀왔다는것을 이번에 통절히 느끼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조선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했고 미국놈들과 위정자들이 역겨워 해외망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도화동에 꼭 다녀오라 하면서도 친구의 부탁이라고 했구요.》

진중한 표정으로 한숨쉬어 토설하는 그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환멸감이 숨배여있었다

《오늘 저는 박원식영웅과 저의 아버지 운명을 대비해보며 이런 인생철리와 교훈을 찾았습니다. 영웅은 죽어서도 돌아와 영생하는곳이 고향이고 역적은 살아서도 울수 없는곳이 고향이다, 고향에 돌아올 권리는 신념이 투철하고 심신 다 바쳐 조국을 위하는 참인간에게만 차례진다는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도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되는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높지 않았으나 피방울이 타는듯한 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고려호텔앞에서 내려 헤어질 때에야 그는 자기를 위해 하루를 바쳐준 나의 수고에 사의를 표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쌍가매할머니는 저의 아버지에게 뒤늦게나마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찾도록 하라고 눈물겹게 당부하였지만 아버지는 지금 로환에 불치의 병과

지 겹쳐 그럴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해외에서지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고 돌아서 호텔안

으로 사라졌다.
《고향에 돌아올 권리!》
나는 그의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작가일화

자유분방한 립제

말을 하면 미치광이라 하고
말을 아니하면 어리석다는 세상
머리 젖고 가는 그 까닭을
아는이 어이 없으랴

이 시는 립제가 쓴 시 《성이현을 전송하면서》이다.

조선봉건왕조사회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량반통치계급 내부의 당파싸움으로 하여 정치가 극도로 문란해진 당시 봉건통치체제에 대한 그런 불만의 감정이 이 시에 표현되고있다.

16세기의 대표적작가-립제는 재능있고 자유분방하며 호탕할뿐더러 이와 같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예리하였다.

립제의 이러한 사상적경향은 창작활동과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엿볼수 있다.

립제는 풍채가 좋고 시와 문장이 뛰어났을뿐아니라 목청이 좋아 노래를 잘 불렀다 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의 감정, 부패무능한 량반통치배들이 큰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대한 반감을 품고 지내었다.

그런데로부터 립제는 통담과 해학으로 량반통치배들을 풍자조소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비난하였다.

립제는 나라에서 과거를 볼 때면 과거장에 들어가 자기의 글은 짓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립신공명해보려는 선비들의 허황한 꿈을 비웃으며 남의 글이나 대신 써주다가 중도에 그냥 나오기가 일쑤였다.

한번은 과거장에서 전과 같이 장난만 치다가 자기 글도 하나 지었는데 품속에 넣었던 그 글이 그만 어떤 선비한테 떨어졌다.

그 선비는 그것을 주어서 자기 글과 함께 바쳤는데 그 글이 부파에 입선되었다.

방을 전달하는 사령이 급제자 립제를 찾는데

립제는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립제는 그 길로 서울의 어느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거문고를 타면서 놀고있었던것이다.

사령이 계속 그를 찾자 한 선비가 그에게 립제를 찾자면 풍류 잘하는 기생집에 가야 한다고 귀띔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령이 기생집을 헤매다니다가 과연 어느 유명한 기생네 집에서 립제를 찾아내렸다.

립제는 잔뜩 취해서 사령에게 《나는 글을 바친 일이 없으니 다른 립제를 찾아가라》고 하며 그 소리에는 개의치 않고 계속 술만 마시었다.

이때 기생이 타던 거문고를 옷목에 밀어놓으며 《아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소. 나도 덕분에 호강 좀 해봅시다.》하며 하녀를 불러 행차할 준비를 서둘라 법석대었다.

그러나 립제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무리 명기라도 계집이라 할수 없군. 그 좋은 곡조를 타지 않고 이게 무슨 수선이란람.》하고 태연히 앉아있을뿐이었다.

이렇게 립제는 문장에 뛰어난 수재였으나 량반 벼슬아치들의 권력쟁탈과 당파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그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풍자와 조소, 해학으로 자유분방하게 생을 보내었으며 그로 하여 량반통치배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미관말직에 있다가 39살에 일찌기 세상을 떠났다.

립제가 남긴 《서옥설(재판받는 쥐)》을 비롯한 시와 소설들은 사회에 대한 비판이 예리하고 그 기백이 강하며 능란한 표현수법과 문장구사로 하여 우리 나라 문학발전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있다.

석선영

네가 좋더라, 바다여 외1편

주광남

그 언제 마주서도 마음 상쾌해지는
맑고 깨끗한 저 푸른 물결!...
흘러드는 흐린물은 얼마이라만
넓고 깊은 그 가슴속에
어지러운것은 다 품어 삭여버리고
그렇듯 깨끗한 한빛으로만
웃으며 설레는 바다여

네가 좋더라
수억만리 기슭의 어느 한 굽이엔들
게으름의 이끼 덮일세라
모래알 하나하나 정히 쓸고 또 쓸고
크고작은 바위들은 쓰다듬으며
순간도 쉼을 모르는 그 근면함이
천만년을 그렇게 변함모르는 성품이

만약 네 안식에 잠겨있으면
품속의 모든것 썩을가보아
잠못들고 뒤설레며 품어가꾸는

보화는 또 얼마이더냐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면서도
주었던듯 말았던듯
조용히 늠실이는 아 그 너그러운 품

그러다가도 그러다가도
검은 구름이 짓누르고
폭풍이 감히 건드리려들면
너는 성난 사자마냥 노호하더라
하늘 찢를듯한 그 격과 장검인양 추켜들고
팡팡 천지를 뒤흔들어 장엄히 호령치며
범접 못할 기상으로 불굴의 용맹 펼치더라

오, 그래서 바다여
네가 내 마음이런가
내 마음이 네런가
좋더라 언제나 네가 좋더라
내 한생의 고결한 뜻 네가 더 지니고있어!
내 바라는 삶의 열정 네 품에 늘 꿰고있어!

초침소리

안일의 상념속엔 들리지 않아도
고결한 뜻 되새길 땐 귀에 쟁쟁 울리더라
채각채각- 초침소리
시간의 뜻깊은 속삭임소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고
흐른다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고
초를 따라 분을 따라 세월은 흐른다고
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

깨우치네, 강렬히도 뇌리를 치며
네가 품은 그 희망도 싣고 간다고
네가 떨칠 그 위훈도 안고 간다고.
네가 누릴 그 영예도 함께 간다고...

오, 그렇거니 그렇거니!
탐구와 정열로 거머쥐는 시간만이
자양의 샘줄기인양 인생에 흘러들고
안일속에 허송하는 그 시간은
버려둔 내물처럼 허비되지 않던가

시간은 뉘에게나 똑같이 차례쳐도
같지 않나니, 인생에 누리는 그 시간은
삶을 빛내는데 바쳐진 시간만큼
그만큼이 아니냐, 인생의 길이는

자신을 다잡는 이 가슴 두드리며
채각채각... 초침은 속삭이네
시간은 간다 쉬지 않고 간다고
인생은 쉬는만큼 세월에 뒤떨어진다고

나의 가정이야기

강귀미

나는 아직 나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그 무슨 비밀적인데가 있어서가 아니다. 자랑할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다들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스스로 자기의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는 것인가.

전국지식인대회에 참가하고난후 나는 나의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결심을 내렸다.

나의 가정이야기가 나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하려는 것은 나의 가정이 걸어온 이야기이다. 어찌보면 나의 가정 운명사라고 할가...

1

나의 어린 시절 우리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나 이렇게 단출한 세식구였다.

내가 살던 집은 일본 효고현 고베시 나가다구의 초라한 조선사람부락과 큰길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자그마한 정원이 달린 목조건물은 무척 아담했고 아늑한 향취를 자아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원탁우에 놓인 생화가 향기를 풍긴다. 철따라 그것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꽃병도 조화를 맞추어 바뀌어 놓인다. 그것은 너희학교시절에 원예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세련된 솜씨였다.

지붕우에 양철조박들을 다닥다닥 쓰고앉은 길 건너 조선사람부락에 비하면 제법 《호화주택》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탓인지 아니면 일본사람들의 주택구획에서 살고있어서인지 조선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했다. 같은 동포라는것도 아예 모르는 축도 있는듯했다.

여름 한철 아침이면 울타리를 뒤흔은 나팔꽃줄기에 맑은 새벽이슬을 머금은 꽃송이들이 활짝 피어 오가는 행인들의 눈을 끌만도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어른들은 물론 맨발벗은 조무래기들까지 어떤 경계의식을 가진 눈으로 흘끔흘끔 보며 지나쳐버렸다.

꽃이 무성한 정원에는 늘 푸른색 유모차가 놓여있었다. 나는 그 유모차에서 자랐다. 그때는 어머니와 내가 떨어진적이 거의 없었다.

좀더 커서 세발자전거가 생겼을 때 나는 외로리의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다. 함께 놀며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는 친한 동무가 없었던것이다.

나의 동무는 오직 하나 털이 복실복실하고 꼬

리가 동그르 말린 강아지 《복술이》뿐이었다. 강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더 외로웠을것이다.

나는 우리 집 정원에서 바라보이는 잡초무성한 공지에서 노는 손발이 온통 새까맣고 옷도 잘 입지 못한 애들속에 끼우고싶었다.

그 외로움을 알아선지 어머니는 늘 나의 곁에 붙어있다싶이했다.

어린 시절 기억속에 어머니는 왜선지 항상 서글픈 모습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슴푸레하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라 하면 나는 먼곳에 있는 사람, 추억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떠오른다.

아버지는 아담한 집에 어울리지 않게 늘 구멍이 숭숭 뚫어져있는 누런 작업복을 걸치고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즐겨안기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얼핏 집에 들린 낯선 나그네와도 같았고 한지붕아래서 세방을 얻어사는 남과 같기도 했다.

다른 애들의 아버지와는 비슷치도 않았다.

내눈에 비친 다른 애들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식들에게 가깝고 친근한 사람들이었던가.

나는 우리 집 주위에서 많은 아버지들을 보았다. 술에 취해 비칠거리며 아들의 부추김을 받고 가는 주정뱅이아버지도 있었고 어디에 가서 돈을 갸웃하게 벌어들였는지 반기여 안기는 딸애에게 멋있는 인형을 쥐여주는 좋은 아버지도 있었다. 때로 성을 버럭 내어 자식을 때리는 란폭한 아버지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손을 대기는커녕 한번 욕한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같이 놀아준적도 없었다. 귀여운 강아지 《복술이》를 안아본적은 더우기나 없었다. 어쩐지 서름서름하기만 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마루복도의 맨끝에 자리잡은 《연구실》에만 불박혀있거나 아니면 무슨 식물의 잎과 뿌리를 채취하려 산으로 가군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큰일을 한다면서 방해가 될세라 집안에서 절대로 장난을 못하게 했고 마루복도를 다닐 때는 발끝걸음을 하게 했다.

언젠가 아마 내가 다섯살쯤 되었을 때였을것이다.

아버지는 《연구실》 방으로 급히 들어가다가 마루바닥에서 강아지와 놀고있는 나를 보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웬일인가 하여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멍하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진성이가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이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는지 아무 대답도 안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나와 마주앉았다.

나는 눈이 울롱해서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런 아버지를 처음 대하게 된 나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내 얼굴과 머리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었다.

그러더니 나를 덩실 안아올리었다.

아버지의 키와 갈아진 나는 떨어질까봐 아버지의 목을 짹 그리안았다.

아버지는 나를 안은채 《연구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아직 한번도 그 방에 들어가본적이 없었던지라 호기심이 부쩍 일어난것이다.

평시에 어머니는 나더러 거기에 드나들어서는 안된다고 엄하게 타이르곤하였다.

왜 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까닭을 알수 없었던 나의 어린 마음속에 그 방은 동화세계처럼 신비로운곳으로 그려져있었다.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것이다!

그런데 문턱을 넘어서자 나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방은 썰렁한 창고와 같았다.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인 서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몇개의 실험관들과 후라스코, 비커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시약병들, 여러가지 식물잎사귀 더미들...

이것이 《연구실》 신비로운 방의 실상이었다.

또한 손바닥만큼씩 자른 천조박들이 창문유리에 붙어있고 련탄불에 그슬린 벽체는 시커멓다.

아버지는 나를 쏘파우에 조심히 앉혔다.

《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좋은것을 주지.》

아버지는 책상서랍에서 무엇인가 꺼내었다.

아버지의 손에서는 커다란 동방울이 달랑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방안을 가득 채우며 무척 구성지게 울렸다.

아버지가 나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

동방울은 단박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장난감을 주는구나.

나는 방울을 흔들어보았다. 어머니의 돈지갑에 달린 갑작한 은방울과는 비할수 없이 큰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웅글은 목소리처럼 위신있게 들리기도 했다.

《어떠냐?》

《좋아요. 엄마진 새끼방울이요 이진 왕방울이요. 아버지방울이예요.》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다.

《진성아,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겠니. 우리 이방울을 강아지의 목에 달아주지 않겠니? 이진 그런 방울이란다.》

《강아지방울이냐요?》

나는 물론 아버지의 말에 찬동했다.

아버지는 나를 덥석 안고 《복술이》가 기다리고 있는 복도로 나왔다.

꼬리를 흔들며 나에게 매달리는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은 아버지는 목에 방울을 달아주었다.

그사이 나는 수염이 꺼칠한 아버지의 볼을 살짝 만져보았다.

《수염이 꼭꼭 찢려요. 아버진 수염 안깎나요?》

《이제 깎지.》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나의 아버지였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인형을 선사한 아버지도 이젠 부럽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나와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라는것을 그애들에게 보여주고싶었다.

《자, 봐라. 네 강아지가 멧쟁이가 됐구나.》

아버지는 목에 방울을 단 강아지를 허공에 들어올렸다. 강아지는 기겁을 하여 꺽꺽거렸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난 강아지는 몸뚱이를 털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났다. 강아지는 이상스러워선지 목을 흔들기도 하고 뱅뱅 돌기도 하고 울리뛰고 내리뛰기도 했다.

나는 강아지와 같이 성수가 나서 뛰어다니며 손뼉을 치고 까르르 웃었다.

잠시 놀다가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미소짓고 서있던 아버지가 없었다. 어느새 자기방으로 또 들어가버린것이였다.

나는 아버지와 다시 놀고싶었다. 어머니의 서글픈 눈길, 그것은 싫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방문앞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울리뛰고 내리뛰고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나올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나오시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친해진 나는 그후부터는 실험실에 자주 놀러가 아버지가 하는 여러가지 실험을 재미나게 구경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도 꽃을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왜서인지 꽃가꾸기를 그만두었다. 만발했던 정원의 나팔꽃도 자취를 감추고 탁상우엔 생화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히는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나의 어린 가슴은 왜서인지 무섭고 불안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려고 장난질도 안하고 손발도 깨끗이 씻군했다.

그때 나는 일곱살이였다.

드디어 불행은 우리에게 닥쳐왔다. 그것은 달이 없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늦가을 밤이었다. 어머니가 곤히 자는 나를 별안간 흔들어 깨웠다.

《진성아, 일어나라. 어서 가야 한다.》

잠투정을 하던 나는 불에 척척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그밤에도 어머니는 울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후두두 떨리면서 삽시에 잠이 달아나버렸다.

짐을 싸느라고 어수선하게 흩어진 집, 헹뎡그레한 방에 드리운 짙은 그늘, 적막감...

《엄마, 어디 가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젠 안계신다. 산에서 돌아오시지 못했다. 영영...》

《그럼 아버지는...》

나는 스스로도 무서워나 말끝을 맺지 못했다.

어머니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는 엉엉 울었다.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나오자 강아지가 마주 달려왔다. 방울이 달랑달랑거렸다.

나는 강아지를 짹 그러안았다.

《복술아!... 난 가...》

어머니는 묵묵히 강아지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머니는 강아지를 정원안으로 들여보내고 대문을 닫았다. 강아지는 쪽대문밖을 주둥이로 꾸시며 따라오겠다고 꿈꾸거렸다.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울리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리던 어머니가 도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방울소리는 더 나지 않았다.

캄캄한 방, 어둠속에 묻힌 외가닥길로 우리는 허둥지둥 가고 또 갔다.

사방은 고요하고 밤안개가 축축히 내려앉은 대기는 우리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그날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나의 유년시절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것이었다.

우리는 신나가단역에서 막차로 이따미에 있는 큰어머니를 찾아 떠났다.

큰어머니는 자그마한 불고기집을 차리고있었다.

《호르몬야끼》라는 간판의 네온등불빛이 멀리서 보일 때 나는 내치 죄여있던 가슴이 열리며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것을 느꼈다.

나를 각별히 사랑해주는 큰어머니.

나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내뒤를 따르기 주저하더니 망설이다가 한동안 지나서야 문을 가만가만 두드렸다

이윽고 어머니처럼 얼굴이 희고 큰 앞치마를 두른 큰어머니가 나타났다.

우리를 보자 큰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밤중에... 기별도 없이...》

대답대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그러니 끝내...》

나의 존재를 잊은듯 큰어머니는 손님이 없어진 텅빈 식당칸에 나를 홀로 남겨놓고 어머니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쑥 서러워졌다.

강아지를 남기고 떠난 일도, 텅 빈 교외컬처에서 추위 웅송그린채 흔들리던 일도, 어느때와는 달라진 큰어머니도...

그러나 큰어머니는 다음날부터는 역시 나를 이전처럼 고와해주었다.

《진성아.》하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김초밥도 해주었다. 골은 많이 먹으라고 큰 팡주리에 담은채로 주었다. 그전날보다 오히려 더 각별하였다.

아마 내가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되어버려서였을것이다.

한달쯤 지난 어느 깊은 밤, 언제나 조용히 눈물짓던 어머니가 소리내어 흐느끼는 바람에 나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와 마주앉은 큰어머니도 울고있었다.

《가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살자. 형제라고는 너와 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너희 두 식구를 먹여살리지 못하겠나.》

《아니예요. 가야 해요. 언니, 저는 이 땅에선 더 못살겠어요. 어디든 가야겠어요. 그래야 애아버지생각에서 벗어날수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너야 총련계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겠느냐. 게다가 친척이 있거나 하니 반겨줄 사람이 기다리기라도 하니...》

《그래도 제 나라가 아니나요. 낮이 설어도...》

《제 나라...》

큰어머니는 그 말에 더 반박하지 못하고 잠자코 눈물만 닦았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나는 우리가 또 떠나게 된다는것만은 눈치챘다.

나는 이불을 눈우에까지 뒤집어썼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왜 우리가 살던 집도, 큰어머니네 집도 버리고 또 떠나려고 할가.

생각하니 어린 마음도 슬퍼졌다.

우리가 가는곳은 과연 어떤곳일까?

미지의 세계를 안은채 나는 어느새 잠들어버렸다.

2

이국땅에서 조국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를 조국인민들은 따뜻이 맞아주었다.

나라에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좋은 고층살림집에 보금자리를 정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중앙식물원》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

조국인민들의 환대에 너무 송구스러워 어머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말끝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는것이 입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전혀 판사람이 되었다.

머리형태도 조국의 어머니들처럼 조선식으로 틀어올리고 산뜻한 치마저고리를 즐겨입었다.

그러나 노을이 피고지는 저녁무렵이면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곤했다. 그럴 때면 어두운 옛적 어머니로 되돌아가는것이였다.

문득문득 아버지생각이 나서 그랬을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나를 무슨 까닭에서인지 음악가로 키울 잡도리를 했다.

인민학교 3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나를 학생소년궁전 바이올린소조에 다니도록 했다.

음악적소질이 없었던 나는 안타까웠다. 방과후 바이올린소조에 가기 싫어 밤이 될 때까지 대동강변에서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하였다.

그러나 나의 바이올린연주수준이 어떠했겠는가. 밤마다 베란다가 달린 우리 집 창가에서는 내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서투른 선율이 울려나왔다.

유보도를 거닐던 청춘남녀들이 기분을 잡쳐선지 울려다보았고 곁에서 듣고있던 어머니는 랑미간을 찌프렸다.

《진성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음악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삼년 석달 바이올린소조에 착실히 다니도록 통제하고 밤이면 내옆에 붙어앉아서 인내성있게 악기연습을 시켰다.

그 덕에 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비롯한 몇개의 곡을 꽤 연주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아예 바이올린을 손에 쥐기조차 싫어졌다.

언제나 내 마음은 학생소년궁전 화학소조실의 실험탁우에 가있었다.

반짝거리는 시험관들과 비커들, 여러가지 실험기구들...

하루는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터놓았다.

《어머니, 나는 사실 화학소조에서 배우고싶어요.》

《뭐라구? 그 그럼 바이올린을 그만두겠다는거냐? 안된다. 너는 음악을 하여야 한다.》

어머니의 표정은 무정하리만큼 냉혹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반발심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 나는 바이올린이 싫어요! 소리조차 듣기 싫어요. 선율이 가냘프고 비단천을 찢는것같은 아츠러운 소리가 나는게 어디 남자가 할 악기나요?》

나는 난생처음 어머니말에 응하지 않았다.

내 말에 어머니는 몹시 노했다.

《너는 이 예미의 속이 새까맣게 타는것을 보고 싶어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음악을 해야 한다!》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깨달은 나는 더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후 나는 어머니몰래 화학소조에 들어갔다.

화학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웠다.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 전혀 다른 물질인 새로운 생성물이 시험관에 고운 색깔로 나타날 때마다 기쁨으로 하여 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곤했다.

그럴 때면 예닐곱살 어린 시절 여러가지 색깔이 담긴 시험관이며 비커들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실험에 여념이 없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살아났다.

이런 나날을 보내면서도 나는 저녁이면 어머니 앞에서 천연스럽게 바이올린을 연습했다.

제자리걸음만 하고있는 나를 두고 어머니는 짜증을 냈다.

《너는 왜 발전이 없니? 어쩌서 매일 같은 곡만 타고 다른 곡으로 넘어갈줄 모르느냐?》

어느덧 중학교시절이 끝나게 되었다.

나는 회당대로 김일성종합대학 화학학부 수험통지서를 받았다.

화학학부라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안된다. 화학만은 전공으로 할수 없다. 너를 그런 부문에 보내지 않으려고 이 어머니가 애써 음악을 시켰던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나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할수 없었다.

《어머니는 왜 화학의 길을 그렇게 막으려고만 하나요?》

나의 항변에 어머니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좀 겁먹은 사람의 인상이 되어 말했다.

《진성아, 꼭 화학을 해야만이 고마운 조국에 보답하는것이 아니다.

길이야 많지 않니. 나는 너를 사실 아버지의 전철을 밝게 하고싶지 않아서 그러ندا.》

《아버지의 전철?!》

나는 한동안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뜻밖에도 담임선생님과 학생소년궁전 화학선생님이 찾아온것이였다.

자정이 넘도록 나를 조국의 과학자로 키우자는 두 교원의 진지한 설복은 끝내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내고야말았다.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그렇게지는 어머니여서 《조국의 과학자》로 키우자는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종시 움직였던것이다.

대학입학시험을 자신만만하게 끝낸 나에게는

이제 인물심사만이 남았다.

생각과는 달리 인물심사장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했다. 복도에 들어서니 도수가 높은 안경을 낀 한 수험생이 연신 공식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단발머리 녀학생이 담뱃을 향해 앵무새처럼 무엇인가 따로 외우고있었다.

유독 키가 크고 새하얀 와이샤쓰를 입은 말쑥한 남학생만이 자신만만한 얼굴로 여유있게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바로 유명한 화학박사 심원교수의 막내아들이라는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가 어쩐지 부러웠다.

그 학생의 아버지인 심원교수가 수험생들을 심사하고있었던것이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죄어드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교수앞에 마주앉았다.

《박진성...》

사뭇 신중한 시선으로 나를 본 교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98%류산용액 9t 을 만들자면 70%의 FeS_2 가 들어있는 황철광 몇 t 이 필요한가. 반응식을 쓰고 계산하시오.》

문제를 읽은 나는 단숨에 반응식을 쓰고 풀었다.

《7.7t 의 황철광이라...》

교수의 눈에 만족한 빛이 어렸다. 그러더니 까다로운 화학문제들을 재차 내놓았다.

나는 종이장우에 문제를 거침없이 풀어보였다.

나의 인물심사시간은 펄 길어졌다.

열흘남짓한후 나는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았다.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첫 등교날, 나는 인물심사때 본 심원교수의 아들부터 찾아보았다. 학자풍이 나던 그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던 나였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는 입학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것은 그는 나와 시험성적이 같았는데 심원교수가 자기 막내아들보다 나를 더 전도유망하다는 의견을 첨가함으로써 대학에서는 나를 합격시켰다는것이였다.

이 사실앞에서 나는 커다란 충동을 이길수 없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느냐.》

대학 전기간 심원교수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엄격한 스승이였다.

2학년 학기말시험 수학과목에서 나는 4.9점을 맞았다. 학급에서는 1등이었기때문에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심원교수가 강좌에 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4.9점도 인정하지 않소. 오직 5점만을

인정하오.》

그때의 심원교수의 엄한 눈길은 대학 전기간 나를 채찍질했다.

학급에서 《막내》였던 나는 제대군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였다.

그 사랑속에서 제대군인당원들이 지닌 당에 대한 충실성, 강한 의지력, 결단성을 배웠고 그것이 나의 세계관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의 일생에서 지울수 없는 추억들을 남긴 대학시절은 어느덧 끝났다.

졸업하는 날, 나는 인민학교때부터 배워준 선생님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과학의 나래를 활짝 펼쳐준 학생소년궁전 화학소조선생님, 언제나 뒤에서 말없이 떠밀어준 담임선생님들, 아버지처럼 엄하면서도 정열적으로 과학의 길로 이끌어준 심원교수...

평생 잊을수 없는 선생님들.

이들은 다 당에서 키워준 교원혁명가들이였다.

졸업후 나는 경공업과학원산하 어느 한 연구소에 배치받았다.

첫 출근날, 내가 들떠 거울앞에 서서 옷매무시를 바로 잡는다, 머리를 빗는다 부산을 피우고있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나의 흰 실험복을 다림질하고있었다.

다 손질한 실험복을 가방에 넣어주며 《이 옷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뚫어지겠는지...》 하면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눈앞에 어릴 때 구멍이 숭숭한 아버지의 허름한 실험복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또 아버지생각을 하시지요. 아버지가 제쳤던 그곳은 남의 땅이고 여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나요. 다 잘될거예요.》

《과학은 아무데서나 마찬가지로 힘들단다,》

어머니의 우려와 걱정을 등뒤에 남기고 과학의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여 어느덧 나는 첫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

《저는 잡관목에서 천연물감을 뽑아내는것을 연구과제로 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선배연구사들앞에 공손히 발표하였다.

《잡관목이라니?!》

《뭘나무로밖에 쓸수 없는 잡관목에서?...》

사람들은 햇내기연구사의 《허황한》 연구과제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했다.

이것을 알게 된 심원교수가 나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진성이, 내가 너를 헛보지 않았구나. 바로 그것이다. 산을 많이 리용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다. 잡관목까지 <보물>이 된다면 우리 나라 산은 가는곳마다 <보물산>이 될것이다.》

허나 나의 첫 연구과제가 어머니를 그토록 괴

롭힐줄이야...

《천연물감을 뽑아낸다고?!》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다못해 해쓷해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된다. 그것만은 그만두어라. 나는 처음 네가 화학자가 되겠다고 할 때 반대했지만 아버지 없는 너를 과학자로 키워주는 조국이 하도 고마와 더는 반대 못했다. 네가 하필이면 천연물감을 뽑겠다고 하느냐. 이 에미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다. 다른것을 선택해다오.》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하고있었다.

나는 더 참을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신줄 알아요. 아버지가 바로 천연물감을 연구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어릴 때는 미처 몰랐지만 화학을 전공하면서 아버지의 연구과정이 바로 천연물감을 얻어내는 과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 연구제목을 택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상보를 씌운 밥상앞에 머리를 푹 떨어군채 앉아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가엾어보였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 땅에서 기어이 성공하여 나를 키워준 조국에 보답하고싶었어요.》

이윽고 어머니는 눈물에 얼룩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젠 네가 다 컸구나.》

더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심중에는 아들에게서 아이적과는 다른 범접 못할 그 무엇이 있다는것을 느낀듯했다.

나는 집을 떠나 7년세월, 이 연구과제를 안고 자강도의 명문경 깊은 산골에서 고심참담한 연구의 나날을 보냈다.

180여회의 실험과정에 있는 하많은 이야기를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험산을 뒤흔치며 여러가지 잡관목을 채취하고 그것을 부류별로 끓여야 하는 공정이며 복잡한 화학반응과 분석공정, 보다 색깔이 곱고 몇십년 날지 않는 천연물감을 얻어내는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한주일을 꼬박 스텡탱크에 불을 때고나면 정신이 다 혼미해진다.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한사코 만류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과연 성공의 날이 오겠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멍청하니 하늘을 올려다볼때의 그 허구쁜 마음이란...

그러다나니 언제 한번 처녀에게 눈을 팔새도

없어 어느새 나이 서른이 넘어 로총각신세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따금 집에 들릴 때마다 푸념을 하다못해 한숨만 쉬었다.

《어찌면 너는 그리도 아버지를 닮았느냐.》

그런 어머니를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기어이 끝을 보아야 했다.

한것은 나의 연구과제 천연물감이 비단 나 나의 창조물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다.

절음마다 이끌어주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는 결합체로 될것이기에...

멀리 평양을 떠나 깊은 산골 실험현지에 찾아와서 실험용스텡탱크에 불도 함께 때주며 힘과 용기를 준 연구소의 당일군과 몇년동안 해온 자기의 연구자료를 사심없이 고스란히 넘겨준 심원 교수.

백번째 실험이 실패한 날 저녁, 언감자떡을 들고와서는 락천적으로 웃으며 《적기가》를 불러주던 그곳 리당일군의 모습은 어깨가 축 처진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아침이면 남몰래 산더미처럼 쌓이군하던 실험 용뿔나무...

서로 도우며 서로 이끌면서 정으로 날이 새고 정으로 날이 저무는, 참으로 정에 물린 하루하루였다.

...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어릴 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참뜻이 절절히 안겨왔다.

이 고마운 조국과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드디어 성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한테서 류다른 편지를 받았다.

《...오늘 뺨스안에서 받은 충동이 너무 커서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날씨는 몹시 추웠다. 아침에 나는 평양역앞에서 정백동으로 가는 뺨스를 탔다.

뺨스가 떠나려는 찰나에 한 처녀가 간신히 올라탔다. 뺨이 능금알같이 빨간 오돌찬 처녀였다. 방금 차에서 내린듯 어깨에 배낭이 지워져있고 랑손에도 무거운 짐을 들고있었다.

보자기안에서 비닐통이 삐죽이 보였다.

뺨스에 올라타서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있던 처녀는 차가 떠나면서 들추는 바람에 그만 비칠거렸다. 그러자 손에 들었던 비닐통이 어디에 부딪쳤는지 깨어져버렸구나.

불그레한 액체가 보자기를 물들이며 쏟아져나왔다.

당황한 처녀는 어찌할바를 몰라 터진 부분을

우로 향하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었다.

그리고 하소연하였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진 귀중한 실험물감 이야요. 한 연구사아저씨가 7년만에 얻어낸 물감 이랍니다. 그 아저씨의 피와 땀이에요.>

온 뺨스안이 삽시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앞쪽에서 새파란 비닐바غه뜨가 사람들의 손과 손을 거쳐 넘어왔다. 깨진 비닐통의 액체는 다행히 <구원>되었다.

숨옷에도 신발에도 온통 빨간 물이 들었지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기쁨의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처녀는 어디서 오는길인가?>

누군가가 물었다.

<자강도의 명문령 산골마을에서 왔어요. 평양에 있는 연구사아저씨가 우리 고장에 와서 연구사업을 하고있지요 뭐. 난 평양에 견학오는 길에 자진해서 아저씨의 심부름을 하고있어요. 방직공장에 이 물감을 날라가요.>

처녀는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연구사가 너라는것을 느꼈나.

처녀가 내리자 나도 따라내렸다.

나는 처녀가 든 바غه뜨를 같이 맞들고 방직공장에까지 갔다.

가는 도중에 처녀가 의아해하였다.

<어머니는 이 바غه뜨의 임자나요?>

나는 열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연구사의 이름이 뭐지?>

나는 처녀에게 간신히 물었다.

<박진성이라고 해요. 혹시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나요?>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구나.>

진성아,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할수 없었다.

걸음마다 너의 앞길을 막아섰던 이 에미가 아니냐.

나는 그 처녀와 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아린 그 처녀앞에 나는 머리가 수그려졌다.

오늘 뺨스안에서부터 방직공장까지 가는 길에서 있던 가슴뜨거운 사실을 통해 나는 조국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편지를 읽고난 나는 기뻐다.

그토록 과학앞에 완고했던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준것이였다! ... 그후 나는 드디어 성공하였다. 마침내 우리의 천연물감이 세상에 나온것이였다.

경제적효과성도 컸다.

조국은 나에게 학사칭호를 안겨주었다.

내가 학사가 되어 돌아온 날 어머니는 《학사증》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눈물지었다.

《정말 조국이 너를 키워주었구나. 이 기쁜 날에 왜 그런지 아버지생각이 더 나누나.

이젠 이 에미가 한평생 너의 아버지에 대하여 품어온 남모르는 사연을 터놓을 때가 된것 같다.》

《남모르는 사연이라니요?!...》

나는 의혹이 가득 실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창밖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있었다.

어머니는 꼭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진성아, 놀라지 말아라. 아버지는 돌아가신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생리별을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뒤말을 기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귀전에 울렸다.

《너의 아버지는 연구사업에만 파묻혀 모든것을 지어 가정생활까지도 잊어버리는 수재형의 인간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리해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허두를 뻔 어머니가 들려준 우리 가정 운명사는 정말 기가 막힌것이였다.

돌아가신줄만 알았던 아버지, 지금도 이국땅 그 어디선가에서 해매고계실지 모를 불우한 나의 아버지...

아니 살아나 계시는지?!

이국땅에서 유년시절 강아지가 있는 집을 두고 떠나올 때 돌아가셨다던 아버지는 죽은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버림을 받았던것이다.

한동안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여전히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나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은 한생을 아버지에게 대한 죄의식을 안고 살아온 쓰디쓴 고뇌로 하여 이지러져있었다.

어쩐지 어머니가 불쌍해보였다.

(많지도 않은 세식구, 그 식구마저 헤어져야 했으니.)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의 탓도, 아버지의 탓도 아니였다.

돈이 있어야 과학연구도 할수 있는 자본주의사회가 빚어낸 비극이였다.

아, 30여년간 어머니의 가슴속에만 묻혔던 비참한 우리 가정 운명사...

(3)

나의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남도 진양군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이였다.

강제징용에 끌려간 나의 할아버지는 두해동안 감감 무소식이였다.

매일 동구밖에 나가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심화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하직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한달후 할아버지마저 남양 군도 이릉모를 섬에서 사망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일점혈육이 없는 고아신세가 된 아버지의 나이는 16살이었다.

살길이 막힌 아버지는 이웃에서 일본으로 벌이를 떠난다는 사람을 따라 정처없이 현해탄을 건너갈 결심을 했다.

막상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려니 마음은 한없이 서글펐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고향산천을 깊이 새겨두려고 뒤산으로 올랐다.

...남해가의 시골마을.

일제에게 빼앗긴 땅이건만 그해도 봄은 여전히 찾아와 고향은 어디를 보나 봄빛이었다.

마을 한끝 언덕에서 푸른 잎사귀사이로 강렬한 붉은 빛을 뽐고있는 동백꽃, 산기슭마다 겸손한 자태로 피어난 연분홍색 진달래, 저 멀리 설레이는 옥색 대밭과 초록빛 보리밭...

감감한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고향의 색깔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점도록 바라보았다.

고향의 진한 색깔은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역땅 고베시에서 아버지의 고달픈 고향의 길 시작되었다.

자갈치기, 신문배달, 식당잡부...

이런 속에서도 밤이면 고향의 빛같은 잊혀지지 않고 더더욱 가슴속에 사무쳐왔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진달래의 분홍색, 동백꽃의 붉은색, 보리밭의 초록색...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어느덧 아버지를 화학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고향의 색깔과 같은 천연물감을 만들자!

이국땅에서 사는 화학청년의 꿈은 소중하나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다.

다다미 석장짜리 하숙방에 굴상자를 실험대로 삼아 점심 한끼씩 굶으면서 비커 하나, 후라스코 하나를 사들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거기에서 온 우주를 안고사는 기쁨을 느꼈다.

하루의 생계를 위해 첫 새벽부터 달음박질하는 그 주변 조선사람들속에 아버지는 이해할수 없는 《류별난 청년》으로 알려졌다.

유독 한사람, 보잘것 없는 신발공장을 차리고 운영하던 동향사람인 나의 외할아버지만이 그 청년을 눈여겨보았다.

역시 고향그리워 자나깨나 못잊어하던 외할아버지여서 아버지의 불같은 향토애에 대번에 반하여 나중에는 아예 사위로 삼고싶어졌다.

성미가 여간 급하지 않던 외할아버지는 마음먹은김에 아귀를 짓자고 어느날 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을 비쳤다.

《이 애비는 너의 배필로 그 사람을 점찍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뜻밖의 말에 어머니는 화닥닥 놀랐다.

이따금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오는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키는 크지만 등이 약간 구부정한 몸에 물낱은 학생복을 걸친 청년의 모습은 소박하다 못해 서글퍼까지 보였다.

게다가 나이가 아홉살이나 우가 아닌가.

조선청녀치고는 매우 드문 이름난 일본녀학교 졸업생인데다가 미모의 처녀로 소문이 자자해 웬만한 총각들은 감히 접근도 못하던 어머니로서 엄청나게 짝이 기우는듯한 혼사말이었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아래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던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싫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러는 딸을 넋지시 내려다보더니 이야기했다.

《사람이 어찌 결만 보겠느냐. 속깊은 사람이다. 그는 진짜로 고향을 안고사는 진실한 청년이다. 일본땅에서 그런 청년을 찾기 힘들다. 제 잡담하고 이 애비의 말을 들어라》

더 거역하지 말라는 명령조가 담긴 외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안타까와 며칠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고민하였다.

(이붓어머니손에서 수모를 당할가봐 홀아버지 손으로 두 딸을 애지중지 키워오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것은 딸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머니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새로운 눈으로 청년을 보니 그의 탐구적인 눈길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데가 있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담한 새 집을 마련해주었다.

그 집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가 나서자란 목조 건물이다.

집없는 외토리생활로 더운 밥 한끼 먹지 못하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결혼, 집, 안해... 이 모든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다.

장인이 정말 고마왔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장인이 바라는대로 소중한 내 고향의 빛을 기어이 찾으려는 마음이 앞섰다.

이런 마음은 귀여운 안해를 홀로 두고 결혼식 한주일만에 멀리에 시료채취까지 떠나도록 떠밀었다.

더구나 조선사람이라고 하여 그 어느 연구소 조수로도 받아주지 않는 차거운 이국땅에 대한 반발심이 아버지로 하여금 달콤한 신흥생활을 즐길 여유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가라는 신희려행도 마다하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시료채취하러 떠나는 남편을 바라는 어머니의 눈에는 야속함으로 하여 눈물이 글썽했다.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나이가 엄청나게 우이어서 어려움까지 겹쳐 감히 가는 길을 말리지는 못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 이런것일가?)

불만비슷한 감정을 이내 털어버린 어머니는 신희생황이라 남편이 없는 동안 현관으로부터 복도, 방, 심지어 실험실 책상우에까지 갖가지 꽃으로 장식하였다.

하얀 백합꽃, 노란 국화꽃, 새빨간 카네이션... 며칠후 아버지가 돌아왔다.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단장한 집, 꽃병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난 방.

그런데 이 모든것을 기뻐하고 칭찬해줄줄 알았던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뜻밖에도 아무런 감흥도 찾아볼수 없었다.

아버지의 실험실까지 따라들어갔던 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책상우 꽃병에 꽂혔던 꽃 한송이를 뽑아들고 말을 건넸었다.

《이 빨간 카네이션꽃의 색깔이 참 곱지요?》

귀여운 안해의 거동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곱기는 곱소. 그러나 내 고향 선홍색 동백꽃 색깔에는 비길수 없소.

당신은 일본땅에서 나서자랐기때문에 그 꽃의 아름다움을 모를거요.

그 선홍색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어디가도 찾을수가 없을거요.

그 고향의 색깔을 물감으로 만들어내는것이 나의 연구목표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그윽한 그 무엇이 담겨져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놀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백합이나 국화, 카네이션 같은 일본 땅에서 피는 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된것이였다.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듯했다.

세월은 흘렀다.

적으나마 실험자금을 대주던 외할아버지의 기업이 불경기의 타류속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망하고 빚에 짓눌려 고민하던 외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과학연구의 길에는 중중첩첩 난관이 가로놓였다.

실험용 런탄값만 하여도 약차하였다.

깨어진 실험용 용기를 보충하지 못하여 밥공기나 교뿌 등 부엌세간들이 대응으로 쓰이는 판이

였다.

더구나 물감의 색깔을 식별하기 위한 흰 천도 많이 있어야 했다.

그러다나니 생활비는 생각도 못할 형편이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연구사업에 여념이 없는 아버지에게 그늘을 던져주고싶지 않아 어머니는 《전당포》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머리수건을 눈우에까지 폭쓰고 전당포의 시꺼먼 문발앞에서 주춤거리던 어머니는 점차 익숙되어 전당포주인과 물건을 놓고 값을 흥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애기기를 넘던 벽시계도 없어졌고 당시 동네에 몇대밖에 없던 귀한 텔레비존수상기도 사라졌다.

어머니의 금강석목걸이도 없어졌다.

아버지는 이런 생활난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을 쌓은듯 실험실에 불박혀 나오지 않았다.

이때 당시 총련조직이 결성되어 몇년이 되고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의 품을 알게 되어 조선사람이 사는곳마다 기쁨의 노래소리가 높았고 가는곳마다 《옹헤야》 출판이 벌어지던 때였다.

일본사람만 사는 주택구획 우리 집에도 저녁이면 《조선화보》를 든 총련분회일군들이 찾아왔다.

《조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가지였다.

《나는 과학이면 됩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국이라는 개념이 료파적으로 머리속에 그려졌다.

내 나이가 일곱살이 되도록 연구성과는 눈에 띄이지 않고 가난은 더해만 갔다.

어머니는 가난을 아는지 모르는지 실험에만 파묻혀있는 남편이 점점 미워졌다.

(고향의 색깔은 언제나 찾으려는지.)

그러던 어느날, 불고기집을 하고있는 언니집에 돈을 좀 얻으러 가려고 외출복을 찾았다.

옷장을 열고 브라우저를 펼쳐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흰 브라우저의 등판이 없어졌던것이다.

하는수 없이 다른 옷을 입고갔다.

언니네 집으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서도 줄곧 등판이 없는 흰 브라우저가 눈앞에 아물거렸다.

저녁에 밥상앞에서 남편에게 그 브라우저이냐기를 했다.

아버지의 대답이 가관이였다.

《내가 좀 썼소. 흰 천이 필요해서... 흰 천이 좀 더 없소?》

아버지는 태연했고 평시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놓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이제는 모든 생활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몇달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고이 간직했던 이브닝그도레스(서양식첫날옷)를 전당포에 저당잡히기로 결심했다.

외할아버지가 결혼식복상점에서 제일 비싼것으로 마련해준 첫날옷이었다.

가슴부분에 흰 장미꽃들이 요란하고 하르르한 레스장식이 층층으로 장식된 흰눈처럼 하얀 나이론 도레스는 당시 못처녀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었었다.

아버지의 유물로 평생토록 간직하려던 귀중한 옷이었지만 집안에 값나가는것이란 그것밖에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서 첫날옷을 펼쳐든 순간 어머니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치마 앞판이 뭉쳐 없어져 보기에다 처참할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그 첫날옷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는가?! 그도 인간일진대...)

남편에 대한 한은 쌓이고쌓여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어졌다.

(더는 이렇게 못살아.)

어머니는 아버지가 산으로 시료채취를 떠난 날 밤에 집을 팔아서 연구사업에 보태달라는 쪽지편지만 한장 남기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밤이 바로 내가 살던 집과 강아지와 헤어진 날이었다.

귀국후 어머니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구호밑에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새 생활속에서 남편 하나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 속죄의 감정으로 하여 마음 한구석이 항상 어두웠다.

허나 그 속죄의 마음속에서도 낡은 사회에서 굳어진 과학관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과학연구의 길이란 모든것을 잃는 길이다.》

이 근시안적인 과학관은 과학연구의 길에 나선 아들의 발목을 얼마나 집요하게 잡아당겼던가.

그러나 조국은 나를 성공의 꽃방석에 앉혀주었다.

자그마한 고향의 시골마을을 가슴에 불안고 몸부림친 아름다운 한 인간이 과학의 길로 가면 갈수록 모든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안해의 버림까지 받은 비참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버지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나는 우리 가정 운명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간 아버지를 보았고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인간 나자신을 보았다!

그것은 과학과 조국이라는 인생철학이 준 판이한 두 초상이었다.

×

나는 30대에 박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되었다.

그 감격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으로 우리 모자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나는 과학기술대표단으로 일본으로 갔다.

해외동포과학자들까지 참가한 과학토론회에서 한 나의 토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캐나다에서 온 한 교포과학자는 토론회가 끝난 후 나를 찾아와서 감탄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지구촌에서 버림받던 잡관목에서 천연물감, 의약품, 갖가지 화학제품들을 뽑아냈다니...

나라의 80프로를 차지하는 산을 잘 리용하라고 하신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대로 해서 민중의 과학자, 민중의 박사가 된 당신을 축하합니다.

나는 같은 민족된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내가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과학자라는데서 이모저모로 관심이 컸고 또 호기심도 많았다.

그들은 아마 나를 통하여 과학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움을 폐부로 느낀것이었다.

절찬과 환대속에 체류일정은 흘러가고있었다.

그런속에서도 나는 평양을 떠나던 전날밤, 나의 손에 왕방울을 쥐여주면서 하던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이 방울은 사연깊은거란다.

네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오던 날, 아무도 바래주는 이 없는데 개만이 주인을 따라 동구밖까지 따라나왔더란다. 개를 불안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는 개의 목에 달렸던 방울을 떼가셨다고 한다.

그것이 네 <소꿉동무>였던 <복술이>의 목에 달렸었지.

집을 떠나오던 날 <복술이>의 목에서 내가 또 그 방울을 떼내고...

내가 아버지생각할가봐 오늘까지 몰래 건사해 두었겠다.

이걸 이번에 가지고 떠나거라.

일본에 있는 네 큰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수십통의 편지를 띄웠지만 찾을 길이 없다는 회답뿐이었다.

내가 이번에 일본에 직접 간다니 꼭 아버지를 찾아보아라. 살아나 계시는지...

만약 만나면 이 방울을 보여라.》

도쿄에 도착한 이튿날로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총련조직에 의뢰했으나 인차 소식이 없었다.

하긴 아버지가 이때까지 총련조직산하에 망라되어있지 않았다면 술밭에서 바늘찾기격이 아닌가. 체류일정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조금해졌다.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날, 나는 숙소에서 반세가 넘는 오랜 세월속에 색이 꺼매진 왕방울을 보며 아버지생각에 묻혀있었다.

(아버지, 어린 시절 이 왕방울을 주시던 인자한 아버지는 어디로 가시고 방울만 남았습니까.)

눈앞이 점점 흐리어 방울이 보이지 않는다.

《뚝, 뚝, 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나를 취재하려고 《조선신보》사 기자가 찾아왔던것이다.

안경너머에 호수와 같은 깊은 사색이 담겨진 리지적인 눈이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나이는 나와 엇비슷해보였다.

내가 권하는 의자에 앉은 기자는 내 손에 쥐어진 왕방울과 내 얼굴을 번갈아보더니 의아해하였다.

《박사선생님과 고리나는 왕방울이라...》

그 방울은 꽤 오래된것 같군요. 나도 좀 구경합시다.》

왕방울을 이리저리 보기도 하고 흔들어도 본 기자는 뒤말을 이었다.

《요즘같은 현대판세월에 보기도문 물건이구만요. 무슨 자연이라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만약 비밀이 아니라면 이 방울의 매력을 들려줄수 없겠는지요?

혹시 내 취재의 소재감이라도 되지 않겠는지 알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눈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역시 직업적타성에서 오는 기자다운 민감한 물음이었다.

왜 그런지 이 기자에게 우리 가정 운명사를 터놓고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난 기자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린듯했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어찌 보면 이 자그마한 방울에 <민족의 수난사>가 어려있는듯합니다.

나의 취재는 이것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사 기자들에게 호소해서 박사선생님의 아버지를 꼭 찾도록 합시다.》

그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나의 아버지를 찾아냈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자는 감격적인 상봉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슬프디슬픈 《상봉》이었다.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것이다. 며칠후 숙소에 다시 나타난 《조선신보》사 기

자는 나에게 죄라도 지은듯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인차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의 아버지는?...》

기자는 뜨직뜨직 이야기를 했다.

《박사선생님, 정말 안됐습니다.

아버지는 1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고현의 어느 깊은 골안에까지 <조선신보>에 독자가 있어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비참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기자는 피로운듯 더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색이 바랜 한권의 일기장을 나에게 주는것이였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남긴것이였다.

그곳에서 살던 한 조선로인이 용케도 지금까지 전사했었다고 한다.

일기장을 한줄한줄 읽어가는 나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자에게서 버림받은 아버지의 고독감, 어떻게 해서도 과학의 길에서 성공하여 처자를 되찾으려는 아버지의 모대감과 고통의 흔적이 글줄마다에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엮보였다.

...집을 팔고 실험지를 어느 산골 초막에 옮긴 아버지.

그 일대에서 《물감연구쟁이 훌레비》로 불리운 아버지에게 대한 관심에는 인간적동정도 있었지만 동 키호테적인 조소도 없지 않았다.

그속에서도 아버지는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연구에 몰두했다.

집 판 돈까지 깡그리 쏟아부어 단 한푼도 남지 않았을 때 드디어 연구에는 성공의 서광이 나타났다.

그러나 더는 자금이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기술문건을 안고 어느 방직회사로 찾아갔다.

회사의 한 관리는 기술자료를 보더니 환성을 지르며 중간시험을 기꺼이 해주겠다고, 성공하면 공장에서 도입할 의향까지 있다고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으나 한달, 두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얼마후 다시 찾아갔지만 회사에서는 아버지를 만나주지조차 않았다.

새 기술의 개발이 자기 회사의 현 생산품의 실현에 저애가 된다는것을 타산한 회사측에서 음흉하게도 아버지의 기술문건을 없애버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연을 알게 된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생눈알도 뽑아가는 험악한 세상이였다.

가슴을 광광 치며 통탄하였으나 어데 하소해볼데도 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보니 유일한 벗이였던 《복술이》도 죽어있었다.

《아,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게

되었다.

처자도 없고 자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는 너마저 죽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갈 차례이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천살도 못넘기고 숨져버렸다. ...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장에는 이런 글발이 적혀있었다.

《예로부터 과학연구사업은 국경도 민족도 초월하는 인류공동의 사업이라고 하여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연구사업은 뿌리없는 초목과 같은것이였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내 조국, 내 고향의 색깔을 찾으려던 내가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피타는 절규는 내 가슴을 마구 허비였다.

(아, 나의 아버지...)

일기를 읽고난 나는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다음날, 나는 기자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로 떠났다.

차에서 내려 꼬불꼬불한 산골길을 걸어올라가니 산골짜기 양지쪽에 홀로 서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소나무아래에 아버지의 묘소가 있었다.

쭈뼛하게 서있는 소나무, 거기에는 가슴을 쿣 찌르는 아픔이 있었다.

마치 그 소나무는 한생을 외롭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인듯하였다.

초막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쌓았다는 아버지의

묘소.

초라하지만 주변의 조선동포들이 한푼두푼 돈을 모아 세워준 화강석비석이 서있었다. 묘주업은 묘지엔 잡초가 무성하였다.

《조선신보》사 기자가 꽃다발을 드리라고 나에게 주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일본의 꽃을 좋아하지 않으시였답니다.》

나직이 되뇌이고난 나는 주머니에서 방울을 꺼내어 자그마한 상돌앞에 놓아주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왔습니다.》

나는 묘앞에 어푸러졌다.

굵은 눈물방울이 흰 상돌을 적시었다.

아들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온갖 일사귀들도 우는가 가을바람에 일시에 우수수 몸을 떨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고향의 색깔은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한번만이라도 눈을 뜨시고 이 아들을 보십시오.

조국의 색깔을 안고온 아들을...

아버지는 조국을 몰랐던탓에 제 명도 다 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절통합니다.

과학을 하기전에 조국을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려던 나의 가정이야기이다.

나는 이 글을 우리의 모든 지식인들의 신념으로 되어있는 좌우명으로 마감지으려고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체의 조국이 있다.》

상식

아우게아왕의 외양간

세상사람들은 형편없이 어지럽고 지저분한곳을 보면 흔히 《아우게아왕의 외양간》과 같다고 말하곤한다.

이 말은 고대그리스신화에서 유래된것이다.

고대그리스의 아우게아왕에게는 굉장히 큰 외양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집짐승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량품종들도 많았다.

아우게아왕은 이처럼 많은 집짐승들을 가진 큰 부자였으나 그에게도 제나름의 걱정거리가 있었다.

외양간이 엄청나게 크고 집짐승들이 하도 많다니 그것들이 내보낸 배설물이 30년동안이나 쌓이고쌓여 어지럽기 그지없었다.

힘장수로 알려진 헤라클레스는 아우게아왕이 가지고있는 집짐승들에 탐이 나 왕에게 그 집짐승들중 십분의 일을 자기에게 준다면 그 외양간

을 하루동안에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하였다.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힘장사라 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질적거리는 더러운것을 하루에 다 치울수는 없다고 생각한 아우게아왕은 꽤히 응해나섰다.

헤라클레스는 즉시에 외양간의 두 담벽을 헐어내고 두개의 강물줄기를 끌어들었다.

사품치는 강물이 외양간의 오물들을 죄다 씻어버리자 헤라클레스는 다시 담벽을 쌓아 그 거창한 일을 하루사이에 다 해제졌다.

신화에서는 이 일을 지혜있고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6번째로 세운 공훈으로 전하고있다.

오늘 사람들은 생활환경의 어지러움뿐아니라 리권과 세력싸움으로 온갖 추태를 다 빚어내는 자본주의 정치계를 두고도 《아우게아왕의 외양간》같다고 말하고있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예술적특성에 대하여

라현희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18세기의 시인 리원배(1745~1802)의 대표적인 시작품인 동시에 중세 우리 나라 장편서사시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 대한 작가의 구상은 구성작업에서 종합되고 그 기본테두리가 확정된다. 다 써놓은 작품이 뒤집혀져 처음부터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우지 못한데 있다.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집은 무너지기마련이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묘사가 잘 되었다하더라도 구성을 잘 엮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으로 작품이 뒤집히고만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예술적특성은 첫째로 구성에서 나타나고있다.

작품에서 구성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꾸미는 독특한 형식이다. 따라서 구성을 잘 조직하는것은 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구성에 관한 문제는 결코 구성문제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적의도,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업을 옹계 실현하기 위한 문제로 된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구성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에서는 가실이와 설씨의 딸, 설씨로인 등 주요등장인물들이 3명으로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설씨의 딸을 중심으로 하여 설씨로인과 가실이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편서사시에서는 설씨의 딸을 중심으로 하여 딸과 아버지, 설씨의 딸과 가실이 등 인물들의 호상관계가 극적으로 잘 맞물려있다.

이 서사시에서 주인공 설씨 딸이 작품의 중심에 놓여있다는것은 바로 그의 깨끗한 마음씨, 굳은 신의에 의하여 아버지와와 관계, 가실이와의 관계도 다 그의 뜻대로 풀려나가도록 인간관계를 맺게 하였다는것을 말한다.

주인공 설씨 딸은 아버지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동시에 가실이와의 사랑을 의리에 의하여 굳게 지켜나가는 인간이다.

가실이는 오래전부터 사모하던 설씨 딸이 아버지의 군역으로 피로와하는것을 알자 그를 대신하여 스스로 부담을 걸머지고 변방초소로 나간다.

그는 변방으로 떠나면서 설씨의 딸과 굳은 언약을 한다.

작품에서 설씨의 딸은 아버지의 그릇된 처사에 일정하게 맞서나가는 인간으로 묘사되어있다.

설씨 딸은 아버지의 강요를 거절하고 인간의 도리로서 그를 설복하는 주동적인 립장에 서있으며 애인인 가실이를 끝까지 기다려 마침내 행복한 잔치를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설씨 딸을 중심으로 하여 설씨로인과 가실이 등 인물들의 관계가 밀접히 맺어지게 되며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명백히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생활을 깊이있게 파들어가면서 그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개성을 잘 살려나가고있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생활과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얹혀져서 매 인물들의 위치가 뚜렷하고 형상의 자기 몫이 명백하게 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설씨 딸의 성격적특성을 비교적 치밀한 심리묘사와 세부묘사를 통해서 아버지와와 대화과정을 통하여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가실이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혼처에 시집가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에게 사람이 인륜도덕이 있어 만물의 령장으로 되는것이며 신의는 사람의 고유한 본성이기때문에 예로부터 신의를 귀중히 여겨왔다고 하면서 10년이건 100년이건 님을 기다려 독수공방하겠다고 분연히 자기의 결심을 피력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주인공 설씨 딸이 불의에 눈물만 흘리는 연약한 녀성이 아니라 당대 사회 현실속에서 인간의 도리가 짓밟히고있는데 항거하는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의 소유자로 형상되고있다.

18세기이전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녀주인공들이 봉건유화도덕의 희생물로, 그에 순종하는 인물들로 그려져있거나 혹은 자결으로써 봉건사회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녀주인공을 삼국시기의 소설 《설씨의 딸》에서처럼 눈물만 흘리는 의지약한 녀인이 아니라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고루한 봉건유교도덕에 정의로써 항거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켜 행복을 쟁취하는 절개높은 녀인으로, 대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구체화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가실이는 예로부터 서로 돕고

이끝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던 우리 인민의 조상전례의 미풍랑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의감이 강한 젊은이로, 적과의 싸움에서는 용감한 애국자로 그려져있다.

가실이는 뜨거운 인정미를 소유한 인물이다.

남의 슬픔과 불행앞에서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그의 형상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보여준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에서 가실이는 소설《설씨의 딸》에서의 가실이와는 다르게 애정관계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인간으로 형상되어있다.

단적인 실례로 거울에 대한 세부를 들수 있다.

소설에서는 설씨딸이 거울을 절반씩 쪼개서 랑자가 가지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서사시에서는 가실이가 자기의 거울을 둘로 쪼개여 신표로 삼는것으로 노래되어있다. 이것은 시인의 창작적의도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시인이 거울의 주인을 가실이로 택한 보다 중요한 원인은 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서 가실이에 대한 형상이 중요하다고 본데로부터 비롯된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창작적의도의 결과 가실이가 수자리를 서게 된곳도 소설과는 달리 우리 나라 북쪽국경일대로 되어있으며 가실이는 뜨거운 애국심의 체현자로 형상되어있다. 그의 아름다운 인정세계와 정의감도 이러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이로 하여 가실이의 인정미가 그토록 인상깊게 새겨지는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설씨의 딸과 가실이의 형상은 작품의 주제사상해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품에서 설씨로인은 딸의 성격적특성을 밝히는데서 기본대상으로 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그의 모든 행동은 대조적으로 딸의 성격을 부각시켜주고있다.

아버지는 딸자식의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나이차기전에 다른 집에 시집보내려고 함으로써 딸과 가실이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아버지는 딸과 가실이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깨뜨려버리게 하는 위치에 서있다.

여기에 바로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인간관계에서의 극적계기가 있는것이다.

이렇게 작품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맺어지게 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주제사상도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과경합》의 구성상특성은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데서 장편서사시라는 큰 형식의 요구에 맞게 사건을 생활론리를 따라서 비교적 정연하게 전개시켜나간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인물들의 관계는 사건이 뻗어나가는 과정에 맺어지고 발전해나가기때문에 사건의 설정과 그 발전과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설씨의 딸과 가실이가 6년간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서로 만나 행복의 절정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인상적인 사건의 련쇄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서사시의 이야기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수 있다.

우선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상태와 그때 당시의 환경을 노래하면서 사건발단의 전제조건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설씨로인이 나이 60살에 쇠약한 몸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과 나라의 변방에 조성된 위급한 정세를 동시에 노래하고있다.

이 부분이 서사시의 발단을 예견하는 시적정황으로 된다.

아버님은 년세가 예순이 되여
쇠약하고 병들어 누워계시는데
이때 변방형편은 긴장하고도 급하여
나라에서는 변방의 성을 지킬 군사들을 징
집하였다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설씨로인 혼자뿐이다.

그것은 이 시가 주인공 설씨 딸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는 식으로 엮여져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주인공과 가실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설씨로인의 첫 모습, 즉 병들고 쇠약한 모습을 당시의 정세와 결부시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되리라는것을 암시해주고있다.

다음으로 나라에서 변방을 지킬 군졸들을 모집하는 군첩이 설씨가 살고있는 마을에도 당도하였다는것, 그런데 설씨로인은 몸이 여의치 못하여 군역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며 무남독녀 외딸은 연약한 녀성인것으로 하여 아버지를 대신할수 없어 슬픔에 잠겨있는데 이웃마을에서 사는 가실이가 대신 수자리에 나가겠다고 자청하는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작품에서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있게 될 이야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며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인간관계의 변화도 시사해준다.

서사시의 다음부분은 사건의 발전단계로서 돌아오지 않는 가실이에 대한 깨끗한 마음을 품고 신의를 지켜 기다리는 녀주인공을 좋은 혼처에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의 그릇된 처사를 보여준다.

자기 딸의 혼기가 늦어진다는 우려로 하여 가실이와의 언약을 저버릴것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인간의 도리만은 저버릴수 없다는 딸의 상반되는 견해와 립장으로 하여 부녀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심화발전되어나간다.

이 부분에서 아버지와 딸의 각이한 특질과 성격이 밝혀지고 전개되어나가면서 주제사상이 드러나게 된다.

시에서 사건은 계속 발전되어 마침내 아버지가 딸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자 딸은 죽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극적상태에 이른다.

이 부분에서 사건은 폭발점에 이르며 주인공이 간직한 감정도 폭발하여 최고조에 이른다.

여기서 아버지와 딸사이의 알룩은 첨예화되면서 부녀가 갈라지느냐 아니면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시는 설씨 딸의 설득력있는 설복과 완강한 거절로 하여 설씨로인이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과 지루하고 고달팠던 기다림이 끝장나 두 련인이 상봉하여 잔치를 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이 부분이 사건의 해결부분으로 된다. 여기서는 사건과 인간관계가 완화된 채기된 문제가 해명되면서 결속된다.

이처럼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정연한 사건 발전체계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 그들사이의 알룩, 그들의 성격을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해결하고있다.

서사시는 함축된 시형식에 잘 짜인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면서 그 매 단계에서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있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구성상특성은 다음으로 회상식구성수법을 쓰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소설 《설씨의 딸》에 토대하여 그 주제사상적내용을 새롭게 하며 형상을 독창적으로 창조하려고 모색하였다. 이러한 창작적의도에 기초하여 서사시창작에서 회상식수법에 의한 구성조직을 탐구하였다.

그는 작품의 시작부터 회상의 전제를 잘 깔아주고있다.

님이 돌아오시리라 믿었나이다
원앙이불도 저의 잠자리에 있나이다
님이 돌아오시리라 믿었나이다
반조각거울도 제곁에 걸려있나이다
오늘밤이 어떤 밤인가
신부 신랑을 맞이하니
늙은 아버지 너무 기뻐 잠 못 이루네
...

이제는 우리 일도 끝났으니
지나간 곡절많은 사연 얘기하겠어요
시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못건디게 그립던 님

을 만나 축복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 즐거운 밤의 전경이 펼쳐지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회상되고 있다.

주인공 신부는 가실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설씨로인은 사위를 맞아들였으니 그 기쁨은 한량없다.

수년세월 일일천추로 기다려 가실이와 상봉하는 오늘에 이른것은 그들부부에게 있어서 큰 행복으로 되나 그동안의 곡절많은 생활의 흔적은 아직도 그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 마음은 고통스럽던 지난날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작가에 의하여 주관화된 감정의 흐름으로 회상되는것이 아니라 작중인물들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체험과 강렬한 충동에 의하여 회상이 이루어진다.

작가는 회상식수법을 씌으로써 사건의 순차에 따라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일반적인 구성수법과는 다르게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에 굴곡을 주면서 작품전반의 진실성을 보장하였으며 특색있는 인물성격도 창조할수 있게 하였다.

작품의 구성상특성은 또한 서사성과 서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일반적인 기승전결의 흐름을 타고나가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서정성이 짙게 깔려있다.

작품은 변방초소로 나간 가실이를 기다리는 설씨 딸의 심정을 서정시에서처럼 함축하여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와 대화 등을 통하여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서정적인것과 서사적인것을 잘 배합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바로 이 장편서사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것도 이러한 서사적인 이야기방법과 서정성을 잘 살려나갔기때문이다.

또한 작품에서는 서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목에서 주정토로를 쓰고있다.

실례로 허약한 설씨로인의 군역을 대신하여 그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수자리로 주저없이 떠나가는 가실이의 의로움에 대한 시인의 주정토로를 들수 있다.

그 높은 의기 고금에 드문 일이어라
그 두터운 은혜 산과 바다에 비기랴

이것은 누구나 선뜻 나서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을 스스로 결머지는 가실이의 의롭고 착한 마음씨에 대한 시인의 찬탄의 목소리인 동시에 작중인물들인 설씨부녀의 솟구치는 걱정을 그대로 표현한것이다.

서사시는 이처럼 사건을 위주로 하여 구성을 펴나간것이 아니라 작품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서정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감으로써 시적인 세계에 승화시킨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예술적특성은 둘째로, 다양한 묘사와 여러가지 표현수법을 쓰고있다는 것이다.

작품은 우선 다양한 묘사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비교적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인물묘사와 자연묘사, 세부묘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고있으며 사실주의적경향성을 뚜렷이 하고있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묘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인물묘사를 그리는 대상의 내용상 성격에 따라 초상묘사와 심리묘사, 행동묘사로 나눌수 있다.

작품에서는 변방수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실이의 초상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있다.

머칠 지나 총각은 돌아왔네
람루한 옷자림, 여윈 얼굴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네

여기서 빼만 앙상하게 남아서 집안사람들도 알
아볼수 없게 변모된 가실이의 초상묘사를 통하여
그 당시 변방수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직감
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라의 북부 국경일대의 정세
와 병사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반영하고있다.

수척해져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가실
이의 형상은 그가 겪은 고초를 시사해주는 동시
에 애인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의리심과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몸 서슴없이 바쳐싸운 애국심을
엿볼수 있게 한다.

이렇게 시에서는 함축된 시어들을 리용하여 가
실이의 애국심과 설씨 딸에 대한 굳은 믿음, 그
가 걸어온 고난의 로정들을 명약관화하여 사실주
의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초상묘사뿐만아니라 심
리묘사도 리용하고있다.

특히 가실이를 기다리는 설씨 딸의 심리를 묘
사한 시대목은 그의 성격상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인공의 마음은 비둘기마음 콩밭에 가있듯이
언제나 님과 함께 있는 외로운 심리적고충을 애
인이 두고간 거울과 말과의 결부속에서 정서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에서 타가문에 시집가라는 아버지에게 눈
물을 흘리며 간곡히 말하는 주인공의 행동에 대
한 묘사는 설씨 딸의 사상정신세계를 직접 드러
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사건과 행동을 암시해준
다.

시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한 부분은 설씨의 딸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
의가 귀중하다는것을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목
숨바쳐 신의를 지켜온 사실들과 결부시켜 아버지
를 교양하는 대목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자연묘사에도 주의를 돌리고있다.

《과경합》에서 자연묘사는 순수 자연자체를 노
래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중인물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있어 인물들의 사상감정이 반
영되어있다.

강은 얼어붙고 산은 백설로 덮였는데
창을 메고 천리전장을 달리네

보는바와 같이 박달나무도 얼어 터지는 북방의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면서 싸우는 가실이의 형상
을 통하여 자연의 혹한도 나라를 지킬 뜨거운 애
국심에 불타있는 군인들의 의로운 의로운 투쟁을
막을수 없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이야기줄거리의 적절
한 대목들에서 세부묘사도 잘하고있다.

실례로 부녀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들은 주인공
의 개성을 세부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히 가실이가 배낭에서 반조각의 거울을 꺼내
여 설씨 딸의것과 합치는 장면을 《드디어 두 거
울이 합쳐지니 한오리의 틈도 없이 꼭 맞았네.
밝은 마음 비쳐주는 이 거울이 있더니 과연 가실
이는 돌아왔다네》라고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이처럼 거울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수년세월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을 겪으면서도 신
의를 소중히 간직하여온 두 련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잘 형상하고있다. 시에서의 다양한
묘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서사시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적극
살려씀으로써 작품의 예술적특성을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장편서사시에서는 과장법이 널리 쓰이고있는데
실례로 나라의 국경초소를 지켜싸우는 가실이의
투쟁모습을 《창을 메고 천리방선을 달리네》라
고 과장함으로써 변방군사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고있다.

바로 《창을 메고 천리방선을 달리네》라는 이
과장된 시어속에 외적의 침입으로 하여 순간의
휴식이나 해이도 없이 무기를 항상 몸에서 놓지
않고 변방보위에 힘쓰는 군인들의 모습, 주저와
동요없이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애국적인
장한 기상이 어려있다.

《과경합》에서는 과장의 수법과 함께 대구법과
반복법을 적절하게 쓰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장편서사시에서는 또한 형상적인 비유법을 비
교적 능란하게 적용하고있다.

《창문가의 어린 복숭아나무 6번이나 꽃이 피고 열매맺어 향기 풍기는데》라는 시대목은 시형상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세련된 표현으로서 변방초소에 나간지 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감감무소식인 가실이와의 상봉을 학수고대하는 설씨 딸의 심리세계를 복숭아나무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이밖에도 서사시에서는 《오늘밤이 어떤 밤인가》라는 수사학적질문으로 된 시구도 있으며 어순전도의 수법을 써서 시의 형상성을 높인 문장도 찾아볼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과경합》을 형상의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창작함으로써 강한 서정성을 가진 장편서사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우리 나라 중세시문학발전에서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과경합》의 문학사적의의는 중세 애정윤리적주제의 시가문학창작에서 가치있는 경험을 남겨놓은데 있다.

장편서사시는 청춘남녀사이의 애정문제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윤리와 결부시켜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18세기 시가작품창작에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량속과 밀착시켜심화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특히 애정윤리적인 문제의 밑바탕에 나라를 사랑하며 지키는것을 의무로 간주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뜨거운 애국심을 깔아줌으로써 주제사상의 진보적경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두 청춘남녀의 사랑의 밑뿌리, 기초는 조국애와 신의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둘째로, 《과경합》의 문학사적의의는 작가가 삼국시기의 소설을 각색하여 장편서사시로 창작

함으로써 중세문학이 선행문학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경험을 남겨놓았다는데 있다.

장편서사시 《과경합》이 창작됨으로써 삼국시기의 소설인 《설씨의 딸》의 사상에술적가치가 더욱 명백히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장편서사시를 당대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창작하는 과정에 작품의 주제사상, 인물형상과 구성, 표현수법들을 새롭게 탐구하는데서 가치있는 경험을 남겨놓았다.

셋째로, 《과경합》의 의의는 소설 《설씨의 딸》을 소재로 하여 장편서사시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창작됨으로써 18세기 우리 나라 장편서사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말기 시인인 리원배는 《설씨의 딸》을 소재로 하면서도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구성조직, 시적정황 등을 장편서사시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탐구하였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당대 사회현실과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창작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남겨놓았다.

《과경합》은 동시대의 작품인 김려의 장편서사시 《방주의 노래》와 함께 이 시기 장편서사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볼수 있다.

넷째로, 장편서사시 《과경합》의 의의는 철저히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이야기를 엮어나감으로써 이 시기 우리 나라 시문학창작에서 사실주의적경향강화에 이바지하였다는데 있다.

이처럼 장편서사시 《과경합》은 당대 사회상과 우리 문학사연구에서 가치있는 작품으로 되며 문학사발전에 기여하는 몫이 자못 크다고 볼수 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보고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된데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29(1940)년 도이쉴란드 파쑈침략군은 프랑스의 수도 빠리를 강점하였다.

당시 저명한 화가였던 피가소는 자기 화실에 우울하게 앉아있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로인이 두 손으로 죽은 비둘기를 들고 들어와 울면서 하소연하였다.

《내 손자가 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있었는데 한무리의 파쑈놈들이 달려들어 내 손자를

때려죽이고 이 비둘기까지 죽여버렸수다.

피가소선생, 이 비둘기를 좀 그려주시우. 파쑈놈들에게 살해된 손자녀석을 추억하게 말이우다.》

비분에 찬 피가소는 로인을 위로해주기 위해 흰비둘기 한마리를 화폭에 담았다.

주체38(1949)년 피가소는 이 비둘기그림을 빠리세계평화대회에 증정하였다.

파쑈도이쉴란드가 자기네 상징으로 내세웠던 사나운 독수리와 너무도 대조되는 아름답고 정당한 흰 비둘기는 그때부터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의학상징의 유래

우리는 의학책이나 약품포장, 약품설명서 등에서 술잔을 감고 올라가있는 뱀의 그림을 흔히 보게 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마크에는 지팡이를 뱀이 감고 올라가있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들은 다 세계적으로 의학을 상징하는 공동표식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어떻게 의학의 상징으로 되었는가를 고대그리스의 신화를 통하여 보기로 하였다.

아득히 먼 옛날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성새와 같이 둘러싸인 산간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서로 사랑하는 한쌍의 처녀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방의 혼례풍습에는 신랑될 총각이 결혼식상에 은빛암산양을 사냥해다가 놓게 되어있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날 총각은 은빛암산양을 사냥하기 위해 처녀에게 언제까지 꼭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약속한 날자가 훨씬 지났지만 총각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을 조이며 총각을 손꼽아 기다리던 처녀는 사랑하는 총각을 찾아 향방을 알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날 총각을 찾아 헤매이던 처녀는 어느 한 벼랑밑에서 간신히 들리는 귀에 익은 말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보니 은빛암산양을 꼭 그리안은 총각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있었다.

짜늘하게 식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여안고 운명의 야속함을 저주하며 애타게 울며 몸부림치던 처녀는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을 느끼고 주의를 돌려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죽은 뱀이 한마리 있었는데 그 주위를 또 다른 한마리 뱀이 구슬피 울며 맴돌고있었다. 아마도 한쌍의 부부뱀인듯하였다. 한참 죽은 뱀의 주위를 맴돌던 뱀은 가랑잎 하나를 물고 풀숲을 헤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한

참만에 가랑잎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죽은 뱀의 대가리에 부어주는것이였다. 그러자 죽었던 뱀이 대가리를 들고 몸통을 꿈틀거리더니 꼬리를 흔들며 살아나는것이였다.

처녀는 하도 이상하여 총각을 눕혀놓고 뱀이 갔던 풀숲길을 따라가보았다. 거기에는 정갈한 샘물이 솟아나고있었다. 처녀는 그 샘물을 정히 떠가지고와 사랑하는 총각의 머리우에 뿌려주었다. 그렇게 몇번 하니 백지장같던 총각의 얼굴에 피기가 돌더니 점차 몸을 움직이면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나 앉는것이였다. 순간 처녀와 총각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들은 사냥한 은빛암산양과 신기한 샘물을 떠가지고 돌아와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었으며 그후에도 이 신기한 샘물로 수많은 마을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있을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신화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근원을 두고 뱀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약물을 안내했다는 의미에서 뱀이 술잔이나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있는 그림이 나왔으며 그것이 의학의 상징으로 되게 되었다.

이 표식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들이 쓰는 약가운데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것이 술과 차인데 흔히 약을 술잔에 담아먹었다는 의미에서 술잔이 표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뱀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약을 가리켜준 안내자라는 의미에서 표식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라틴어나 영어, 로어 등에서 《의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메디찌나》, 《메디진》등으로 발음상 공통성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전설을 낳은 지방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 처녀의 이름에서 기원되었다는 설도 있다.